금주의 법구-〈법구경〉
분에 넘치는 이익은
마음을 어리석게 한다.
적은 이익으로써 부자가 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7월 8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09호 2016년 8월 10일 수요일

드러난 불교 민낯 자성 계기 될까

[기획] 현각 스님 발언으로 본 한국불교 문제점

한국불교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낸 '눈 푸른 납자' 현각 스님의 발언이 연일 화제다.

한국불교와의 이별을 암시하는 소셜미디어 글이 급속도로 퍼지며 논란이 일자 현각 스님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한국불교와 조계종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다. 서툰 한국어가 와전된 것으로 떠나지 않는다"고 진화에 나섰다. 논란이 된 글은 삭제했다. 하지만 현각 스님이 한국불교계에 던진 부끄러운 민낯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본지는 스님의 글에서 한국불교의 문제점으로 언급된 내용을 주제별로 나눠 앞으로 3주에 걸쳐 집중 보도한다.

① 잿밥에만 관심 있는 기복신앙

'염불에는 뜻이 없고 잿밥에만 맘이 있다'는 속담이 있다. 해야 할 일에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돌아올 잇속만 챙기려는 심산을 의미한다. 현각 스님은 이를 '기복=$'로 표현했다.

대중은 떴다방 유사포교당, 이벤트성 49재, 수능 100일 기도 등 인간이 갖는 기복적 자세를 공략한 것들에서 불교에 대한 염증을 느낀다. 노인을 상대로 위패와 불상을 판매하고 위령제를 권해 돈을 받은 뒤 불시에 문을 닫는 떴다방 포교당은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또 수년 전 대형사찰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49재를 7번(343 천도재) 지내게 한 일화는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자식을 위한 모성애를 탓할 순 없지만 수능 100일 기도 역시 경쟁이 불가피한 사회에서 바른 기복행위는 아니다.

〈쌍윳따니까야〉에 따르면 부처님은 죽은 사람을 천상에 태어나게 할 수 있는지 묻는 어느 마을 촌장에게 "호수에 바위를 던진 뒤 사람들이 '떠올라라!'라고 기도하면 어찌되겠느냐"고 되물어 깨우침을 줬다.

물론 기복 자체를 나쁜 것으로 볼 순 없다. 스님들은 "기복을 이용해 재물을 탐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② 계급화 된 차별문화

부처님은 늘 평등한 위치에서 대중과 소통하며 가르침을 내렸다. 비구 · 비구니 · 우바새 · 우바이 역할은 구분했지만 차별하진 않았다. 하지만 한국불교에는 언제부턴가 '승려중심' 그리고 '비구중심' 문화가 자리 잡았다.

현각 스님은 'together-practice(출 · 재가 차별 없는 공동수행)'를 꼽으며 "유교적 관습 없는 환경, 남녀 · 국적 차별 없는 정신"을 강조했다. 특히 2013년 조계종 총무원장선거 직후에는 본지 인터뷰서 비구 · 비구니 간 투표권 차이를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보다도 승려 간, 출가와 재가 간에는 더 큰 차별이 존재한다.

익명을 요구한 A스님은 "동국대를 다닐 때 선배스님들이 정각원 선착순 달리기를 시키는 등 악습이 있었다"며 "현재는 많이 줄었겠지만 또 다른 권위주의적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B사찰 신도인 이 모씨는 "재가자들은 스님을 수행자로서 존경하는 것이지 직원이 회사 사장에게 허리를 굽히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며 "하지만 몇몇 스님들은 마치 출가신분을 계급으로 이해해 눈살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한다"고 전했다.

③ 외국인승려는 데코레이션

현각 스님은 자신의 글에서 "주한 외국스님은 조계종의 데코레이션(장식)"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곧 외국인스님이 한국불교에서 어떤 역할도 맡을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수준인 외국인스님에게 종단에서 어떤 역할을 맡길 수 있겠느냐"는 볼멘소리도 있다. 실제 TOPIK 1급은 '물건 사기' 등 아주 기본적인 한국어수준이다. 하지만 외국인스님들이 장식품으로 전락한 이유는 그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못한 교육시스템의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다. 올해 초 문을 닫은 화계사 외국인행자 교육원 역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현각 스님의 발언을 두고 수많은 대중이 설왕설래하고 있다. 특히 이 논란이 한국불교 자성의 기회로 이어져야 한다는 게 주된 의견이다.

〈관련 기사 3면〉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시원해 좋고 신나서 더 좋고!" 폭염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대한민국이 뜨겁다. 어른들은 그늘을 찾아, 물을 찾아 각지로 떠나지만 순박한 천진불들은 그저 여름방학을 즐기기에 여념이 없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 서울 화계사는 7월 30~31일 경내서 여름불교학교를 개최했다. 사진은 한 어린이가 법당 앞마당에 마련된 에어바운스 미끄럼틀을 타며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 모습. 글 · 사진=윤호섭 기자

"불자대중 자각이 언론 왜곡 막는다"

국제언론종교문화학회 서울대회서 학자들 한 목소리

최근 대중들은 미디어를 통해 각종 사안을 접하지만 그 내용은 왜곡되거나 굴절되기 십상이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권력에 의해 미디어는 사실을 굴절하고 왜곡한다. 늘어나는 미디어 왜곡 현상에 대해 50여 국제언론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는 불교세션이 특별히 마련돼 불교적 해법이 모색, 제시됐다.

국제언론종교문화학회(ISMRC)는 8월 1일 서울 한양대 사회과학관서 '미디어, 종교, 그리고 공공성'을 주제로 서울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서울대회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을 넘어선 한국불교의 통찰: 진리, 미디어, 그리고 대중'을 주제로 불교세션이 배정됐다. 불교세션에서는 이도흠, 석길암, 박병기 교수 등이 나서 디지털 사회에서 언론과 종교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이도흠 한양대 교수는 '재현의 위기론에 따른 미디어 분석과 불교적 대안'에서 '재현의 위기' 현상에 대한 고찰과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주문을 내놨다. 재현의 위기란 왜곡된 사실을 접한 대중들이 이를 다시 왜곡해 재현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 교수는 "21세기 사회에서는 미디어에 비친 가상현실이 삶의 영역에 들어온다. 현실이 미디어로 재현되며 왜곡되거나 변환된다"며 "불교적 대안은 이러한 실상을 직시하고, 잘못된 재현으로 갈등하는 것에 대해 비판, 그 현실 너머의 일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잘못된 재현의 원인으로 '지배하는 신화, 권력'을 꼽았다. 이 교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화 너머에 있는 일심으로 때로는 지배권력에 맞서고, 저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디어 공공성 확보' 해법 모색
불교세션 이도흠 · 석길암 등 나서
'화엄' · '일심' 접목해 대안 제시

'21세기 미디어 윤리에 관한 불교적 성찰'을 발표한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는 계율 정신에 근간한 미디어 윤리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계율전통을 재해석한 '마음 중심의 관계윤리'를 제안했다.

박 교수는 "미디어는 인간들 사이의 소통 매체이고, 관계망"이라며 "관계망 자체를 직시하는 사회윤리적 지혜와 자비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원효에서 시작된 한국불교의 계율 전통은 계율 준수의 판단 기준을 마음에 두는 방향으로 정착했다. 21세기 초 미디어 상황 속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풍부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차기 과제로 남겼다.

석길암 동국대 교수는 '화엄사상으로 본 디지털미디어 시대의 대중'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특징은 쌍방향성이며 이는 화엄으로 해석 가능하다. 화엄사상에서는 일체 모든 중생이 온전한 붓다로서 참여하는 이상세계 구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중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석길암 교수는 "디지털 시대 대중이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참여주체로서의 자각이 필요하다. 자각은 거창한 것이 아니며 누구나 삶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 교수는 끝으로 "화엄적 관점에서 보면 디지털미디어 시대의 대중은 현명한 소비자로서의 참여의지와 행동이 요구된다"며 활발한 대중들의 참여를 요구했다.

한편, 이번 국제언론종교문화학회 서울대회는 8월 1일부터 4일까지 한양대와 서울 삼정호텔서 열렸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신청 조건부 대상 선정

문화재청 세계유산분과, 7월 27일 심의 · 결정

조계종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한국의 전통산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내년도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한국의전통산사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위원장 자승, 이하 등재추진위)는 "지난 7월 27일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회의 결과 '한국의 전통산사'가 2017년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에 조건부로 선정됐다"고 8월 2일 밝혔다.

조건부 선정의 이유는 보고서 내용 중 △전통산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연속유산 선정에 대한 논리 △비교연구 등을 11월까지 보완해줄 것을 분과 회의서 지적받았기 때문이다.

등재추진위 관계자는 "등재를 위한 일련의 과정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다. 보완해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전통산사'는 영축산 통도사, 봉황산 부석사, 천등산 봉정사, 속리산 법주사, 태화산 마곡사, 조계산 선암사, 두륜산 대흥사 등의 7개 사찰로, 오늘날까지 한국 불교의 신앙과 수행 및 생활 등이 지속되어 온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다.

문화재청은 2016년에 선정된 '한양도성'에 이어 '한국의 전통산사'를 2017년 등재 신청할 유산으로 선정했으며, 2017년 등재신청서 제출 여부는 보완된 등재신청서(국 · 영문)를 11월 중 문화재위원회에서 평가해 결정한다. 이에 따라 '한국의 전통산사'는 2016년 11월 심의를 거쳐 2017년 등재신청서 제출하고 실사 등의 과정을 거쳐 2018년 세계유산 등재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그간 조계종과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보은군, 공주시, 순천시, 해남군, 안동시, 영주시, 양산시 등은 2014년 8월 등재추진위를 발족하고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국내 ·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등재추진위는 "2017년 세계유산 등재신청 유산으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기초연구를 통해 충분히 확보된 자료들을 기반으로 문화재청과 함께 등재신청서(국 · 영문)를 보완하여 정밀하게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석가를 품은 53見 본문 중에서



제 32見 종(鐘)

종(鐘)은 소리를
멀리 내보내기 위해
더 아파해야 하듯이

고행(苦行)은
세상사람들의 뼈저린 고통을
덜어 줌이요
대신 아파함을 락(樂)으로
삼음이다

더 아파함이
선근공덕이요 깨어남이니
·
·
·
오늘은
왠지 ....
종소리가 더 아픈듯이
들린다

깨달음센터
(구. 화엄경 강원)
방장 진귀

“세월호 무사 인양, 불보살님께 발원합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 세월호 선수 들기 성공 환영문 발표

지난 7월 29일 세월호 선수(뱃머리) 들기 작업이 성공한 것과 관련,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이에 대한 환영문을 발표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 이하 사회노동위)는 7월 29일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선수 들기 공정 및 선체하부에 리프팅 빔 18개 설치 작업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한 직후 이에 대한 환영 의사를 표했다.

사회노동위는 “기상과 기술적 문제 등으로 실패와 연기를 거듭한 끝에 선수들기를 마쳤으니 다행이고 고마운 일”이라며 “무엇보다 9명 미수습자 가족들의 극심한 고통에 한줄기 위안과 희망의 빛을 가져다줬을 것”이라 전했다.

이어 사회노동위는 “앞으로 선미들기, 리프팅빔과 리프팅 프레임 와이어 연결, 세월호의 수중 인양 등 어려운 과정이 남았지만, 세월호가 무사히 인양될 수 있도록 불보살님께 진심으로 발원할 것”이라 약속했다.

한편 사회노동위는 8월 11일 세월호 참사 해역에서 2차 인양기원법회를 봉행한다. 오전 9시 조계사 앞에서 출발할 예정이다. 참가문의 (02)2011-1822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조계종 승려복지, 중앙종무기관도 동참

교역직 국장스님 기본급 10% 승려복지기금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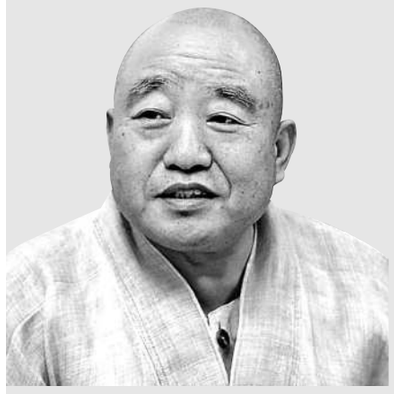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국장스님들이 7월부터 기본급의 10%를 승려복지 후원금으로 납부한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중앙종무기관 국장스님들은 그동안 국장단모임 차원에서 승려복지제도 시행 초기부터 매달 30만원의 후원금을 내고 있었다”며 “7월부터 국장스님들 전원이 월 보시 중 기본급의 10%를 승려복지 후원금으로 납부하기로 했다”고 8월 1일 밝혔다.

승려복지제도는 33대, 34대 총무원 집행부 핵심사업 중 하나로 2011년 4월 승려복지법 제정에 따라 시행됐다. 현재까지 입원진료비와 요양비,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의료복지를 시행 중이며, 내년부터 스님들의 노후준비를 위해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조계종이 2017년부터 지원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1인당 월 36,000원을 기준으로 2017년 월 10800원, 2018년 월 18000원, 2019년부터 월 36000원을 지원하게 된다.

조계종은 “이번 국장스님들의 결의로 도반과 선후배스님, 승가의 미래를 위해 승보공양 후원운동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노덕현 기자



출가생활·전문교육 동시에 ‘Uni- 출가’, 미래위한 불사

[인터뷰] 중앙승가대학 총장 원행 스님

“요즘 20대를 보면 취업 등 진로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가히 무한 경쟁 세대라고 할 수 있죠. 이들에게 중앙승가대가 추진하는 4년 단기출가, ‘Uni- 출가’를 권하고 싶습니다.”

조계종립 중앙승가대학 총장 원행 스님〈사진〉은 8월 4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출가 진흥을 위한 방안으로 ‘4년 단기출가 제도(Uni- 출가)’를 신설해 올해 신입생을 받아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앙승가대의 ‘Uni- 출가’는 출가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새로운 시도다. ‘Uni- 출가’는 중앙승가대에서 4년 간 정규대학과정을 이수하면서 출가생활을 경험하고, 졸업 후 구족계를 받거나 사회전문직업인으로 진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계종 기본교육기관 중 하나인 만큼 ‘Uni-출가’를 하는 방법은 일반 대학과는 다르다. 단기출가를 신청한 후 은사를 결정해 행자를 등록하고 행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Uni-출가’를 마음먹었을 경우 ‘청소년출가특별법’에 의거해 행자 교육이 면제된다. 이후 종단 수계교육에 입교해 5급 승가고시 치룬 후 사미(니)계를 수지하면 중앙승가대에 입학할 수 있다.

내년 3월 입학을 위해서는 20대 이상은 8월 29일까지 등록을 해야 하며, 현 고등학교 3학년은 12월까지 등록하면 된다.

“‘Uni-출가’에 현재까지 지원한 사람은 일반인 5명입니다. 고등학생 지원자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지난 7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중앙승가대에서 진행하는 템플스테이인 ‘UNI-stay’를 진행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참가 학생들이 출가에 대한 인식을 변화하는 것을 봤습니다. 종립학교를 대상으로 ‘Uni-출가’를 홍보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중앙승가대에 입학하면 여러 혜택이 주워진다. 등록금 및 4년 학비, 기숙사비는 전액 면제다. 이는 Uni-출가자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된다.

출가 수행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라 불교 교육만을 배울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종단 표준교육과정에 맞춰 현대적인 교육 커리큘럼이 구성돼 있다. 어학의 경우 영어는 4년 내내 수업이 있으며, 제2 외국어로는 일본어와 중국어를 수강할 수 있다. 본인 능력에 따라 대만 불광산사 5개 대학, 일본 교토 불교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조계종 기본교육기관 최초로
4년 단기출가 제도 신설·운영

졸업 시 복지사·학예사 취득
출가·직업인, 진로 선택 가능

종무원·복지사 등 메리트 많아
출가 감소 시대 新 대안 ‘주목’

또한 교육부가 인정한 4년제 정규대학인만큼 전공별로 관련 학예사, 사회복지사 2급, 상담심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Uni-출가’의 특징은 4년 간 경험을 토대로 스스로 구족계 수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미(니)로서 출가를 경험하고 출가 수행자로서의 삶을 선택할지 전문직업인이 될 지를 선택하면 된다.

전문직업인으로서도 여러 진로 선택이 가능하다. 중앙승가대의 경우 국방부 지정 군종사관 후보생 지원대학이기 때문에 군승 및 학사장교로 군복무를 대체하거나 군인으로서 진출이 가능하다. 또한 불교계 복지시설을 비롯해 중앙종무기관 및 사찰 종무원, 박물관 학예사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원행 스님은 4년 단기출가 제도인 ‘Uni-출가’가 출가자 감소 시대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했다. 특히 환속을 죄처럼 생각하는 현재 출가 문화에도 변화를 줄 수 있음을 강조했다.

“대만 불광산사의 경우 8년 단기 출가제도가 있습니다. 미얀마 등 남방불교에는 출가를 경험케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Uni-출가’는 한국불교 출가문화의 변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4년 단기출가 후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불교 전문인재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Uni-출가’는 곧 미래를 위한 불사입니다.”

(031)980-7777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폐사지 복원에 만전 기해달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8월 2일 삼척 도계읍 흥전리사지 발굴현장을 방문해 복원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당부했다. 스님은 “사찰의 경우 전란이나 천재지변 등을 겪으며 법등이 끊어진 곳이 적지 않지만, 이곳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은 불제자들의 역할”이라며 “폐사지 발굴유물 보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법령 개정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흥전리사지는 통일신라시대 창건해 고려시대 전기에 폐사된 사찰로, 국통(國統)이 주석했던 곳으로 추정된다. 2014년부터 불교문화재연구소가 발굴하고 있는 곳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선암사 패소 대응, 시작부터 ‘삐그덕’

선암사특위 2일, 첫 회의서 자료미비 지적 나와

지난달 14일 순천 선암사의 소유권이 태고종에 있다는 법원 판결 이후 조계종 중앙종회 선암사정상화를위한특별위원회(이하 선암사특위)가 첫 회의를 열었지만 회의자료 미비로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선암사 특위는 8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선암사 관련 현황보고와 향후 계획 등의 안건을 다뤘다. 하지만 회의는 구체적인 자료 없이 개요와 소송현황 등 간략한 내용을 정리한 문건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이에 기획실과 사무처, 조계종 선암사 주지 법원 스님에 대한 특위위원스님들의 질책이 이어졌다.

특위위원장 만당 스님은 “특위가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논의조차 할 수 없다”면서 “1심 소송서류 등 특위위원들이 읽어보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스님은 또 “순천 차 체험관 소송에서 이기고 방심한 게 아닌가 싶다. 태고종은 기존 판례를 검토하고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이 자료의 신뢰성을 지적하고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각림 스님은 “태고종 측이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안이하게 준비해서는 2심에서 결과가 바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선암사 주지스님이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눠야 한다. 특위 역시 너무 방만했다”고 말했다.

이에 법원 스님은 “그간의 부족함을 참회하고, 더욱 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합의에 중점을 뒀던 15대 특위 활동을 바탕으로 접근하다보니 간과한 부분이 있었다. 특위 스님들과 긴밀하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선암사특위는 대외 유출 금지를 조건으로 1심 관련 자료를 특위위원에게 보내 검토하고, 역대 태고종 소송자료를 준비해 추후에 다시 회의를 하도록 결정했다. 아울러 지역정서를 고려해 접근하면서 소송 외에 태고종과의 합의 및 조정 등의 해결방법도 함께 모색키로 했다. 차기회의는 8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종회 보궐선거 입후보 일감·원범·도성 스님

제16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 3명의 스님이 입후보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종훈)는 8월 3일까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입후보 접수를 받은 결과 직능대표 사회분야에 일감 스님(불교문화재연구소장)과 원범 스님(부산 선암사 주지), 복지분야에 도성스님(전 불교중앙박물관 사무국장)이 각각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직능대표 사회분야는 지홍 스님이 포교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사직했으며 포교분야는 정도 스님이 법주사 주지로 선출되면서 사직한 상황이다.

중앙선관위는 8월 5일 입후보자 자격심사를 진행하며, 22일 직능대표선출위서 선출한다.

노덕현 기자

오시는 부처님을 맞이 합시다. 佛子 여러분께 알립니다.

사단법인 한국미륵불교 총회와 문도회에서 유통정법사장지은(流通正法師長之恩) 불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西天과 東土 직계 큰스님 靈位를 모시고 법맥계보편찬을 마치고 사부대중이 문도의 단결과 정진을 위하여 당호 건당식과 대가사 불사 회향을 기념하여 대법회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 日時 : 佛紀 2560년 8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 ■ 場所 : 경남 고성군 대가면 양화리 1길 102-15 대무량사 | ■ 문의 : 055)672-4394

三師 證明法師

달제 지운 큰스님 (제주 극락암 조실) / 대허 만선 큰스님 (조계종 경주 보문선원장) / 몽산 관일 큰스님 (조계종 영천 도솔암 조실)

流通正法師長之恩 法會奉行委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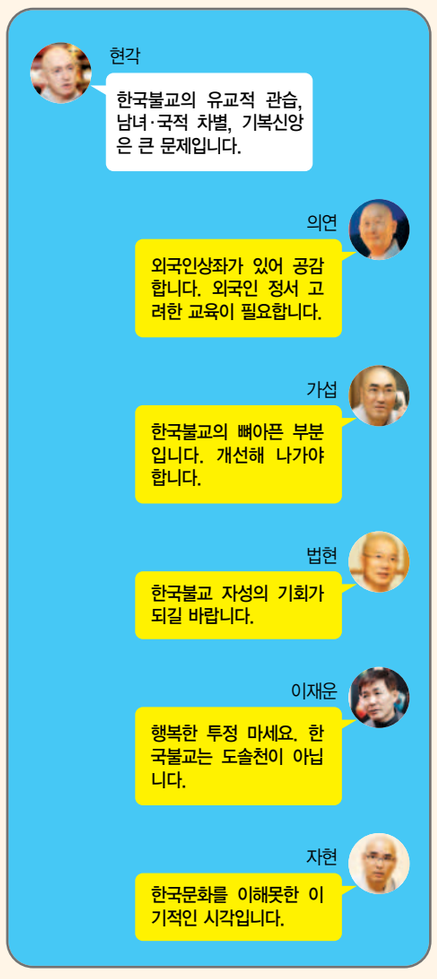
종 정	법련 덕범	문 화 원 장	혜안 행석	제주종무원장	혜봉 행범	진주종무원장	혜안 행석
총 무 원 장	혜봉 행범	중앙포교원장	혜관 행화	제주총무국장	한산 영건	거제종무원장	혜관 행화
종 회 의 장	삼봉 행현	국제문화원장	도명 행원	직할종무원장	남송 덕산	마산종무원장	대비
종회부의장	정철 행철	감 찰 원 장	법타 행춘	서울인천종무원장	만봉 행민	부산서교구종무원장	청련
승 정 원 장	자인 행림	포교사회회장	대명 행경	양산종무원장	원봉 행주	총무원사무총장	남송 덕산
중앙선원장	대성 행문	포교사회부회장	청정. 청량	창원종무원장	벽봉 행수		
호 법 원 장	원봉 행주	일본동경종무원장	만공 행덕	밀양종무원장	대명 행경		

고성 대무량사 도일 행청 / 진동 미륵암 구산 행안 / 산청 약원암 대력 / 마산 천수사 대륜 행선 / 제주 극락암 법해. 금산 / 제주 대산. 성타. 법륜. 덕화 / 산청 종현 / 통영 해암 / 거제 대유 / 일본 보림 / 창원 반야. 일광 / 마산 묘심. 대련. 정심 / 진주 명성 / 마산 성수 행광

外 門徒一同

사단법인 한국미륵불교 流通正法師長之恩 法會奉行委員長 俞禹植 혜봉 행범 합장

사부대중은 舌戰을 벌이고 있다



현각 스님이 던진 화두, 각계 다양한 목소리 '눈길'

한국불교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고 실망을 표현한 현각 스님의 소셜미디어 글로 세간이 들썩이는 가운데 '한국불교의 자성'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교계 곳곳에서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아울러 현각 스님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다양한 의견을 정리해봤다.

의연 스님(前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외국인 정서 고려한 행자교육 필요"

백양사 의연 스님은 8월 1일 페이스북에 현각 스님의 발언과 관련된 글을 게재했다.

의연 스님은 "외국인 상좌들을 두고 있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면서 가슴이 먹먹해진다"면서 "한국불교와 종단을 향한 그의 독백과 애정 없는 독설이 확대재생산 되면서 자칫 한국불교 위상이 추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연 스님은 7년 전 한국으로 출가해 올해 비구계를 받은 상좌 진여 스님(러시아)과 선정 스님(폴란드)에 대해 소개했다. 스님은 "외국인으로서 종단법으로 정한 새 기본교육과정과 기본선원과정을 정식으로 이수한 경우가 두 스님이 처음"이라며 "마침 제가 어느 절에 소임을 볼 때여서 함께 지내며 행자생활을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올 초 폐쇄된 화계사 외국인행자 교육원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의연 스님은 "3년 전 한국에 온 알렉스(폴란드)와 루시앙(미국)도 화계사 외국인행자 교육원에 입소해 동국대 한국어센터를 다니며 행자생활을 8개월 가량 했는데, 절집에 잔재하는 군대식 문화에 질려 스님 되기 싫어졌다고 떠났다"고 전했다.

의연 스님은 "행자교육도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수행을 오래한 외국인 스님들과 그들의 정서를 잘 이해하는 한국스님이 함께 맡아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섭 스님(마하사 주지)
"강압적 문화는 유교 아닌 일제잔재"

마하사 주지 가섭 스님은 7월 29일 페이스북에 "현각 스님이 인연을 정리하게 된 몇몇 이유들은 한국불교의 가장 아픈 부분임에 분명하다. 승가에서도 전부터 한국불교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돼 온 것이라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가섭 스님은 현각 스님이 지적한 △유교적 위계 △돈과 얽힌 기복신앙적 요소 △게으른 승려문화에 대해 조목조목 의견을 피력했다. 스님은 "한국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습합성' 또는 '융합성'이다. 조선불교 500년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찬란한 불교문화가 왜곡되고 굴절된 면이 적지 않다"면서 "기복신앙적 요소들은 현재 한국사회 민낯을 보여주는 면이기도 하다. 요즘 한국불교가 자본과 정치권력에 짙게 물들어 가는 점은 위기임에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가섭 스님은 본지 전화통화서 "기복 자체를 부정적으로 봐선 안 된다. 다만 이를 부처님 정법으로 이끄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문제"라면서 "강압적인 절집문화는 유교가 아닌 일제잔재인 군대문화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법현 스님(열린선원장)
"자성의 재료로 삼는 건 좋은 일"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은 본지 통화서 "유교적 위계가 꼭 수행을 저해하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런 이유로 자유로운 토론이 안 되는 건 사실이다. 이는 불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고민해봐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수행자 전부는 아니지만 주류가 돈에 빠져 있다는 건 아프게 다가온다. 출가자는 검소하게 살아야 하고, 부처님 법을 위주로 살아야 하는데 세속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부처님을 민원해결사처럼 활용해 돈을 좇는 출가자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법현 스님은 "현각 스님의 발언을 한국불교 자성의 재료로 삼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운 소설가
"현각 스님, 행복한 투정"

이재운 소설가는 7월 30일 페이스북에 "현각 스님이 25년 헛도수를 돌린 모양이다. 한국불교계가 어디 도솔천이라도 되는 줄 알았는가. 여긴 지옥이다"며 "새벽에 일어나 폐지를 주워야만 연명하는 노인들이 수두룩한 이 나라에서, 경치 좋고 공기 맑은 선방에 앉아 공양주가 떠주는 밥 먹고, 보살들이 사주는 가사장삼 입고, 불전함 뒤집으면 쏟아져 나오는 그 돈으로 구경 다니고, 이날 이때까지 살았으면 영광인 줄 아시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스승도 없었으며 제자도 없었으며 도반도 없던 부처님 생각하면 행복한 투정이란 걸 알 수도 있으련만, 더 공부하시게나"라고 덧붙였다.

자현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외국승려의 이기적 시각"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은 7월 31일 페이스북에 "현각의 비판은 외국승려가 얼마나 이기적인 시각에서 한국문화를 보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불교서) 25년이나 살고도 우리 전통문화를 존중하지도, 문화적 다양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자기 우월주의에 빠진 사람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자현 스님은 또 "외국인은 우리말이 서툴러 기도를 하지 못한다. 상담도 되지 않는다. 즉 자본을 생산해낼 수 없는 전적으로 더부살이 집단인 것"이라며 "그럼에도 한국인의 정 문화 때문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 한국승려가 이들을 모시고 살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전했다. **윤호섭 기자**

명상 · 심리 · 예술과학의 불교적 재해석

참불선원, 9월 5일부터 명사 초청 인문학강좌

지난 5월부터 다양한 명사들을 초청해 불교인문학강좌를 실시한 서울 참불선원이 하반기에도 고품격 강좌를 이어간다.

참불선원(선원장 각산)은 9월 5일부터 3개월간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강남 서울본원서 '열풍! 인문학 오케스트라'라는 대주제 아래 연속 인문학강좌를 개최한다. 하반기 강좌는 붓다의 인생철학을 비롯해 한글 창제 훈민정음의 비밀, 명상체험 등 철학 · 심리학 · 문화예술 · 과학 등 다양한 분야를 불교적 관점으로 해석한다.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개최

이미령 · 전현수 등 인문학자 대거 나서

총 12회에 걸쳐 진행되는 강좌는 △인간 삶의 존엄(이미령 북칼럼니스트) △인생과 종교, 이시대의 철학에세이(前 해인사 승가대학원장 원철 스님) △혜각존자 신비와 훈민정음의 비밀(박해진 작가) △명쾌 · 통쾌 · 상쾌 선가귀감(행불선원장 월호 스님 △불교, 미래사회의 종교인가(박광서 서강대 명예교수) △종교로부터 자유로운 세상(불교신문사장 주경 스님) △정신과 의사의 체험으로 보는 사마타 · 위빠사나와 불교정신치료(전현수 정신과전문의) △불교와 상처받은 마음의 치유(이규미 前 한국심리학회장) △현대사회와 불교(선상신 불교방송사장) △무의식의 브레인(명상심리상담연구원장 서광 스님) △붓다의 인생철학(참불선원장 각산 스님) 등으로 구성된다.

참불선원은 인문학강좌 외에도 사띠, 명상, 스트레스 심신의학을 융합해 만든 미국 메사추세츠 의과대학 존 카밧진 박사의 MBSR강좌를 8월 1일부터 한 달간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무료특강으로 진행한다. 강의는 안희영 한국MBSR연구소장이 맡는다.

참불선원장 각산 스님은 "이번 강좌는 불교지성문화에 인문학적 관점을 융합해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도움을 주는 한편, 일반인에게 불교 수행과 명상이 현대인의 삶을 얼마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좌와 강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참불선원 홈페이지(cafe.naver.com/chambul3280)에서 확인할 수 있다. (02)1577-3696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불교계 광복 71주년 기념행사 줄이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8.15 한반도 평화기원법회 봉행 등

광복 71주년을 앞두고 불교계가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행사 마련으로 분주하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이하 종단협)는 8월 15일 오전 11시 조계사 대웅전서 8.15 한반도 평화기원법회를 봉행한다. 종단협이 주최하고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주관하는 이번 법회는 통일기원 타종을 시작으로 남북관계 개선 입장문 발표, 축사 등이 이어진다.

또한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법타, 이하 민추본)는 8월 13일 철원 지역으로 8.15기념 민통선 순례를 떠난다. 오전 8시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출발해 도피안사서 통일법회를 봉행한 후 민통선 지역으로 이동, 철원평화전망대서 DMZ · 월정리역 · 철원두루미관 등을 답사한다.

이 행사엔 민추본 불교지도자과정 총동문회 '통일바루', 대한불교청년회,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등 불교계 단체가 동참한다.

민추본 측은 "사드 문제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서 통일과 평화의식을 재환기할 수 있는 행사들을 기획하고 있다"며 "이번 월례강좌를 통해 통일의 중요성을 느끼고 평화의 감수성을 고취시킬 것"이라 설명했다.

아울러 대한불교청년회 ·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등 10개 단체는 8월 8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 관계 및 민간 대북지원사업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뉴욕 타임스퀘어 나툰 석굴암 부처님

세계 교차로 뉴욕의 중심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석굴암 본존부처님이 나투셨다. 현재 뉴욕 타임스퀘어에는 문화재청과 LG전자가 지난 8월 1일부터 시작해서 한 달 동안 한국의 세계유산 홍보 영상물을 상영하고 있다. 한국문화재재단에서 제작한 홍보 영상은 석굴암 ·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등 11개의 세계문화유산과 1개의 세계자연유산을 담고 있으며 약 1분 길이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글=신성민 기자 · 사진 제공=문화재청



“불교계, 핵발전소 반대 운동 펼쳐야”

Interview

이원영 탈핵에너지교수모임 공동집행위원장

“핵발전소는 후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시설입니다. 지금 우리가 편하게 살기 위해 후손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됩니다. 불교계가 나서 핵발전소 증설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8월 3일, 군산 동국사에서 만난 이원영 탈핵에너지교수모임 공동집행위원장(수원대 교수)의 어조는 강경했다. 무더운 날씨로 인해 전신이 땀에 흠뻑 젖은 그였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핵발전소 이제 그만!’이라는 문구가 적힌 천은 옷과 달라붙어 떨어질 줄을 몰랐다.

그는 현재 핵발전소 증설반대와 안전한 핵폐기물 처리를 주장하는 교수 · 사회활동가들과 ‘탈핵생명국토순례’를 펼치고 있다. 국민들에게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다. 7월 14일 진도 팽목항서 세월호 희생자 위령제를 올린 뒤 출발한 20일간의 전남북 서해안 순례는 이날 동국사서 회향했다. 폭염 속에서도 약 390km를 걸으며 진도 쌍계사 · 영광 불갑사 · 고창 선운사 · 장성 백양사 · 김제 금산사 등 수많은 사찰을 거쳤다.

“서해안은 핵발전소가 6기나 있습니다. 특히 팽목항은 세월호의 아픔이 남아있는 곳이기에 그 아픔과 핵발전소의 위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국토순례를 계획했습니다.”

그는 이미 지난해 3차례에 걸쳐 600km에 이르는 거리를 걸으며 핵발전소가 밀집돼 있는 영남지역 사찰을 순례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4월에도 남해안 사찰을 중심으로 200km를 순례했다. 조계사 신도인 이 교수는 핵발전소가 지닌 문제점과 대안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알리려 사찰순례를 한 것이다.

진도부터 군산까지 390㎞ 걸으며

핵발전소 문제 알리는 데 주력

“탈핵교실 열어 바른교육 펼칠 터”

“우리나라 25개 핵발전소가 공급하는 전기량이 전체 30%에 불과합니다. 요즘 전력 예비율이 20%정도인 걸 감안할 때 핵발전소 증설은 불필요합니다.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핵발전소서 전기를 생산하지 않아도 각 시설마다 자체 생산해왔기 때문에 경제에 큰 타격이 없었습니다.”

이 같이 주장한 이 교수는 우리나라 특성상 핵발전소는 천재지변보다 안보상 더욱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들어 북한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일반 미사일이나 장거리포로도 핵발전소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을 강구하고, 에너지 전환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는 핵발전소 대안으로 태양광 발전을 추천했다. 태양광은 이산화탄소를 유발하지 않아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태양광 패널 가격 하락세도 핵발전소를 대체하기 좋은 요인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세계적으로 태양광 패널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미국은 최근 5년간 태양광발전소 공급이 16배 늘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8배 증가했습니다. 더 이상 핵발전소를 증설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이 교수는 정부의 고준위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폐기물 처리장은 임시 저장고 역할에 불과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선진국의 경우 핵발전소 안전에 대한 감시를 국회 · 지방정부 등이 관장합니다. 심지어 스웨덴은 사법부도 감시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행정부 원자력 안전위원회 표결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국회에 원자력 감시기구를 설치해 교차감시에 나서야 합니다.”



이원영 위원장은 20일간 390㎞를 걸으며 핵발전소 증설반대 운동을 펼쳤다.

한동안 핵발전소에 대한 위험성을 설파한 그는 앞으로 동네 탈핵교실을 열어 많은 사람들이 핵발전소 문제를 인식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에너지 사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한국불교 이끄는 비구니 돼 달라”

청도 운문사, 제7회 법륜비구니장학금 수여식

청도 운문사(주지 진광)는 7월 28일 제7회 법륜비구니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장학금 수혜자는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과정 여서 스님, 동 대학원 불교학과 박사과정 윤서 스님, 동 대학원 불교학과 박사과정 원교 스님, 동 대학원 선학과 석사과정 의진 스님, 스리랑카 페라데니야대학 불교학과 박사과정 우싱 스님, 미얀마 ITBMU 대학 빨리어과 석사과정 법과 스님 총 6명으로, 각 5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법륜비구니장학회 이사장 명성 스님은 수혜자들에게 “앞으로도 수학과 수행을 겸비해 한국불교에 기여할 수 있는 유통교해(流通教海)의 원동력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이사장 명성 스님(운문사 회주)과 상임이사 진성 스님(내원사 주지), 감사 운성 스님(운문사 학감) 외 30여 스님들과 운문사승가대학장 일진 스님, 운문사 주지 진광 스님 등이 참석했다.

한편 법륜비구니장학회는 비구니 스님 및 불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불교발전과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설립됐다. 2009년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이 장학금 마련을 위해 서예작품전시회를 개최, 수입금 5억 원을 기부하며 시작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제주불자 마음 나눠 행복한 세상 발원”

제주불교신문 1000호 기념 가파도 대중공양 회향

제주불교신문은 7월 22일 가파도 마을회관서 지령 1000호를 기념해 마련한 ‘섬 속의 섬 가파도 대중공양’을 실시했다. 이 행사는 이웃종교의 공격적인 선교로 옅어진 불교정서를 되살리고자 가파도내 유일한 사찰인 대원사와 함께 진행됐다.

22일 오전 가파도에 도착한 40여 제주불자로 이뤄진 자원봉사단은 대원사 참배 후 정정숙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장이 이끄는 이 · 미용 봉사팀과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를 펼쳤다. 이후에는 수상 스님(반야사 주지)의 축원을 시작으로 ‘날 좀 보소’ ‘이어도 타령’ ‘뱃노래’ 등 고명선 국악인이 펼친 민요공연은 어르신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했다.

제주불교신문 대표이사 허운 스님(관음사 주지)은 인사말서 “오늘이 가장 즐거운 날이 되길 바라며 공덕 짓는 기회를 주신 가파도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대원사 주지 혜융 스님은 “1000호 발간 기념법회를 가파도에서 봉행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법회인연으로 모든 이들에게 자비광명 가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파리 주민 170명 가운데 60%가 불교라고 밝히며 인사말을 시작한 진명환 이장은 “이곳은 바다와 상대하는 위험한 직업을 갖고 있어 문화생활이 늘 아쉬운 곳”이라며 “쉴 때마다 갈망하는 행사가 바로 오늘 같은 마음나눔 행사”라고 설명했다.

이날 봉사단은 어르신들을 위해 정성스레 준비한 공양을 대접하고, 각종 생필품을 전달하며 훈훈한 시간을 나눴다.

이병철 제주불교신문 기자

공불련, 14차 해외성지순례 성료

7월 23~30일 중국 관음성지 일대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김상규)는 7월 23~30일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불자로서 신행을 다지기 위해 중국 관음성지(보타낙가산 · 설두산 · 무이산 등) 일대서 제14차 해외성지순례를 실시했다.

순례에는 김동연 고문을 비롯한 회원 30여명(감사원 등 5개 기관)이 동참했다.

윤호섭 기자

바른법연구원, 5회 금강경 세미나

7월 28~31일, 원주 박경리 토지문화관서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대표 김원수)은 7월 28~31일 원주 박경리 토지문화관서 ‘제5회 금강경 연수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참가자 50여 명은 3박4일간 〈금강경〉을 대주제로 분임토의 · 조별발표 등을 실시했다.

윤호섭 기자

남해 미륵암, 삼성각 낙성법회

7월 24일, 18나한존자 점안법회도



남해 미륵암(주지 청운)은 7월 24일 삼성각 낙성식과 독성, 18나한존자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그동안 미륵암 신도회의 숙원사업이었던 삼성각 불사 원만회향과 향후 개원할 복지관에 대한 설명회를 겸했다.

법회에는 증명법사 성각 스님과 정오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노덕현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6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6년 8월 22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 l: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워터파크’ 변신한 사찰 …천진불 물놀이 삼매경

〔현장〕 서울 화계사 여름불교학교



화계사 여름불교학교에 참가한 어린이가 법당 앞마당에 설치된 에어바운스 슬라이드를 타며 무더위도 잊은 채 즐거워하고 있다.

“박수 3번 시작!”

짝짝짝…. “부처님!”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전국적으로 피서가 한창인 휴가철,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화계사 법당에 쟁반 위를 구르는 옥구슬 같은 아이들의 청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100여 명의 천진불이 내뱉는 맑고 고운 함성은 활짝 열린 법당문을 넘어 경내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바로 7월 30일부터 1박2일간 열린 화계사 여름불교학교 ‘나 부처님 되지 말입니다!’ 현장이다.

첫날 오전, 아이들은 입재식에 앞서 사찰 기본 예절을 배웠다. 합장인사부터 절하는 법 등 도량 내에서 지켜야할 예절을 위해 자세를 가다듬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린이법회에 나오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었으나 사찰이 낯선 몇몇 아이들은 어색한지 자꾸만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러다 이내 옆 친구들을 따라 고사리 같은 손을 모아 합장하고, 절을 하며 하나씩 예절을 배워나갔다. 또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박수를 1번 친 뒤에는 ‘옴’을, 3번 친 뒤에는 ‘부처님’을 외치기로 했다.

입재식에서 아이들은 1박2일간 여름불교학교에 임하는 각오를 다지는 발원문을 낭독했다. 그러자 지도법사 청심 스님은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즐겁고 신나게 놀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했다”며 “선생님들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라”고 당부했다.

이어 각 조별 담임 · 부담임 소개가 이뤄졌다. 지도교사는 대학생과 고등학생 등 청년불자들이 맡았다. 각각 선생님 소개가 진행되자 아이들은 담당 선생님을 향해 환호했다.

“와아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모회가 마련한 점심공양 이후에는 물놀이에 앞서 땀을 내는 미니 체육대회가 열렸다. 가만히 있어도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힐 날씨였지만 동심(童心)은 좀체 쉴 줄을 몰랐다. 아이들은 포대자루에 두 다리를 집어넣고 깡충깡충 뛰다 넘어져도 마냥 즐거운 듯 해맑게 웃었다. 대형 공굴리기를 하다 지도교사가 미끄러졌을 때는 합이라도 맞춘 것처럼 다 함께 자지러졌다.

흠뻑 땀을 흘린 아이들의 시선이 법당 앞마당에 쏠렸다. 물놀이를 위한 에어바운스 풀장에 시원한 물이 한가득 쏟아지고 있었다.

“선생님! 이제 물놀이해도 돼요?”

아이들은 마치 어미새에게 먹이를 달라는 아기새들처럼 간절한 눈빛으로 지도교사를 바라봤다. 그리곤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쏜살같이 풀장으로

초등생 100명 1박 2일 캠프
물놀이 · 체육대회 등 체험 다채
여러 신행단체서 후원 줄이어
어린이 · 청소년 포교 큰 효과

달려갔다. 슬라이드와 풀장, 물총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여름 무더위를 잊은 채 물놀이 삼매경에 빠져 들었다. 한참을 물속에서 시간을 보내던 아이들이 갑자기 옹기종기 모여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 모습이 궁금했는지 지도교사가 다가가자 아이들은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물을 퍼부었다. 화들짝 놀란 지도교사 역시 반격을 하며 물싸움 대결구도가 펼쳐졌다. 하지만 승리는 수적으로 많은 아이들에게 돌아갔다.

백서이(초2) 양은 “절에는 자주 오는데 여름캠프는 처음이다. 수영을 배워서 물놀이를 정말 좋아한다”며 “다음 여름에도 물놀이를 즐기러 오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초록(초4) 군은 “지난해에도 화계사에서 여름캠프를 즐겼다. 물놀이가 제일 재미있다”면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자로 참가한 김진희(23) 씨는 “초등학생 때 화계사 어린이회를 다녔다. 고등학생 때부터 지도교사로 참여했는데 아이들을 보면 어릴 적 생각이 많이 난다”면서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앞으로 꾸준히 절에 나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이들은 물놀이 후 저녁에 예불과 108염주 만들기, 파자마파티를 즐기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이튿날에는 어린이포교 활동을 하는 혜장 스님의 ‘화엄놀이 DIY’와 물놀이, 산행 등이 진행됐다.

한편 화계사 여름불교학교는 아이들을 위한 시간이지만 이를 위해 사찰 소속 신행단체들이 마음 모아 준비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모회를 필두로 다양한 신행단체서 후원금을 내 아이들이 더욱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화계사 주지 수암 스님은 “신행단체 도움 덕분에 여름캠프를 훨씬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다. 전문 외부강사를 초청하고, 참여도가 높은 아이들에게 상품을 주기도 한다”며 “캠프가 끝나면 지도교사들끼리 별도로 MT를 가서 친목을 다져 청년포교에도 도움을 주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여름불교학교 인기비결은 지속성이다. 수십 년째 캠프를 이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참가했던 아이들이 자라서 봉사자로, 지도교사로 나오기 때문에 불심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한다”며 “특히 캠프를 통해 사찰에 처음 온 아이들은 이 인연으로 어린이법회에 나오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아이들이 지도교사에게 물을 뿌리며 장난치는 모습.



외부강사 지도에 따라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는 아이들.



입재식에 참석한 아이들과 지도교사 단체사진.

동국대 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제3기 모집

대한민국 易學, 사주명리학 고수 총출동!!

대한민국 역학계 명문파 장문, 최고 실력자, 최고 권위의 교수님들과 함께 하는 아주 특별한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사주명리학, 풍수지리, 주역, 관상 등 기존의 역학에서 미신적 요소와 신비적 요소를 배제하고 합리적 이론체계로 정립되고, 검증된 역학, 동양미래예측학을 통해 이 시대 최고의 동양미래예측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수님들과 과정생들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졸업 후에도 원우회와 동문회 활동 등 멘토와 멘티로서, 혹은 동반자로서 소통과 융합을 통해 이 시대 역학계, 동양미래예측학계를 이끌어 갈수 있는 인재 양성 과정!! 자신의 학문에 대한 현위치 파악 및 역학계 위상정립!!



미래예측학박사 1호 소재학교수(주임교수), 백운산회장, 꼴관상 신기원교수, 학선 유래웅교수, 백민교수, 정창근교수, 박청화교수, 현공풍수 최명우교수, 노승우교수, 조규문교수, 이상광교수, 박성희교수, 문봉 박재범교수, 정경연교수, 신석우박사, 내정법 김인순박사, 명리학과 한의학의 만남 김민재박사, 박용남교수, 샤머니즘박물관장 양종승박사 외
〈특강교수〉 미래특강-세계미래포럼 이영탁 이사장(전 국무조정실장, 장관), 김창곤 8대 정통부차관, 가수 김태곤박사, 최면 NLP상담기법 설기문교수, 멘탈리스트 이진규소장 외

대 상 명리학 초중급자, 현업 종사자, 역학, 명리, 풍수, 관상 교수 및 강사(학력무관)
일 정 9월 12일 ~ 12월 26일, 매주 월(月) 18:30 ~ 21:50 / 수료 후 심화과정, 선택
자격증 문광부 등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가(소정의 절차)
- 동양미래진로적성 상담사 / 명리진로적성 상담사 / 현대명리교육 상담사

입학식 9월 12일(월) 18:50 ~ 미래학특강 외 **등록금** 240만원
지원방법 FCA홈페이지(www.gfca.kr) 입학지원서 다운받은 후 메일(gfca@daum.net) 발송
특 전 동국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 동국대학교 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동문자격 / 동문활동 및 수료 후 과정, 학술활동 등 교수진과 동문간 지속적 관계유지

※ 장소 : 동국대학교(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 6번 출구) ※ 홈페이지 : www.gfca.kr ※ 문의 : 02-3443-4984 ※ 등록금계좌 : 신한은행 140-010-663788 예금주 : 동국대

“배우고 믿으니 불교 신행이 달라졌어요”

서울 남현동 원각사
불교대학 첫 졸업생 배출

지난해 12월 불교대학 개원
7개월 과정 거쳐 16명 졸업
신도 교육화, 작지만 큰 걸음
“올바른 신행위한 교육 매진”



8월 3일 열린 원각불교학당 1회 졸업식에서 졸업생이 주지 연호 스님에게 졸업장을 받고 있다.



졸업생들이 보살오계 수계법회서 연비 받는 모습.

“위 불자는 신해행증(信解行證)함으로써 자리이타의 대승보살도 정신을 구현하고자는 원각불교학당의 경전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졸업생에게 졸업장이 전해지자 대웅전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강의를 전담했던 주지 스님도 졸업하는 신도들도 얼굴에는 함박웃음이 피어났다.

서울 남현동 원각사(주지 연호)는 8월 3일 제1회 원각불교학당 졸업식 및 졸업생 보살오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원각사는 지난해 12월 불교대학인 ‘원각불교학당’을 개원했다. 신도들을 대상으로 입문 · 경전 과정 학생을 모집했고, 16명이 모였다. 강의는 주지 스님이 직접 진행했다. 겨울부터 시작한 강의는 이듬해 여름에 마무리됐다. 7개월의 여정에 낙오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교육화된 신도와 이들을 조직화 하는 것이 도심 포교의 중요한 성공요인임을 감안하면, 원각사의 불교학당 첫 졸업식은 작지만 큰 걸음이다.

주지 연호 스님은 “불교를 바르게 아는 것이 올바른 신행의 시작”이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전하고 불교인재 양성을 위해 원각불교학당을 개원했다. 8개월여의 과정을 묵묵히 따라주고 배워준 신도들이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졸업식은 대웅전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학사모와 졸업 가운을 입은 16명의 원각불교학당 졸업생들과 친지와 친구들이 함께 자리했다. 연호 스님은 졸업생 한명 한명 모두에게 졸업장과 꽃다발을 직접 전달하며 축하했다.

연호 스님은 축사를 통해 “원각불교학당을 개원해 7개월동안 쉼없이 달려 졸업을 하게 됐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이다”면서 “이제 졸업생들은 불자로서 바르게 믿고 실천해서 참다운 깨달음이 무엇인지 참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전 과정 마지막에 〈화엄경〉을 배웠다. 선재동자는 구도의 마지막에 보현보살을 친견하고 10대 행원을 듣는다. 졸업생들도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을 실천해 불교 발전과 포교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7개월의 과정 끝에 졸업한 신도들은 막연하게 사찰에 와서 기도했던 신행이 아닌 올바르게 불교를 알고 이를 통해 불교 신행을 할 수 있다는 데 보람과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미숙 씨(원각불교학당 1기 총무)는 “사찰에 다닌 것은 2014년 대학수능기도를 하면서부터다. 그동안 신행이 절하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다”면서 “불교학당에서 불교를 배우면서 바른 신행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함께 한 도반들이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월수 씨(원각불교학당 1기 회장)는 “그간 내 신행은 ‘거친 발바닥’과 같았다. 사찰에는 오래 다녔어도 그냥 다닌 것”이라며 “불교를 배우면서 어제보다 오늘은 더 좋아짐을 체감한다. 다른 신도들에게도 불교학당에서 배우기를 권할 것”이라고 밝혔다.

1기 졸업생 중에는 원각사 신도회장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세라 원각사 신도회장은 “7개월동안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즐겁게 불교를 배웠다”면서 “바른불교를 배우고 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고 신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원각사는 졸업식 이후 1기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보살오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졸업생들은 계율을 지키는 바른 불제자로 살아갈 것을 서원했다. **신성민 기자**

예비역불자회, ‘호국불교포럼’ 전개한다

군불교 활성화 신행단체 간담회서 밝혀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산하 신행단체인 국군 예비역불자연합회가 새로운 신행운동인 ‘호국불교포럼’ 전개에 나선다.

예비역불자연합회(회장 박정이)는 7월 28일 용산 국방부 육군회관 태극홀서 ‘군불교 활성화를 위한 신행단체 간담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과 1대 교구장 일면 스님, 2대 교구장 자광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등 종단스님들과 김현집 국군불교총신도회장, 김태영 前국방부장관, 임충빈 前육군참모총장 등 원로 장성불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서 예비역불자회는 군불교의 호국전통 계승 및 선양활동과 현역불자 교류 확대를 위해 ‘호국불교포럼’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호국불교포럼은 조찬법회 형식으로 스님을 비롯한 저명인사를 초청해 강연을 듣는 자리다.

예비역불자회는 오는 9월과 11월 호국불교포럼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매월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기법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불자들도 신행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외에 지인들을 통한 숨은 불자를 발굴하는 ‘좋은 인연 맺기’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군불교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예비역불자연합회는 7월 28일 용산 국방부 육군회관서 신행단체 간담회를 열고, 호국불교포럼 등 신행운동에 나설 것을 밝혔다.

박정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성뿐 아니라 예비역불자들이 연합회에 적극 참여해 호국불교 전통을 계승하고,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부처님 제자로서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예비역불자연합회가 군불교 발전을 위해 앞장서 달라”면서 “조국 평화통일 염원으로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조성되고 있는 무량수전 불사에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예비역불자연합회는 기존 예비역장성불자연합회가 2013년 4월 호국불교 전통을 바탕으로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불교 저변확대를 위해 변경한 것이다. 지난 6월 26일 제2기 회장으로 박정이 예비역 육군대장이 취임했다.

윤호섭 기자

종로노인福, 시니어 100세 힐링센터 개소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8월 10일 오후 2시 관내서 ‘시니어 100세 힐링센터’ 개소식을 거행한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몸과 마음 수양을 위한 ‘다도(茶道)’ △심폐기능 및 순환기능력 개선을 위한 ‘실버 필라테스’ △오감힐링 프로그램 등을 주 4회 운영한다. 고혈압, 당뇨, 노년기 우울증 등 노인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의 신체 · 정신적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후원으로 운영되며, 프로그램은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40명 어르신들이 오는 8월 16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참여할 예정이다. **박아름 기자**

불교 통해 영어 배울 수 있는 기회

국제선센터, 원어민 영어 어린이 템플스테이

여름방학을 맞아 아이들이 사찰서 원어민과 영어를 배우며 불교문화에 한층 가까워지는 행사가 열렸다.

조계종 국제선센터(주지 탄웅)는 7월 29~31일 경내서 ‘원어민과 함께하는 여름방학 어린이 영어 템플스테이’를 실시했다. 이 행사는 글로벌시대에 영어로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불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아이들을 위해 기획됐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템플스테이는 국제차장 천조 스님과 더불어 매주 열리는 ‘토요일 담마클래스’에 참여하는 5명의 원어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했다. 예불 · 108배 · 염주만들기 · 명상 등 다양한 불교전통문화를 이해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이외에도 전통인쇄술 체험과 민화부채 색칠, 국제매너교육, 영어 일기 · 편지 쓰기, 자연체험 농장 방문 등 학업에서 벗어나 그간 쌓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시간도 이어졌다.

왕휘웅(13) 군은 “영어 템플스테이라서 부담이 있었지만 스님과 선생님께서 잘해주셔서 재밌었다”며 “손님이 아닌 수행자처럼 생활하니 스스로 자랑스럽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다시 오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어린이 영어 템플스테이를 기획한 주지 탄웅 스님은 “요즘 아이들은 학업에 열중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템플스테이를 통해 조금이나마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영어로 소통하며 글로벌인재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많은 아이들이 불교와 친숙해질 수 있도록 특색있는 템플스테이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갯벌체험을 한 아이들과 원어민 자원봉사자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힐리언스 선마을 8월 정규 프로그램 3選

숲 트래킹, 가족캠프 등 ‘다채’

홍천 힐리언스 선마을(촌장 이시형)은 숲 트래킹, 명상 등 다채로운 8월 정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8월 11~15일은 요요 없이 건강한 다이어트로 몸매 관리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체인징 바디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힐리언스 선마을 운동 처방사 및 임상 영양사가 국내외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분석해 만든 프로세스를 통해 효과적인 식이 및 운동방법을 제공한다.

힐리언스 선마을 측은 “4박 5일 동안 몸을 움직이고 위를 줄이는 습관 만들기 프로젝트에 돌입한다”며 “프롭 · 폼롤러 · 트윈롤러 등 도구를 이용해 칼로리 소모를 높이는 운동을 비롯해 유연성 강화 및 군살 제거에 탁월한 슬리밍 요가 등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첫날 체성분과 체력을 측정한 후, 마지막 날 체성분을 측정함으로써 몸의 변화를 확인한다. 1인 기준 81만6000원.

8월 20~21일은 가족이 함께하는 ‘숲속 행복한 가족캠프’를 개최한다. 조혁균 한국웃음치료센터 소장, 김윤희 한국심성교육개발원 심리상담 교수, 최병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전문가가 나서 △내안에 웃음을 깨워라 웃음 테라피 △숲에서 하는 행복 춤 테라피 △자연법칙과 함께 하는 와인 테라피 △자연 교감 포레스트 요가 △숲 치유 포레스트 힐링 등 풍성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힐리언스 선마을 박창은 선임강사가 △숲길 걷기 명상 △숲향기 마사지 △피톤치드 산림욕 요가를 통해 면역력 및 자연치유력 향상을 도울 계획이다. 1인 기준 25만원.

아울러 상시 프로그램으로 ‘생활습관개선 프로젝트-현미푸드테라피’를 진행한다. 6박 7일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하루 3식 현미밥과 현미차, 간식으로 현미쿠키와 통곡물빵 등을 제공한다. 또한 식습관 외에도 명상 · 운동 · 요가 수업 등 함께 병행한다.

입촌시 측정한 결과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며, 힐리언스 선마을 측은 “고혈압, 당뇨, 비만, 혈관질환 등 만성대사증후군이 염려되는 자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1인 기준 138만원. (02)6902-0194 **박아름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4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6년 8월 31일까지
◆ 개강일시 : 2016년 9월 5일 (월요일) 개강
매주 (수,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텐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大出力 믹싱앰프

● 법당앰프 설치비용
A형 : 전체 설치비 1,28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CD기, 마이크 2개
B형 : 전체 설치비 1,60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마이크 1개
C형 : 전체 설치비 1,85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구즈넥, 마이크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45,000원
(발송비 포함)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백수라고 슬퍼 말라 이는 곧 기회다”

불교진흥원 화요열린강좌… ‘조선 백수에게 길 묻다’

길진숙 고전문학 연구자

그 어느 때보다 취업난이 극심한 요즘, ‘백수’라는 말은 어느덧 일상용어가 돼 버렸다. 오죽하면 ‘취업준비생’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직업을 갖는 일이 결코 간단치 않다. 하지만 사람들은 백수에 대해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편견을 갖곤 한다. 길진숙 고전문학 연구자는 7월 19일 대한불교진흥원 화요열린강좌서 ‘18세기 조선 최고의 지성, 백수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그는 “백수 시절 가장 빛나는 지성을 발휘한 이들을 볼 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정리=이승희 수습기자



길진숙 연구자는… 이화여자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서 고전문학을 전공했다. 현재 남산강학원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삶의 현장이 되는 공부, 실전이 되는 공부를 통해 새로운 인생역전을 꿈꾸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조선전기 시가예술론의 형성과 전개〉〈고전 톡톡〉(공저) 등이 있다.

원조 백수는 부처님

연암 박지원과 다산 정약용은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지식인입니다. 이 둘은 각각 당시 정치 세력이었던 노론과 남인 소속 여러 문인들과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암의 선배였던 농암 김창협과 친구 담헌 홍대용, 다산의 스승 성호 이익과 이익의 조카 혜환 이용휴가 있습니다. 이들은 18세기 학문의 르네상스를 이끈 분들입니다. 이들의 업적을 곰곰이 되짚어보다가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백수’ 시절 가장 빛나는 지성을 발휘했던 겁니다. 18세기 독창적 학문의 길을 개척할 수 있게 한 이들의 백수 시절을 연구해야겠단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분들을 백수라고 부른다면 누군가에겐 불경스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백수’가 주는 어감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백수의 원류를 찾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백수의 원조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은 왕위를 박차고 나온 분입니다.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겠다는 생각으로 가정도, 국가도 기꺼이 버렸습니다.

가정과 국가에 속해 있으면 집착을 놓을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탁발과 무소유를 방편으로 길에서 유랑하며 깨달음을 설파했습니다. 그러면서 승가 공동체가 형성됐습니다. 소유로 인해 집착의 업을 지을 수밖에 없음을 이해한 승가는 무소유를 실천한 혁명적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가장 혁명적인 백수는 부처님입니다. 관직의 길을 벗어나 기꺼이 자유로움을 선택한 부처님과 승가 공동체가 먼 훗날 우리 사회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산림 속 군자들의 삶

앞서 언급한 문인들이 관직의 길을 벗어난 이유의 중심에는 ‘당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농암 김창협은 대단한 정치 세력가의 자제였습니다. 40여 년간 중앙 정계에 몸담은 서인의 영수 영의정 김수항의 아들로, 서인의 거두 송시열을 스승으로 모신 서인 학맥의 정통파입니다. 따라서 농암도 관직에 오르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농암은 아버지의 유언을 이유로 숙종이 13년 동안 38여 차례 가까이 내린 벼슬을 마다했습니다. 왕에게 제출한 사직서에 농암은 아버지 김수항이 자신에게 ‘절대로 청요직에 나서지 마라. 반드시 위태로우니 가문을 보존하려면 호신(護身)하라’던 유언을 지켜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김수항은 서인이 정권을 잡은 1659년 기해예송 논쟁부터 남인이 재집권해 결국 자신이 사사(賜死)된 1689년 기사환국 때까지 서인과 남인이 벌인 여러 차례 세력 싸움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과정을 고스란히 지켜봤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농암은 시골에서 은거하며 제자 양성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현실정치가 너무 혼탁했기에 간신들과 타협하지 않으려 정치에 나서지 않은 겁니다. 산림군자로 남아 순수한 학문의 뜻을 지키려는 의지가 충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인 집안도 혼탁한 현실 정치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1680년 경신환국으로 남인 인사들이 대거 유배를 갔을 때 성호 이익의 아버지 이하진도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익의 둘째 형이잠은 큰 충격을 받고 유랑객으로 떠돌다가 1706년 숙종에게 올린 상소로 인해 국문을 받다가 죽게 됩니다. 이 때 이익은 과거 준비를 중단하고 첨성리에 칩거해 한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현실 개혁에 몰두한 경세학자가 된 배경입니다.

혜환 이용휴도 마찬가지로 작은 아버지 이잠이 상소문으로 죽음을 맞게 되자 일찌감치 정계진출의 뜻을 접고 백수 생활을 했습니다. 혜환의 친구들도 지방 외직을 전전했는데 혜환이 써준 전별의 편지에 그의 정치관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 **당쟁 피해 시골서 칩거한 선비들 공부에 몰입해 독창적 성과 이뤄 백수는 자유로운 사고의 근원, 부처님 깨달음도 백수시절 완성**

목민관(고을의 원이나 수령 등의 외직 문관)으로 떠나는 친구에게 그는 ‘목민관은 왕의 대리자이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격려합니다. 목민관의 의무는 백성들이 가장 필요한 것을 알아주는 것이며, 백성들은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니 괜히 어지럽게 명령을 많이 하지 말라고도 말합니다. 마치 노자나 장자의 말처럼 억지로 다스리려 하지 말고, 현장에서 그 지역 백성 처지에 맞게 정치를 펼치라고 당부했습니다. 당시 지방관들은 모두 한양으로 다시 올라올 생각에 백성들에게 세금을 억지로 많이 걷곤 했는데 그러지 말고 애민(愛民)을 실천하길 강조했던 겁니다. 남인들이 오직 지방외직만 맡을 수밖에 없었던 불합리한 정치 상황 속에서 불평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함을 알려준 사람이 혜환입니다.

담헌 홍대용은 당시의 사고방식에선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담헌은 매우 조숙해 12살에 과거를 위한 공부가 아닌 공부 자체를 위한 학문에 뜻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과거시험을 보지 않은 채 자발적 백수 생활을 지키며 천체과학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담헌은 직접 천문관측소를 짓고, 홍천의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에 가서 더 넓은 세상을 보고픈 마음에 열심히 중국어를 연마했습니다. 당시 소중화(小中華)란 자부심이 있었던 조선에선 청나라를 오랑캐 취급해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나 홍대용은 우주를 관측했던 사람으로 세상에 절대 중심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중화와 오랑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허물고 상대적으로 세상을 파악했습니다. 가장 문명적인 나라가 중심국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나라의 습속을 야만으로 함부로 폄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청나라를 유람하며 절강성 선비들과 밤새 필담을 나누고 〈항전척독〉을 집필했습니다. 그 책엔 청나라 선비들에 대한 선입견을 깨는 내용이 많습니다. 주자학 외에도 당시 조선에서 금지했던 불교, 양명학 등에 종횡무진하는 지식을 가진 청나라 선비들을 알려 조선에 북학의 길을 열었습니다.

성호 이익은 선비가 누구인지 존재론적으로 파악하며 학문에 접근했습니다. 선비와 농사꾼의 차이를 들며, 농사꾼은 노동해서 먹고 사는 건전한 존재지만 ‘나는 노는 밥버러지’라며 냉정히 자신의 위치를 분석했습니다.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자신은 오직 적게 먹고, 나머지 곡식을 아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쓸모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평소에 콩죽을 먹고 일가친척이 모여서 잔치를 해도 콩죽, 된장찌개, 콩나물무침만 내놨습니다. 본인은 글을 알기에 농민에 도움이 되기 위해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글로 옮기는 데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벼의 계보를 자세히 쓴 책을 남겼는데 현재는 전해지지 않아 개인적으로 매우 아쉽습니다. 이익은 정치에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애민 정책에 대한 욕구는 컸습니다. 유가의 도는 백성을 잘 살게 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며 그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분야는 다 연구했습니다. 음서제를 없애고 추천제를 주장하고, 토지소유 불균형 해소를 위해 균전제를 제안한 저서 〈성호사설〉은 그러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백수는 자유로운 개척자

우리가 직장에 다니며 일을 할 땐 존재를 탐구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나를 밝힐 때 ‘어디서 무슨 일을 맡고 있는 누구입니다’라고 소개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명명할 만한 직책이 없을 땐 고민이 됩니다. 위의 문인들은 고향으로 물러가 백수 생활을 하면서 책을 읽고, 정체성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자신이 뭐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표현해 세상과 소통할지 생각했던 겁니다.

농암은 제자들을 기르면서 그들이 너무 과거 시험에만 매달려 공부하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펙에 매달려 나를 알아볼 시간 없이, 내가 왜 이 공부를 하고 있는가 생각할 틈도 없이 공부합니다. 농암은 낙방해도 비관할 일이 아니며, 과거를 위한 규격화된 공부에 매몰돼 진짜 본인의 의견을 제대로 내놓을 수 없는 현실을 통탄했습니다. 주자를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의도를 파악하고, 문장에 본인의 목소리를 넣어 생기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의 글을 모방하고 뜻을 표방하는 것은 죽은 글쓰기이며 내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은 독창성을 발휘하는 것이란 주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백수는 노는 사람이란 뜻이지만 새로운 직종을 개발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 사람이 바로 백수인거죠. 기득권에 속했지만 기꺼이 특권의식을 버리고 지성 탐사에 몰두한 이들의 길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회 틀에 맞춘 삶만 추구하면 언제나 불편한 노동자 처지가 돼 한 순간도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사회적 규범이 정한 길로부터 여러분들의 길을 개척하는 지성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실 조선 말기 백수 생활을 한 선비는 굉장히 많았지만, 자기 길을 간 사람은 이 넷 밖에 없습니다. 충만한 백수 시절을 보냈죠. 가끔 우리는 시간을 죽이며 산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처지를 비관해 남을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삶을 살진 않나요? 우리 안의 불필요한 욕망을 덜어내면 삶에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문인들처럼, 부처님처럼 창발적으로 내 길을 개척할 수 있다면 100세 인생에서 은퇴 후 50년이 짧게 느껴질 겁니다.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학 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 신 대 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16년 8월 10일 부터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16년 9월 6일 화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 운영 행정 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 · 작법무 -

불 교 예 술 대 학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천도재 의식 및 권공의식
◇원서교부 : 2016년 8월 10일 부터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6년 9월 1일 목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



2016년 불교학과 49기 신입생모집 [2년과정]

* 불교학과 [9월 3일(토) 오후 5시 개강]

▶ 토요반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목요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통신반 : CD배송

학 기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과 목	1. 근본불교 2. 반야심경 3. 유식불교	4. 대승불교와 천수경 5. 아미타경과 정토 6. 화엄경	7. 부처님생애와 인도불교 8. 중국 · 한국불교 9. 법화경	10. 불교의 체계적 이해 11. 불교문화 12. 선불교
교수진	법산스님(은대학장) 최봉수교수 김형준교수 묘주스님 주명철교수 정성준교수 송석스님 정엄스님 황순일교수 김경집교수 박충교수 차차석교수 이미령교수 윤열수교수 법인스님 할안스님 김호귀교수 정병조교수			

■모집인원(불교학과) | 120명 (토요반, 목요반, 통신반)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입학금 20만원
■원서교부 및 접수 | 2016년 8월 1일부터 ■문 의 | 02) 732-1206~8
• 상기 과정을 습입한 후 한국불교교육단체 연합회포교사 고시를 거쳐 포교사 자격을 획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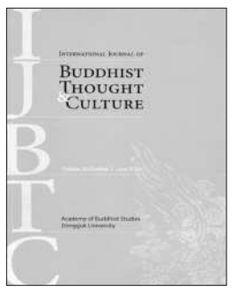
* 선·명상학과 (2년과정) 개강 [9월 8일(목)] * 불교미술학과 (3년과정) 개강 [9월 8일(목)]
* 불교다도학과 (2년과정) 개강 [9월 6일(화)] * 불교대학원 (3년과정) 개강 [9월 6일(화)] 삼국유사, 마하왁가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반야회
동산불교대학·대학원
사무처 : (우) 03150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 동산불교회관
TEL 02) 732-1206~8, FAX 02) 732-1207 www.dongsanbud.net

동국대 이관 'IJBTC' 혁신판 발행

북경대, 보쿰대 등 저명학자 논문 10편 게재

'아시아 관점의 한국불교' 주제



동국대 불교학술원으로 발행처가 이관된 국내 유일의 영문불교학술지인 〈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 Culture(공동편집장 김종욱 · 리차드 맥브라이드, 이하 IJBTC)〉가 편집 체계를 혁신해 새롭게 발행됐다.

6월30일자로 발행된 IJBTC는 '아시아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불교(Korean Buddhism in Asian Perspectives)'를 주제로 한 기획논문 4편과 다양한 주제의 연구논문 4편, 그리고 서평 2편 등이 게재됐다.

특히 이번 혁신호에는 미국, 독일, 인도, 중국, 일본, 대만 등의 불교학 명문인 콜럼비아대, 보쿰대, 대만대, 북경대 소속 대표연구자들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끈다. 국내에서는 서울대와 동국대 소속 연구자들의 논문이 게재됐다.

이번 기획 논문에 참여한 판자크 모한 나란다 대학 교수는 제국주의 식민지 시대 판-아시안니즘과 민족주의 지향 속에서 인도와 한국불교의 유사성을 찾아보고 있으며, 리 시롱 북경대 교수는 한국 불교는 중국 불교와 많은 점을 공유하며 중국 불교 발전에 거꾸로 많은 기여했다는 점을 논증한다.

신성민 기자

불교와 한글의 상관관계는?

한국선학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등 공동 세미나

한국선학회(회장 신규탁)는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과 세종대왕기념사업회와 공동으로 8월 18~19일 국립한글박물관과 연세대 백양누리라운지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8월18일 오후 1시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진행되는 1일차 학술대회에서는 '불교와 한글, 한국어' (남기심, 연세대), '한글의 탄생과 불교사상의 언어' (노마 히데키, 일본 명치학원대), '말뭉치로서의 한글대장경과 그 활용' (서상규, 연세대), '불경언해 역주 현황과 의미' (홍현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화엄경과 한글 번역' (신규탁, 연세대) 등이 발표된다.

8월29일 오전 10시 연세대에서 진행되는 2일차 학술대회에서는 '훈민정음 표기법과 불전언해' (정우영, 동국대), '불교를 통한 훈민정음 보급의 의미' (김슬옹, 인하대), '운허의 법화경 한글번역' (차차석, 동방대학원대), '금강경 한글번역' (김치온, 진각대), '한글대장경 개역전산화사업의 성과와 과제' (이재수, 동국대), '조선어사전의 불교 어휘' (백해파, 중국 중앙민족대), '국어사전과 불교 언어' (김한샘, 연세대), '능엄경언해 비교 연구' (유근선, 연세대) 등이 발표된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한문아카데미 연수생 모집

불교학술원, 17일까지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한문불전 인재 양성과 불교학 연구자들의 한문해독능력 배양을 위한 한문아카데미 2학기 연수생을 모집한다.

9월 1일 개강하는 한문아카데미는 '논어' (한재훈), '원전으로 본 불교교리' (원과 스님), '한문법' (안재철), '대승기신론' (은정희), '화엄경 게송' (반산 스님)의 강좌가 진행된다. 수업시간은 오후 6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다.

4학기제로 운영되는 한문아카데미는 매 학기당 16주(3~6월, 9~12월) 과정으로 이뤄진다. 선발연수생은 전 과목을 들을 수 있으며, 대학(대학원) 재학생은 수강료 30% 면제, 조계종 소속 승려는 전액 면제다. 일반연수생은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

입학희망자는 8월17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nampyora@hanmail.net)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선발연수생), 수강신청서(일반연수생)는 홈페이지(abc.dongguk.edu/academy)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선발연수생은 8월 20일 서류심사와 면접 전형이 실시된다. 합격자는 8월26일 개별 통보한다. (02)6713-5154

한반도 전래된 불교는 어떻게 정착됐을까

김두진 명예교수, 〈삼국시대 불교신앙사 연구〉 발간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된 것은 삼국시대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세 국가가 불교를 수용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진다. 삼국시대 불교 수용과 신앙 발전을 총체적으로 조명한 학술연구서가 발간됐다.

김두진 국민대 명예교수는 최근 〈삼국시대 불교신앙사 연구〉를 펴냈다. 이 책은 불교가 고구려 · 백제 · 신라 삼국의 지배층, 즉 왕실과 귀족 사이에서 어떻게 전파 · 수용되었는지를 조명한다.

김 교수는 평생을 불교 사상과 신앙의 형태를 사회사상사로 정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연구서 〈삼국시대 불교신앙사 연구〉는 김 교수의 연구 결과를 하나로 묶어낸 집합체다.

실제, 삼국 사회에 처음 전래된 왕실 중심의 초전 불교는 홍포 과정에서 귀족의 반대에 부딪혔으나, 신앙 면에서 왕실과 귀족이 조화와 타협을 이룸으로써 공인불교가 성립됐다. 신라 중대에 이르러 불교는 철학적 논리 체계를 갖추고 이론 불교를 발전시키면서 대중화됐다. 다시 말해 사회를 이끄는 사상이었고, 이를 사상사 체계 안에서 이해하는 것은 당시 시대상을 읽을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단초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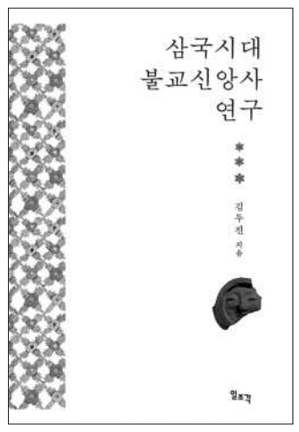
김 교수는 연구서를 통해 삼국의 불교 수용 과정과 신앙의 양상을 차례차례 살핀 후 법화영험신앙과 불성신앙 등 삼국의 공인불교신앙을 충실하게 정리하고 있다.

연구서는 결론을 포함해 모두 6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과 제2장은 삼국에 불교가 전해져 공인되는 과정을 살핀다. 저자는 불교 공인을 반대하는 양상이 삼국에서 어떤 차이를 지녔는지 살피면서 왕실에서 우선적으로 불교신앙을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제3장과 제4장은 공인불교신앙의 여러 모습을 제시하는데, 주로 법화영험신앙과 불성신앙 등을 삼국 사회와 연관하여 밝혔다. 제5장은 이론불교가 성립하기 위한 공인불교의 변화를 다루었다. 저자는 원광과 자장을 통해 불교가 대중화되기 위한 계율의 생활화를 살핀다.

연구서를 살피면 흥미로운 부분이 몇 가지가 있다. 삼국이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귀족들의 반발이 가장 심했던 곳은 신라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차돈의 순교에서도 나타나듯 토착 귀족 세력이 강했던 신라는 불교가 공인화에 진통이 있었다. 반면, 백제와 고구려에는 이렇다 할 저항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백제 불교의 공인의 경우 귀족들의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왕권이 상대적으로 강해 삼국 중 가장 미약하게 나타났을 것"이라며 "고구려 불교는 왕즉불(王卽佛, 왕이 곧 부처) 신앙을 강하게 갖고 있었지만, 토착 신앙의 제사장으로서 왕과 동등한 위치에 있었던 귀족 세력이 있어 반대가 어느 정도는 있었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불교 수용 · 신앙 양상 분석해

삼국의 공인불교 신앙 정리

도래 초기 왕실서 적극 수용

공인화, 귀족들 통해 이뤄져

미륵 · 석가불 · 법화영험 등 성행

또한, 김 교수는 불교 전래에서 왕실이 우선적으로 수용한 것은 중국 북조 불교 사상인 '왕즉불' 사상에 기인한다고 봤다.

이후 각자의 국가가 영토를 확대하는 정복국가의 형식을 가지면서 불교의 공인화가 이뤄지는 데 여기서도 불교 신앙 사상의 변화가 나타난다. 왕을 보살로 여기는 '왕즉보살'과 석가불 사상, 전륜성왕의 개념이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왕즉불 신앙을 강조한 초전불교에서 왕실은 전륜성왕의 관념과 석가불 사상을 포용하면서 점차적으로 귀족에게까지 불교 신앙을 홍포했다"면서 "전륜성왕과 미륵 내지 석가불은 불교 신앙 면에서 국왕과 귀족 세력이 조화와 타협을 이루게 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왕실 중심으로 전해진 초전불교는 공인 과정을 거쳐 귀족불교로 나아갔고, 한반도에 불교문화를 꽃피우는 계기가 됐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석가불 신앙이난 불성 신앙의 성행은 귀족불교가 통합적 성격을 가지면서 사상적으로 발전하게 했다"며 "대중화된 귀족불교는 정토 사상을 성립시키는 한편, 사상적 논리 체계를 확립했다. 이후 원광과 자장의 과도기를 거쳐 원효와 의상의 불교교학이 융섭적 논리체계를 이루게 했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 문화재 연구 활성화 협약 잇달아

동국대 불교학술원 중심으로

불교문화재硏, 대흥사 MOU

불교 문화재 연구 상호 협력

대흥사 고문헌 1천여 점 조사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와 동국대 불교학술원 산하 불교건축문화연구소는 8월 4일 전법회관 3층 회의실에서 연구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불교 문화재 연구 · 조사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이 잇달아 체결됐다.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일감)와 동국대 불교학술원 산하 불교건축문화연구소(학술원장 정승석)는 8월 4일 전법회관 3층 회의실에서 연구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불교문화재 현황조사 △문화재 보존관리방안 연구 △기관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불교문화재 현황파악을 위한 1차적인 학술조사에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불교문화재 학술연구조사의 범위를 보존방안연구까지 확대하기 위한 첫 행보라는 데 의미가 크다.

불교문화재연구소장 일감 스님은 "불교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금이 연구를 활성화 하기에 매우 적기"라면서 "상호 협력을 통한 연구로 불교 문화재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승석 동국대 불교학술원장은 "현재 불교 건축과 문화재에 대한 전문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이 없다. 전문적 연구를 위해 학술원 내 불교건축문화연구소를 올해 개소했다"며 "불교문화재 전문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에 앞서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7월 26일 대흥사와 '불교기록문화유산 조사 · 촬영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2012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동국대의 지원으로 수행해 온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ABC)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대흥사가 소장한 약 1천 여 점의 고문헌을 종합 조사하는 첫 출발이다. 불교학술원은 지난 2012년 장성 용흥사에서 대흥사의 많은 고문헌을 조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지자료집-대흥사편〉을 현재 3권까지 간행하기도 했다.

동국대는 조사완료 후 서지 자료와 함께 고해상도 촬영 결과물을 불교학술원의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서비스 시스템(kabc.dongguk.edu)'을 통해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이번 대흥사 소장의 고문헌 조사는 그동안 곳곳에 흩어져 있던 자료를 한데 모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사찰의 역사와 문화, 사상과 신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신성민 기자

참행복으로 가는 무소유의 생활선법(生活禪法)
화제의 신간
禪과 무소유
일상생활 전체가 선이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좋든 싫든 간에 선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선의 특색이다. 그래서 선은 상식을 초월한다. 그리고 초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초월이라는 그것마저 초월하는 것이 참된 선이다.
선은 사색하는 것이 아니며 추상적 명상 또한 아니다. 그것은 일체의 지식과 언어를 초월하는 것이다.
왜 그대는 그렇게 많은 것을 축적하는가
왜 그대는 그렇게 많은 관념들을 집착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대가 가득차 있다고 느끼기 위함이다.
전국 서점 판매중!
■ 송월스님 지음 / 신국판 / 정가 15,000원
법성요해
法性了解
깨달음의 궁극, 원융일심 화엄실상 법성지혜를 밝힌 책
▣ 원융불이 이사원융 사사무애 실상법계 일심의 깨달음세계를 이 책에 밝혔다.
♠ 화엄실상, 원융일지(圓融一智) 일심요의(一心了義) 각성의 실상을 밝게 드러내어 밝혔다.
♠ 깨달음 지혜로 일심, 일성, 일각의 실상을 정의하며, 일심원융세계를 밝혔다.
♠ 각종 차별개념과 중용, 중도의 실상과 그 차별 차원을 밝혔다.
신국판 | 세웅스님 역저 | 464쪽 | 정가 25,000원
원각경요해
圓覺經了解
깨달음, 구경성불 과정의 깨달음 지혜를 모두 밝혔다.
여래결정경계 원각삼종자성 수행의 실상, 심오한 각성세계를 밝히며, 대승, 일승, 불승보살 각성차별과 깨달음 각성과정을 모두 밝혔다.
♠ 깨달음 각성과정 지혜세계를 모두 밝힌 지혜점검 책이다.
♠ 구경성불 수행과정 깨달음 경계와 각성세계를 밝혔다.
세웅스님 역저 / 관음출판사 / 신국판 / 644쪽 / 정가 33,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오성월 스님, 독립유공자 서훈 받을까?

7월 20일 울산 지방 보훈청에 독립유공자 서훈 신청

11.17순국선열의날 결과 발표
만해 한용운, 박한영과 함께
일제에 항거해 '임제종' 창단
만세운동·독립군자금 지원도
전통불교수호 선풍 널리 펼쳐





범어사 제1대 주지 오성월 스님의 독립유공자 서훈이 7월 20일 보훈청에 공식 신청됐다. 오성월 스님은 임제종을 통한 전통불교수호와 만세운동, 독립군자금 지원, 교육계몽 운동으로 독립운동을 펼쳤다. 사진 오른쪽은 오성월 스님이 불교계를 대표해 펼친 서명운동 '승려독립선언서'.

독립운동과 함께 전통불교수호를 위해 노력한 오성월(吳惺月, 1865~1943) 스님의 공적을 밝히고, 독립유공자로 그 뜻을 기리기 위한 구체적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부산 금정중 김화선 교사는 지난 7월 20일 "울산 지방 보훈청에 오성월 스님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본지에 전달했다. 보훈청에 따르면 국내 독립유공자 발표는 3.1절과 8.15 광복절, 그리고 11.17 순국선열의 날에 맞춰 3차례 진행된다. 8·15광복절 심사는 이미 마쳤기 때문에, 오성월 스님의 독립유공자 심사는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 발표된다.

김 교사는 "오성월 스님을 비롯한 많은 스님들의 독립운동이 활동에 비해 알려진 바가 적어 답답했다"며 "독립유공자 서훈 신청을 하더라도 자료 발굴이 어려워 불교계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이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오성월 스님은 임제종을 이끌며 중앙포교당을 범어사로 옮겼다. 임제종은 1911년 1월 15일 만해 한용운, 박한영 등과 함께 세운 종단이다. 임제종은 1910년 당시 우리나라 유일한 종단이었던 원종(圓宗)이 일본 조동종의 지도하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며, 선종 중심의 전통불교를 수호하기 위해 창단됐다. 1911년 범어사 제1대 주지 였던 오성월 스님은 범어사를 선찰대본산으로 정하고 선풍을 널리 펼치며 부산 동래포교당, 초량포교당 등을 열어 항일 운동을 펼쳤다.

김 교사는 "일본은 한국불교의 전통을 무너뜨리고 민중교화 방법으로 불교를 이용하려 했다"며 "스님은 일본의 술책들을 막아냈고, 그 노력은 선의 대중화를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범어사는 동산 스님을 비롯한 많은 선승들을 배출했다"고 전했다.

불교 전통 수호 뿐 아니라 오성월 스님은 1919년 3월 1일 만세 운동을 함께 주도했다. 서울 파고다 공원서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직후, 스님은 부산 동래장날 만세 운동을 계획하고 3월 7일 차상명, 김봉환 스님들과 함께 1차 만세운동을 펼쳤다. 이어 3월 18일과 19일 범어사 지방학림 및 명정보통학교 학생들과 함께 만세운동을 펼친 후 옥고를 겪게 된다. 이뿐 만이 아니다. 상해 임시정부를 후원하며 독립군자금을 마련해 지원했으며 승려독립선언서 서명 운동도 주도했다. 독립선언서에는 불교의 독립운동 당위성을 천명하고, 국내 뿐 아니라 프랑스에도 선언서를 전달해 독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알렸다.

김 교사는 스님의 노력 가운데 '민족계몽 운동과 교육'을 가장 주목할 만한 업적으로 꼽았다. 김 교사는 "스님의 노력으로 범어사는 교육 및 포교를 위한 사회 계몽 활동에 앞장서며 국채보상운동, 물산장려운동, 청년운동 등 지역사회 운동의 요람으로 우뚝 섰다"고 말했다.

이 시대 계몽 운동은 인재양성을 위한 민족학교 설립 등 교육사업에 집중됐다. 범어사는 승려양성과정인 사교과와 일반 소학교 과정인 사립명정학교를 운영했으며, 각 포교당을 통한 교육도 담당했다. 이밖에도 야학을 통한 무상교육을 실시해 아동 교육에 앞장섰다.

김 교사는 불교계 근대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독립운동가 스님들의 활동을 밝혀내 호국 불교의 위상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사는 "불교계 독립 운동가 발굴을 위해 불교계가 앞장서야 한다. 불교계 근대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스님들의 경우 호적과 이름이 같지 않아 특히나 어려움이 있다. 동광 선사(이근우)도 이종억으로 호적이 돼 있어 같은 분으로 증명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 불교, "광복의 참 뜻 되새기자"

평화 기도회 및 사할린 동포 초청 만찬 등 개최

다가오는 광복절을 기념하며 부산불교계가 순국선열을 위한 위령재, 평화기도회 등 광복의 참 뜻을 되새기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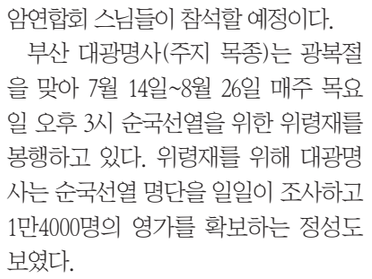
부산종교지도자협의회(회장 정여)는 '제71주년 광복절 기념 평화 기도회'를 8월 11일 오전 11시 30분 백산기념관서 개최한다. 올해 12회를 맞는 평화 기도회에는 불교 뿐 아니라 원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6대 종교 지도자들이 참가한다. 특히 북한 새터민과 다문화가정이 함께 참여해, 광복을 기뻐하며 조국의 평화통일을 기원한다. 아울러 기도회 장소로 선정된 백산기념관은 부산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인 백산 안희제 선생을 기념하는 곳으로 더욱 뜻 깊다.

개회식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과 회장 정여 스님의 인사말 및 축사 등으로 이어지며, 평화기도회는 기원문 낭독, 광복절 노래, 축하공연, 만세삼창으로 마무리 된다.

회장 정여 스님은 "일제 강점기란 아픈 역사 속에서도 광복을 위해 애쓴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정신을 잊어버려선 안 된다"며 "그 정신을 밑거름 삼아 통일조국의 염원을 이룩하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삼광사(주지 무원)는 광복절을 맞아 8월 3일 삼광사 약사전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된 한인 후손들을 위한 만찬을 준비했다. 이번 행사는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진행하는 '사할린 동포들과 함께 하는 역사 기행' 중 하나이며, 공식 환영 자리이다. 행사에는 사할린 청소년 22명과 우리나라 청소년 20명이 참여해 교류의 장으로 열렸다.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공동 대표인 무원 스님은 "한인 3·4세들이 한민족이라는 정체성과 역사성을 알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할린 강제징용희생자들을 위한 추모관과 후손들을 위한 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추모 위령재와 여러 행사를 통해 한 민족임을 일깨우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부산 불교계가 광복을 맞아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는 다채로운 장을 마련했다. 사진은 작년 부산종교지도자협의회에서 진행한 평화 기도회 모습.

한편 삼광사는 지난 2015년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할린 동포 후손을 위한 역사 기행을 기획했다. 또한 다가오는 8월 27일에는 사할린을 직접 방문하고 추모 위령재를 봉행한다. 이 자리에는 부산진구사암연합회 스님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부산 대광명사(주지 목종)는 광복절을 맞아 7월 14일~8월 26일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순국선열을 위한 위령재를 봉행하고 있다. 위령재를 위해 대광명사는 순국선열 명단을 일일이 조사하고 1만4000명의 영가를 확보하는 정성도 보였다.

대광명사는 "광복절 뿐 아니라 현충일에도 충혼탑에서 위령재를 봉행하며 호국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매년 빠짐없이 감사의 뜻을 전할 것이다"고 전했다. 하성미 기자

"진정한 '쉼' 느끼며 마음 등불 밝혀요"

부산 안국선원, 청소년 마음 등불 프로그램 개최

부산 안국선원 교육관(주지 학산)은 '청소년 마음등불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중등부는 7월 29일~31일, 고등부는 8월 5일~7일 진행됐으며 부산 및 경남 중고등부 청소년 50여명이 참석했다.

조계종 포교원이 주최한 이번 청소년 마음등불 프로그램은 '나를 찾는 선'이란 주제로, 명상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을 위한 기초과정으로 마련됐다. 세부 프로그램은 △일몰 명상 △묵언 포행△마음촛불 나누기 등 명상법과 함께 △공동체놀이 △마인드맵 △컬러테라피-만다라 모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컬러 테라피-만다라 모래'는 청소년들이 모래 만다라를 만드는 것으로, 집중도를 향상시켜 명상에 적응하기에 좋은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



부산 안국선원 교육관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마음등불 프로그램'을 중등부와 고등부로 나눠 진행했다.

주지 학산 스님은 "청소년들에게 명상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마련했다"며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조금이나마 무상(無常)을 체험했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스님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가장 강조한 점은 '쉼'이다. 학생들이 안국사서 제대로 쉼을 얻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 마음등불 프로그램은 인성계발프로그램으로 조계종 포교원이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명상과 상담을 통해 청소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불교의 수행방법을 놀이와 체험을 통해 소개하며 자연스럽게 명상 원리를 터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하성미 기자

효심밥상 봉사자들, 신중탱화 장엄불사

7월 31일 점안법회

효심(孝心)으로 지역 독거 어르신들의 건강 밥상을 제공하는 '효심 밥상 무료급식소' 봉사자들이 효심사(주지 효문)에 신중탱화로 장엄불사를 진행했다.

효심사는 이를 기념하는 신중탱화 점안 법회를 7월 31일 무료급식소 내 효심사 법당서 봉행했다. 점안 법회에는 봉사자 및 신도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신중탱화불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급식을 준비하는 봉사자들이 직접 나서 불사를 진행했다. 봉사자들은 법당 장엄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발원이 불사 이유라고 설명했다.



효심 밥상 무료급식소 내에 위치한 효심사에 신중탱화 점안법회가 7월 31일 개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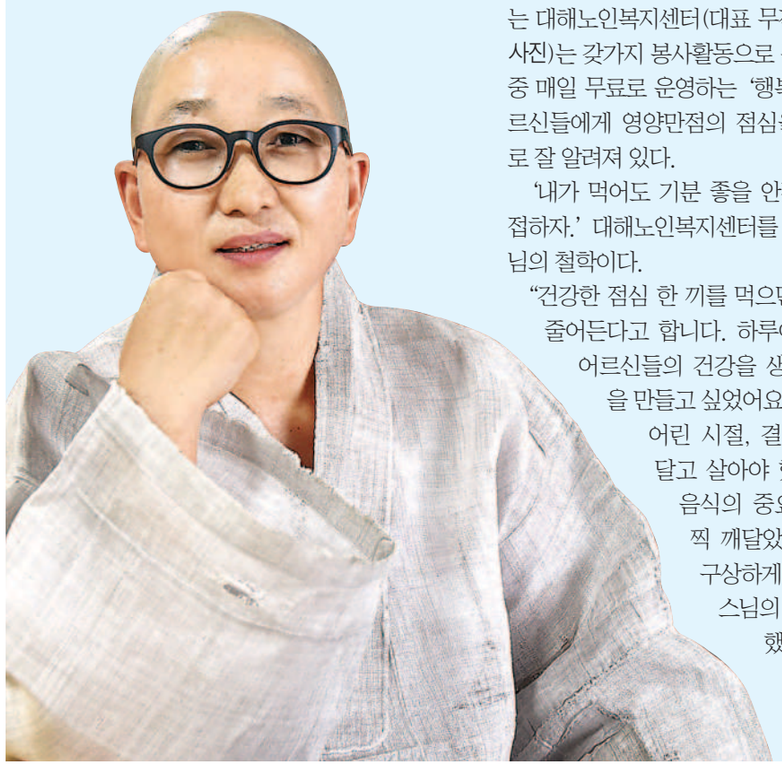
주지 효문 스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봉사자들의 신심으로 진행됐다"며 "봉사자들이 무료급식을 찾는 어르신들을 보며 자신들이 더 큰 기쁨을 얻는 것이 불사의 이유일 것"이라 격려했다. 하성미 기자





“어르신 위한 실버타운 설립이 꿈”

호남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행복밥상 운영하는 무진 스님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1%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다. 한국은 이미 2000년대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후 OECD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한다. 급격한 고령화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생활력 없는 노인문제는 사회가 짊어져야할 화두가 됐다.

이에 따라 광주불교계는 소외받는 노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법림사가 운영하는 대해노인복지센터(대표 무진, 법림사 주지 · 사진)는 갖가지 봉사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 중 매일 무료로 운영하는 ‘행복밥상’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영양만점의 점심을 대접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내가 먹어도 기분 좋을 안전한 먹거리를 대접하자.’ 대해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무진 스님의 철학이다.

“건강한 점심 한 끼를 먹으면 병원 갈 확률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끼만이라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행복밥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어린 시절, 결핵으로 병치레를 달고 살아야 했던 무진 스님은 음식의 중요성을 비교적 일찍 깨달았다. ‘행복밥상’을 구상하게 된 것도 이 같은 스님의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 스님은 사찰 아래 2000여 평의 텃밭을 가꿔 다양한 식재료를 확보한다. 텃밭에서 구할 수 없는 재료는 믿을만한 매장을 통해 직접 구매한다. 특히 현대인들을 위해 3년 숙성된 효소를 만들어 조미료를 대신하고, 보리쌀을 구입해 된장 등의 양념을 만들어 유기농 밥상의 풍미를 더하고 있다.

“저는 음식을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 음식은 그저 단순합니다. 다만 좋은 재료를 통해 최고의 건강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매주 월~금 어르신들 식사 대접
2000평 텃밭서 각종 작물 직접 키워
매일 4~5시간 울력, 사찰음식강좌도
지역민 호응 높아 명소로 자리 잡아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가면 그것은 몸이 되듯이 농부와 내가 둘이 아니고, 자연과 내가 둘이 아닙니다.”

행복밥상에 담긴 무진 스님의 음식관은 이처럼 명료하다. 이는 스님의 삶과도 일치한다. 무진 스님은 지금도 매일 4~5시간씩 울력을 하며 텃밭을 일군다. 최근에는 전남대 학생들을 위한 특별 사찰음식강좌도 열었다. 지난해 수강생이 10여 명에 불과했던 강좌는 어느덧 강의실을 가득 채울 만큼 인기강좌가 됐다. 스님이 꾸준히 노력한 결과다.

현재 행복밥상은 광주 동구 소태동 일대 주택가를 구입해 전체 50여 평, 60석 규모의 작은 식당으로 꾸몄다. 이곳에서 매일 100여 명의 지역 어르신들이 무료로 식사를 한다. 행여 ‘무료식사’라는 이미지 때문에 어르신들이 주위 사람들로 인해 마음을 다칠까 염려해 1000원 보시함도 설치했다. 물론 보시는 개인 자유다. “감사하다”는 어르신들의 인사는 늘 뒤따른다.

매주 월~금요일까지 문을 여는 행복밥상은 7가지의 반찬과 국 등 다양한 식단을 선보이며 푸짐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때문에 지역민들의 호응이 높아 지역 명소가 됐다.

“몸에 좋고 맛있다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어르신들이 행복밥상 근처로 이사 오고 싶게끔 만들어야죠. 최종적으로는 직접 농사를 짓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실버타운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즉 불교가 강조하는 연기적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도량을 세우는 것이요.”

이 같은 무진 스님의 서원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물론 혼자 이룰 수 없는 일이기에 많은 도반들과 힘을 모으는 중이다. 한 번 구르기 시작한 법의 수레바퀴가 멈추지 않듯이 스님의 서원 또한 목표 달성을 위해 오늘도 구른다.

한편, 대해노인복지센터는 주간에 어르신들을 돌보는 주간보호, 방문요양, 생필품지원, 밑반찬 배달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방문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요가, 노래, 한글교육, 그림 그리기, 미술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매년 500~700명의 어르신들에게 식사와 문화공연, 선물을 제공하는 ‘만발공양’은 지역 복지기관에서도 모범이 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전달

선배시민 공통 이벤트도 진행

고창군사회복지시설과 선운사가 지역 내 난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어린이에게 치료비를 전달하고 격려했다.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장 대원 스님은 8월 4일 복지관 관장실서 고창군 드림스타트센터가 추천한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와 수술비 등 300만원을 환자 가족에게 전달하며 쾌유를 기원했다.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은 지역 아동이 겪는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기금은 지난 5월 14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고창 선운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제16회 3000배 철야정진’을 통해 모연됐다.

이 자리에서 대원 스님은 “옛말에 기쁨을 나누면 두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된다”며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3000배 철야정진에 모인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이 환아의 아픔을 덜어주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노인복지관은 7월 28일 고창 공용터미널 앞에서 2016년 선배시민양성 및 성공적인 노년기 사회참여활동 지원사업 공통이벤트를 진행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고 사랑하는 성숙한 선배시민’이라는 표어 아래 진행한 이번 캠페인은 무더운 여름철 햇볕을 피할 수 있는 모자를 나누는 행사도 함께 열렸다. 선배시민양성사업은 100세 시대를 맞아 성공적인 노년기 영위를 위한 사회참여활동과 후손들에게 선배로서 지역사회 내 서비스 객체가 아닌 주체로 노년기 문제 해결, 삶의 질 및 행복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한불교 나라사랑 연합협의회

세계평화를 기원하고 지구촌 빈민촌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위한 지구촌 세계불교 최고의 지도자와 한국의 400여 종단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불교 지도자들의 법석

世界佛教 指導者 合同 金剛戒壇 합동 대법회

2016년 10월 5일 수요일 / 국회의원 회관 / 오후 1시 30분

전계대화상 :
世界佛教徒의 法王 –
우 꾸마라 사야도
(미얀마 연방승가회 회장)



Dr. Bhaddanta Kumarabhivamsa
Bhamo Sayadaw
Agga Maha Saddhammajotika
Agga Maha Pandita
Chairman of the State Sangha
Maha
Nayaka Committee

■ 교수아사리 : 살아있는 팔만대장경의 화신 제13대 에인다 빠라 삼장법사. 연방승가회 부회장 사야도
■ 갈마아사리 : 법왕청 법왕 보좌 비서실장 – 목탁 대승정 | 짜익티오성 사야도

한국본부 전계대화상 | 교수아사리 | 갈마아사리

三師 108證明團합동 建幢(건당)의식 및 품수의식 봉행

400여 종단 한국불교 高僧 및 元老 큰스님!
정중히 공개적으로 추대하여 이 법석에 모시고자 합니다.

석가세존에게 테라와다 불교의 정법을 위촉받은 미얀마 연방승가회 회장

법왕님의 상좌 건당 및 품수 의식. 계첩에 이름을 올릴
3師 108 證明團에 韓國佛教 高僧 元老 큰스님들을 모십니다.

■ 주 최 : 대한불교 나라사랑 연합협의회 / 세계평화기원 대법회 봉행위원단 /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주 관 :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 WORLD BUDDHIST DHARMA-KING CENTRAL GOVERNMENT

승려 60만의 불교나라 미얀마 최고의 큰스님과 부종정 사야도, 경전의 화신 13대 삼장법사, 짜익티오성 사야도와 상원의원 활동과 마얀마 신정부 경제특보이면서 수백억의 재산을 불교에 보시한 보시의 화신 닥터 킨쉐이 박사가 동참하여 성스런 불교의식을 한국에서 봉행합니다.

대한불교 나라사랑 연합협의회
대한불교 108 종정연합회
대한불교 고승 장로단
세계불교 고시위원회
국제붓다봉사단
대한불교 종단 인권위원회
대한불교 종단 총연합 협의회
대한불교 원로 장로단
대한불교 대종사 연합협의회

총괄본부장 : 아까마하 사다함마 저티카 하자 大僧正 목 탁 (법왕청 법왕보좌 비서실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6 신영빌딩 3층 (삼봉로 68) • 문의 및 접수 : 02)733-5665, 010-3618-6061

“즐거운 봉축 사진으로 또 만나요”

광주불교연합회, 8월 17일부터 봉축 사진전시회

불자들의 가장 큰 축제는 봉축행사의 모습을 담은 광주지역 사진전이 열린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 증심사 주지)는 8월 17일부터 연말까지 ‘2016 빛고을관등회 사진전-행복한 날 모두가 하나 되는 날’이란 주제로 지역 사찰 등서 전시회를 개최한다. 개막전은 17일 증심사서 열린다.

전시회는 광주지역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인 빛고을관등회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사진 40여 점을 선별해 순회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사진은 광주불교연합회 사진문화기획단(단장 무등) 회원들의 작품으로 전통등전시회(광주천), 어울림마당, 제등행진, 법요식 등에 참여한 스님들과 신도들의 환희심 넘치는 장면을 담았다.

무등 스님은 “광주에서 처음으로 봉축행사를 주제로 사진전시회를 한다. 앞으로 봉축행사에 많은 사찰이 참여할 수 있는 사전 홍보 효과를 기대하며, 우리들의 즐거운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갖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행사 의미를 밝혔다.

광주불교연합회는 광주지역 주요사찰과 활동이 미비한 사찰을 대상으로 5개월에 걸쳐 총 30여 곳에서 전시회를 연다.

한편 전시회를 주관하는 사진문화기획단은 광주불교연합회 부설 특별기획단으로 각 사찰의 사진활동가를 양성할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다. 광주지역 사찰 신도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사진가들이 많다.

강민협 회장(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신도)은 “사진문화기획단은 사찰의 사진활동가 양성과 각 사찰 중요 행사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역할을 한다. ‘내 사찰의 사진은 내가 찍는다’는 목적으로 현재 15명의 회원이 참여해 사진을 배우는 과정에 있다”고 단체를 소개했다.

전시회는 증심사 개막전에 이어 20일 광산구 길상사 등 사찰 등에서 중요 법회가 있는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도들이 최대한 많이 볼 수 있는 시간에 대웅전을 비롯한 사찰경내서 진행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좋은이웃, 외국인노동자 축구대회 열어

5개국 6개팀 참가, 휴가 못 떠나는 노동자들 위로

고국을 떠나 한국의 산업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축구대회가 열렸다.

외국인노동자를 지원하는 좋은이웃(대표 정용기)은 8월 3일 완주 국가산업단지 축구장서 ‘외국인노동자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처음 열린 축구대회에는 베트남 · 우즈베키스탄 ·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 등 5개국 6개팀이 참가했다.

개회식은 익산 원경사 자비 스님, 박성일 완주군수와 각국 노동자 2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풀 리그로 진행된 이날 경기는 베트남 군산팀이 우승의 영예를 안았으며, 베트남 전주팀이 준우승, 인도네시아팀이 3위를 차지했다.

정용기 대표는 “각 산업단지의 기업들이 본격적인 여름휴가에 들어갔지만 정작 외국인노동자들은 마땅히 갈 곳이 없어 각국 노동자들을 초청해 친선을 도모하고,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 축구경기를 개최했다”며 “노동자들의 마음을 다 달랠 순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기분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입상팀에게는 상금과 축구공이 상품으로 제공됐으며, 참가들에게는 기념목걸이 등 기념품이 주어졌다. 또 경기에 참가하지 않는 노동자들에게는 삼계탕과 각종 음료가 제공됐다.



좋은이웃(대표 정은용)이 8월 3일 개최한 축구대회서 참가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베트남 출신 은위덴띠번(30) 씨는 “해마다 명절과 여름휴가 때 한국인들처럼 갈 곳이 없어 숙소에서 시간을 보냈다”며 “모처럼 동료들과 함께 축구를 즐기며 뜻 깊은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좋은이웃은 정기적으로 외국인노동자 잔치 한마당을 열어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로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족들의 성공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도고마장(道高魔長), 편안함은 수행자의 오랏줄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⑥⓪ 독각시대왕 만난 현장법사 일행



그림 · 최주현

영감대왕에게 자리를 빼앗겼던 통천하의 수신이 나타나 감사를 드린다. 집채만 한 자라로다. 그 등이 넉넉히 넓어 일행을 모두 태우고 800리 통천하를 휘익 건넜구나.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멀어라. 산천경개 좋은 곳은 요괴도 많아라. 해는 저물어가고 배는 고파오는데 인가는 보이지 않네.

현장법사 손오공에게 먹을 걸 구해오라는데 손오공 눈에 보인다.

요괴의 음산한 기운, 이곳은 매우 위험한 곳! 여의봉으로 큰 원을 그리고 술법을 걸어 놓고는 단단히 당부한다. 제가 밥 얻어오는 동안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그리고 근두운으로 휘익 날아가 이리 저리 밥을 비는데 일행들 과연 꼼짝 않고 원 안에 있을까? 욕심 많고 참을성 없는 저팔계 절대 못 견딘다.

일행을 충동질해 나선다. 조금 앞으로 가다보니 훌륭한 집 있다. 들어가 보니 주인도 없는 듯한데 좀 더 들어가니 방 가운데 웬 해골!

아마도 집 주인이었는데 죽었나보다? 그리고 괜찮은 옷이 세벌 있구나. 저팔계 들고 나와 이 좋은 옷으로 갈아입자하네. 현장법사는 남의 물건 손댈 수 없다 거절하니 저팔계 사오정만 갈아입는다.

그런데 이게 웬일! 입자마자 옷에 꽁꽁 묶여 버리네. 꼼짝도 못하고 묶여 쓰러지네. 이것이야말로 요괴의 덫이었네. 거미줄에 먹이가 걸리자 거미가 등장하듯 요괴 등장하여 일행을 소굴로 채가 버린다.

아아! 본디 앉은 자리 없는 데 앉을 자리를 찾았는가? 해말쑥한 마음자리에 무슨 옷을 걸치려는가? 헛된 자리의 함정에 빠지고 거짓된 옷으로 천진면목을 가렸으니 스스로 요괴의 굴에 빠져버렸구나!

밥 얻어 돌아온 손오공 두리번두리번 사부님~ 팔계야~ 오정아! 토지신 나와서 사정을 알린다. 여기 독각시대왕이란 엄청난 요괴가 있는데 그 요괴 소굴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린다.

다음 순서야 말할 필요 없다. 손오공 쳐들어가고 요괴가 튀어나오고 짠짠 바라바라바라!

그런데 요괴가 손오공을 알아보는 듯! "천상세계를 어지럽힐 만한 솜씨로구나!" 그러면서 웬 고리를 휙 던지며 "붙어라!"하는 한마디에 손오공 여의봉이 덜컥 거기 붙어버린다.

무기를 빼앗긴 손오공, 36계 줄행랑…. 곰곰 생각해보니 이건 좀 이상하다. 나를 알아보는 것 하며, 그 뛰어난 솜씨하며 분명 천상의 선관이나 악성이 내려온 것이로다.

급히 천상계로 올라가 옥황상제에게 청하여 선관들을 점고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결원이 없다. 그래서 옥황상제에게 청하고 원군을 얻어 오는데 원군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

"붙어라!", 그 한마디!

모든 천상의 장군들 무기를 빼앗긴다. 이젠 정말 수가 없다. 부처님을 찾아뵙자! 무궁한 불법의 힘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구나. 한달음에 근두운 타고 영취산에 달려간다. 석가여래께서는 빙긋이 웃으신다. 18나한에게 금단사(金丹砂)란 보물을 내리시곤 요괴 잡을 계책을 알려주신다.

1차 계책, 금단사로 요괴를 잡는다.

2차 계책, 그게 안 되면 태상노군을 찾아뵙는다.

1차 계책은 안 통하네….

금단사도 "붙어라!"에 붙어버리네.

손오공 태상노군 거처를 찾아간다. 휘휘 둘러보니 태상노군 거처에 있던 푸른 소가 보이지 않네. 소 돌보는 동자는 졸고 있네. 태상노군을 추궁하니 깜짝 놀라신다. 이크, 이놈 푸른 소가 달아났구나. 내 보배로운 금강탁(金剛琢)을 훔쳐갔구나! 급히 파초선 들고 나서신다.

아무리 사나운 요괴지만 주인이 나서는 데는 수가 없다.

파초선 한번 흔드니 신비한 "붙어라!"고리 떨어지고 두 번 흔드니 흐늘흐늘, 푸른 소의 본모습 드러난다. "붙어라!"고리였던 금강탁으로 코를 꿰니 꼼짝도 못한 푸른 소!

이때부터 인간 세상에 소코뚜레가 전해졌대나? 절 법당 벽에 그려진 소 찾기 그림 보셨지? 거기 소 잡아서 길들여 끌고 오는 대목….

거기에 나오는 소코뚜레가 바로 이 금강탁이여! 여러분도 각각 자기 소 찾아서 금강탁 코뚜레로 길들여서~소 등에 타고 피리 불며 산천경개 유람하세!

훌륭한 옷은 요괴의 함정
손오공 만류에도 저팔계 입어
독각시대왕 본체는 도망친 '소'
'소'는 수행자의 또 다른 이름

좋은 일을 하면 보답이 있죠. 눈앞에 그 보답이 왔네요. 통천하의 요괴를 잡아 주니, 원래 통천하의 수신이 보답을 하는군요. 커다란 자라 배, 수신이니 배(?)모는 기술이 또 얼마나 좋겠어요? 멀미도 없이 800리 통천하를 휘익~ 건넜군요. 그래도 갈 길은 멀어…. 좋은 경치 만날 때면 한편으로 요괴 근심을 안 할 수 없는 형편이지요. 그렇게 한편으로 좋은 산천경개 감상하며, 다른 한편으로 요괴 걱정하며 가는 길, 그게 바로 손오공 일행이 가는 길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수행의 길이기도 하구요. 도고마장(道高魔長)이라 했지요? 도가 높아질수록 장애도 그만큼 커진다구요. 도가 높아져 삶의 질이 달라지고 기쁨이 커지는 만큼 장애도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자, 이제 우리 손오공 일행을 기다리는 장애는 무엇일까요? 이만큼 왔으면 수행의 단계로 따져도 꽤 높아진 것 같은데, 어떤 장애가 기다릴까요? 에궁… 이번 장애는 만만치 않군요. 앉을 자리 찾는 장애, 자기 위상을 드러내려는 장애가 기다리고 있었군요. 손오공만이 살필 수 있는 요괴의 기운, 날은 저문데 음산한 기운이 있는 동네에 도달했군요. 그래서 내가 밥 얻어 올 테니 꼼짝 말고 기다리라 당부하곤, 그래도 못미더워 보호의 술법을 건 원을 그려놓고 밥 얻으러 간 사이…. 저팔계가 역시 일을 일으키지요? 언제나 그놈의 욕망, 탐욕이 문제로군요. 그 부추김에 저항을 못하는 일행이 문제지요. 아직도 욕망의 힘을 누를 만큼의 수행이 쌓이지 않은 모양이에요. 저팔계도 이제 좀 길이 들었는데, 손오공만 없어지면 그 본성이 튀어나오는 게 문제지요. 지혜가 잠시 출타한 사이, 탐욕의 부추김을 견디지 못하고 금지선을 슬그머니 넘어서버리죠. 그래서 스스로 요괴의 굴에 떨어지네요. 그 굴이 어떤 굴이냐! 바로 앉을 자리 탐하는 마음, 자신을 드러내려는 마음, 그것이 만드는 덧과 그물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손오공이 신신당부하며 벗어나지 말라고 한 곳이야말로 참으로 도를 닦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안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팔계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곳을 교도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지요. "형님은 어디 가서 놀다 오는지도 모르잖아요? 자기가 탁발을 해 오겠다고 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감옥살이나 하고 있으라니!" 당연히 지켜야 할 도리를 질곡으로 여기고 감옥으로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들면 바른 길로의 수행은 틀린 것이지요. 편안한 자리를 찾아 나서게 되지요. 또 그동안 조금 쌓인 수행력, 신통력을 빌어서 자기를 과시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고 싶은 욕망에 줄달음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괴굴인지도 모르고 스스로 찾아들어가, 천진면목을 가리는 옷을 스스로 걸치는데, 그것이야말로 자신을 꽁꽁 묶는 오랏줄이 되는 것입니다. 저팔계가 인도해서 찾아간 집, 주인 없는 집에 백골만 누었군요. 이미 그런 편안함을 찾아왔던 사람의 백골일까요? 그리고 따듯한 솜옷이 세벌~. 그동안 추위를 참아왔던 저팔계가 견딜 수 없죠. 현장법사는 주인 없는 물건을 탐할 수 없다고 거부하지만 저팔계 사오정은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입자마자 꽁꽁 묶여서 쓰러지고, 결국 힘없는 현장법사만 남게 되지요. 거미줄 치고 기다리는 거미처럼, 함정을 만들고 기다리던 요괴가 달려 나오니 저항할 길이 없습니다.

요괴야 말로 "이게 웬 떡이냐!"지요. 한 점만 먹어도 불로장생한다는 현장법사 일행을 힘도 안 들이고 잡았으니, 어떻게 맛있게 요리해 먹느냐만 남았는데…. 그래도 저팔계의 발악적인 위협이 좀 마음에 걸리네요. "우리 형님이 누구인지 아느냐? 하늘을 뒤흔들었던 제천대성이시다!" 그런데 이 요괴가 좀 비보통(非普通) 요괴인 게 틀림없네요. 손오공을 알아요. 마음에 좀 걸리는 것도 있고 겁도 나고 해서 "흐음! 그 녀석까지 잡아서 뒤탈 없게 한 뒤에 성승(聖僧) 고기를 맛보기로 하자"고 결정을 내리지요. 과연 요괴가 뒤탈 없이 성승의 고기를 맛볼 수 있을까요? 우리 슈퍼스타 손오공이 돌아오면 무슨 수를 내던 일행을 구하겠지요? 그런데 이 요괴가 천상의 소식도 알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비보통 요괴임에 틀림없고…. 그러니 손오공과의 겨룸도 만만치 않을 것 같군요. 다음 회에 좀 자세히 보기로 하지요.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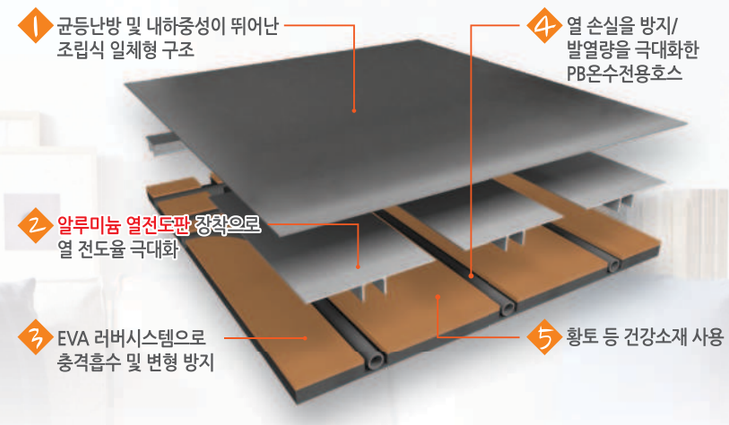

신중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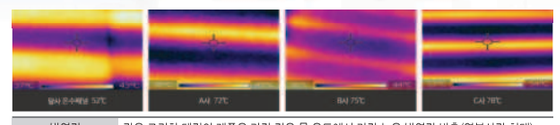
뜨시고 따시고
스님, 불자님
이제 연료비 걱정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지내세요!!
조달청등록기업
MBC, KBS 방송광고제품
난방비 50% 이상 절감 / 반영구적 수명
내하중성 최고 / 전자파 ZERO


태경에너지 홍보이사 / 배우 이동준



01 황토발포단열 EVA 사용
02 업계 최고의 에너지 효율 (56%,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
03 알루미늄을 이용한 방열식 온수난방패널 (특허 10-1386923호)
04 본드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제품
05 난방비 50% 이상 절감 (45℃ 이하의 저온수 난방 제품)

열과 하중에 강한 태경에너지 온수난방패널 핵심기술
열을 넓게 퍼트리는 3면 알루미늄
발열량을 높이는 PB온수전용호스
원적외선 방출 및 항균효과가 있는 황토EVA



발열량	같은 조건하 태경의 제품은 가장 적은 물 온도에서 가장 높은 발열량 방출(열복사량 최대)
열전도율	알루미늄이 장착된 태경의 제품이 가장 낮은 온도에서도 가장 높은 열 전도율을 보여줌

금새 따뜻해지는 놀라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력!! 제품 구조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주)태경에너지 TAEKYUNG 온수온돌판넬 전문기업
대리점 및 제품구입문의 1833-8404
www.태경에너지.kr
가스, 전기, 기름보일러 등 어디든 사용 가능합니다

반야용선은 중생을 기다리고…

‘나’를 찾아 떠나는 山寺紀行

화왕산 관룡사



신라시대 8대 사찰 중 하나

원효, 중국 대중에 화엄경 설법

약사전서 ‘349년’ 글자 나와

가야 통한 남방전래설 뒷받침

대웅전, 약사전 등 보물 다수

서쪽 능선엔 반야용선이…

경남 창녕, 억새밭으로 유명한 화왕산 봉우리 중 하나인 관룡산 능선에는 너럭바위가 하나 있는데, 용선대(龍船臺)라고 한다. 그 이름은 반야용선서 비롯된 것으로, 허공을 향해 튀어나온 거대한 암반 모습이 바다로 향하는 뱃머리와 닮았고, 그 뱃머리에는 석조여래가 불국의 문을 바라보고 앉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석조여래의 시선 아래에는 반야의 길을 일러주는 도량이 하나 서있다. 신라시대 8대 사찰 중 하나인 관룡사(觀龍寺)이다.

글 · 사진=박재완 여행 작가

작은 석문, 관룡사 일주문 역할

폭염의 햇살 사이로 실바람이 불어온다. 바람 끝에는 향 내음이 묻어온다. 법당이 멀지 않았다. 석장승을 뒤로 하고 오솔길을 걸어 오르면 관룡사 일주문이라고 할 수 있는 작은 석문을 만나게 된다. 처음 돌이 다음 돌을 정하고 그 돌이 그 다음 돌을 정해서 돌담 하나를 쌓고, 한 발 건너 그 옆으로도 그렇게 다시 돌담 하나를 쌓고 나니 그 사이로 문이 하나 생겼다. 열고 닫을 것이 없는, 문 없는 문이다. 굳이 없어도 될 문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문 없이 문을 지나면 석문은 ‘있어야 할’ 문이 된다. 관룡사의 가람 구조는 여느 사찰과 조금 다르다. 일주문도 따로 없고 멀리서 보면 작은 성을 보는 듯하다. 석문을 지나 촉촉한 풀밭 길을 걸어 오르면 도량을 열어주는 천왕문을 만난다. 도량이다.

두 가지 창건설화 전해져

도량에 들어서면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 준다는 관룡사”라며 안내문이 관룡사에 대해 이야기 해준다. 화왕산 꼭대기 연못에 용이 살고 있었는데 절을 창건할 때, 용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여러 사람이 보았다고 해서 절의 이름이 관룡사가 되었다. 임진왜란을 겪으며 도량의 모든 전각이 불에 타 사라졌는데, 오직 약사전만이 그 화를 피했다. 약사전에 영험한 기운이 있다고 생각한 영운 스님이 약사전을 유심히 살폈는데, 들보 끝에서 ‘영화5년기유, 349(永和5年己酉,349)’라는 글자를 발견했다. 이때부터 관룡사는 대중의 확실한 기도처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많은 이들의 수행처와 기도처가 되었다. 들보에서 발견된 글자로 관룡사를 보면 관룡사의 역사는 ‘372년(고구려 소수림왕 2)’이라는 한국 불교의 공인 된 연대를 앞선다. 들보에서 발견된 349라는 숫자가 관룡사의 창건을 증명하는 기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숫자의 존재는 ‘372’를 앞서는 많은 이야기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게 하는 대목이다. 아무튼 관룡사의 역사는 분명 가볍지 않은 역사의 한 쪽임을 알 수 있다.

관룡사의 창건 시기는 두 가지 설이 있다. 583년(진평왕 5) 증법(證法) 스님이 창건했다는 설과 앞서 말한 약사전의 연대를 근거로 349년(흘해왕 40)에 약사전이 먼저 건립됐다는 설이다. 후자는 가야를 통한 남방전래설의 예증이기도 하다. 삼국통일 후 원효 스님이 중국서 온 대중 1,000명에게 〈화엄경〉을 설법하면서 대도량을 이루었다. 임진왜란 때 도량의 당우 대부분이 소실되었다가 1617년(광해군 9)에 중창되었으며, 1712년과 1749년의 중수와 중건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도량 곳곳에 설법의 향기가 은은히

도량에 들어서면 바로 대웅전이 보인다. 병풍바위를 배경으로 자리 잡은 대웅전은 보물(제212호)이다. 석가모니 삼존불을 모셨다. 대웅전 앞마당엔 백일홍 한 그루가 꽃을 피웠다. 등을 밝힌 듯 마당이 환하고, 꽃그늘엔 산새의 발자국이 남았다. 꽃은 붉고 새들은 노닐어 마당엔 이미 법으로 가득하다.

관룡사 가람배치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대웅전 서쪽 모서리에 비껴선 채 서있는 약사전(보물 제146호)이다. 약사전은 사방이 한 칸인 작은 당우인데, 바깥 뒷벽에는 산수화 네 폭이 그려져 있다. 약사전에는 석조여래좌상(보물 제519호)을 모셨다. 여래의 귀가 어깨까지 내려와 있다. 들어야 할 것이 그토록 많은 것이리라. 여래의 두 귀를 바라보며 조용히 여래를 불러본다.

약사전 앞에는 삼층석탑(경남 유형문화재 제11호)이 서있다. 통일신라 말기 또는 고려 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탑에는 상처가 많다. 이곳저곳이 많이도 깨져나갔다. 석탑의 깨져나간 빈자리를 보고 있으면 왠지 석탑은 돌로 보이지 않는다. 약사전 앞 돌담 위에는 담장 밖에서 핀 능소화가 월담을 하고 있다. 아침엔 햇살 쪽으로 꽃이 피고 저녁엔 부처님 쪽으로 꽃이 피고 있다.



화왕산서 내려다 본 관룡사 전경



관룡사 대웅전 전경



관룡사 일주문 역할을 하는 작은 석문

용선대서 바라본 절경 일품

서쪽 산으로 약 500m 정도 오르면 용선대와 통일신라 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조여래좌상(보물 제295호)을 만날 수 있다. 가파른 오솔길을 지나 마지막 바위를 짚고 배에 오르듯 용선대에 오르면 절벽 끝에서 여래가 멀리 정토의 언덕을 바라보고 있다. 뱃머리에 여래가 계시니 반야용선이 틀림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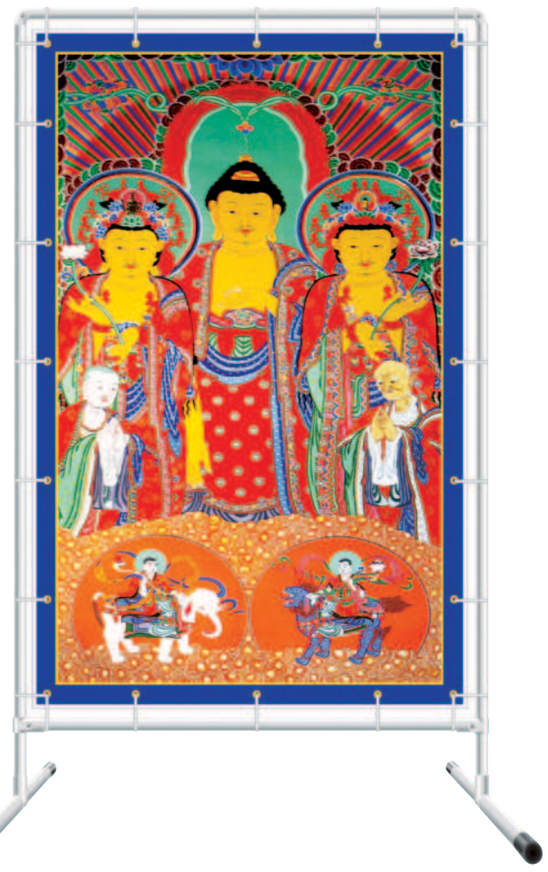
세차고 사나운 바다를 건너려면 반드시 배를 타야한다. 마찬가지로 세간의 생사고해를 헤쳐나가려면 반드시 반야를 얻어야 하고, 그 고해를 건널 수 있는 배가 바로 반야용선이다. 오랜 세월 이곳에서 여래는 중생 모두가 반야를 얻어 승선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 아득한 시절, 뱃머리를 찾고 뱃머리에 여래를 모셔 용선을 띄운 이는 누구일까. 그 쉽지 않은 자리를 찾고 그 자리에 여래를 모셨으니 그이는 분명 정토에서 온 이가 맞을 것이다. 관룡사에 가면 그이의 간절한 불사를 볼 수 있다. 극락정토로 가는 승선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두 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잡고 용선에 올랐다.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용선대와 반야용선에 대해 이야기했다. 두 내외와 아이들이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멀리 여래의 시선을 따라가 본다. 그랬다. 오랜 세월 배는 중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 둘 배에 오르고 있었다. 언젠가 반야용선에 모두 오르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여래의 시선을 따라 용선은 날아오를 것이다. 관룡산 능선에 정박해 있는 반야용선의 뱃머리는 오늘도 정토를 향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괘불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며 가방에 담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 품 설 명

- 괘불 크기 : 가로 200㎝ × 세로 300㎝
- 무 게 : 15kg
- 구 성 품 : 휴대용 가방(괘불+설치틀+설명서)
- 구입가격 : 56만원(주문 → 입금 → 배송)
- 배 송 : 입금 후 5일내 배송 가능

판 매 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한국 전통 혼을 담아 제작한 전통 풍경

국내유일의 에밀레 풍탁

고즈넉한 산사, 도심포교원에 울리는 너무나 맑은 소리 풍탁

1 에밀레풍탁은 백제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풍탁을 모티브로 개발된 제품으로, 백제 금동 풍탁의 형태에 우리나라 최고의 범종인 에밀레종의 문양을 접목시켜 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디자인 한 새로운 형태의 풍경입니다.

2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풍경은 지금의 형태가 아닌 타원형 또는 정사각 형태의 풍탁이 많으며, 하단의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이 아닌 구름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3 언제부터인가 전통적인 풍탁이 사라지고 원형에 물고기 바람판이 달린 풍경이 출현하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풍경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조선시대 이전에 제작된 풍경에 지금 형태의 풍경은 없으며,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은 없습니다.

4 우리 전통의 풍경의 모습을 되찾고자 지금까지 제작된 풍경중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백제 금동풍탁에 화려한 에밀레종의 문양을 어우러지게 하고 하단의 바람추도 전통 바람추의 형태에 연꽃 문양을 넣은 새로운 풍경입니다.

■ 규격 및 가격
「소」 85×65×135㎜ 15만원
「중」 110×80×160㎜ 20만원
「대」 140×95×200㎜ 25만원

■ 재질 : 청동







판 매 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3
- 입금계좌 : 농 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혁파’ 상소 올렸지만 유불교유는 지속

억불시대, 불교를 만난 유학자

㉗ 금계 황준량

조선중기의 문신(文臣) 금계 황준량(錦溪 黃俊良, 1517~1563)은 퇴계 이황(1501~1570)의 학풍을 따랐던 인물이다. 그의 자는 중거(仲擧), 호는 금계(錦溪)이다.

세상에 그의 문명(文名)이 알려진 것은 18세 때의 일이다. 당시 남성(南省)의 시험에 응시했던 그가 지은 책문(策文)은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명문이었던지 이를 본 고관(考官)은 무릎을 치며 칭찬하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그가 매번 시험에 응시할 때마다 앞자리를 차지했던 것은 우연한 일만은 아니었던 듯하다. 어린 시절부터 문자를 이해했고 그가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그의 천재성은 이미 천출로 타고난 것이었으니 이는 〈국조인물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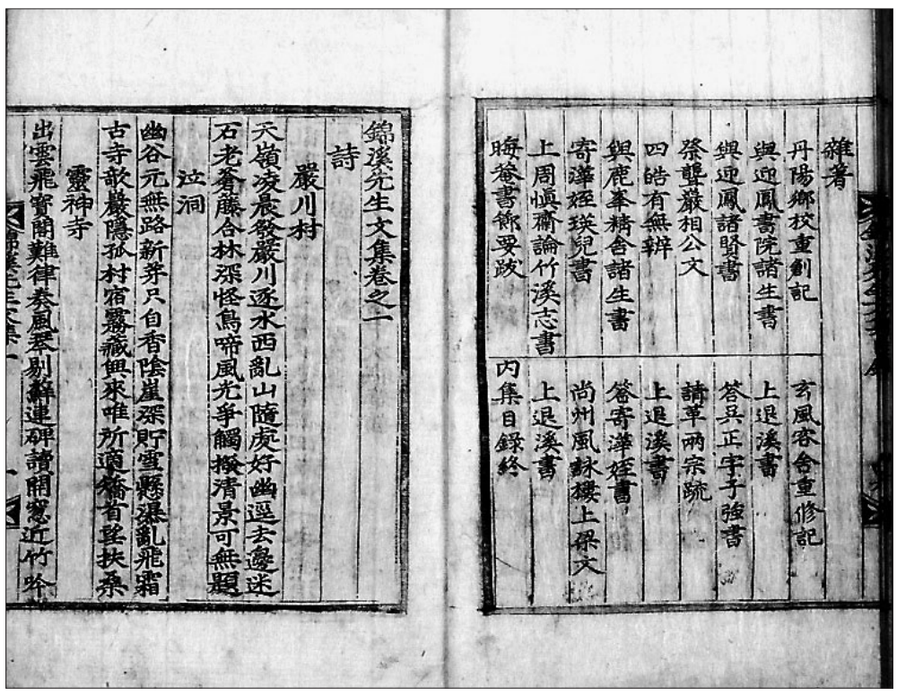
한편 그의 환로는 비교적 순탄하였다. 1537년 생원시에 합격한 후 1540년 을과에 급제하여 권지성균관학유(權知成均館學諭)에 보임된 것을 필두로, 여러 관직을 거쳐 학록겸양현고봉사(學錄兼養賢庫奉事)로 승진, 1550년 병조좌랑으로 전임되는 등 여러 관직을 거쳤다. 더구나 그가 지방관으로 부임한 후에 보인 덕치(德治)는 명리(名利)를 멀리하고 의리를 존중했던 선비의 기상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특히 퇴계의 학풍을 따랐던 그는 풍기군수를 지낸 주세붕과 왕래하며 서로 토론하는 일이 잦았다고 하는데 이 무렵 그의 학문적 식견은 이미 높은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리학의 연원에 깊이 마음을 두어 〈심경(心經)〉뿐 아니라 〈근사록(近思錄)〉 등 여러 성리서(性理書)를 탐독했고, 〈주자서(朱子書)〉에도 크게 관심을 두었기에 공무의 여가를 틈타 주야로 공부에 매진했던 일은 〈국조인물고〉에 다음과 같이 전해진다.

주위에서 누가 ‘피로하면 병이 난다’ 고 규계(規戒)하였다. 공이 대답하기를 ‘글을 읽어 학문하는 것은 본래 마음을 다스리고 기(氣)를 함양하는 것이니, 어찌 독서로 인하여 병이 날 수 있겠는가? 혹시라도 이와 반대되는 자가 있다면, (이는) 그 사람의 명운(命運)이지 글의 허물은 아니다’ 고 하였다. 공이 혼자 지낼 때에는 쓸쓸한 방안의 사방의 벽에 성현(聖賢)의 요훈(要訓)을 붙여두고서 스스로 깨우치고 반성하였으며, 주정지경(主靜持敬)의 말에 깊이 취함이 있었다.

공부에 열중했던 그의 의지는 이처럼 굳건했다. 그에게 학문은 “본래 마음을 다스리고 기(氣)를 함양하는 것”이었으니 그가 학문하는 목적이나 가치는 이렇게 확실했던 것이다. 이뿐 아니라 그의 입각(立脚)은 ‘주정지경(主靜持敬)’에 깊이 심취했다는 것이니 이는 주자학의 학문적 입장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더구나 그는 늘 청빈한 삶을 살고자 하였고 산수의 운치를 즐겼던 사람이었다. 간혹 부임지나 유람하던 지역에서 아름다운 풍광을 만나면 아는 사람을 초대하여 함께 즐기는 한편 어느 때는 홀로 운유의 풍경을 감상하며 돌아가는 것조차 잊었다고 하니 그의 산수벽(山水癖)은 이렇게 은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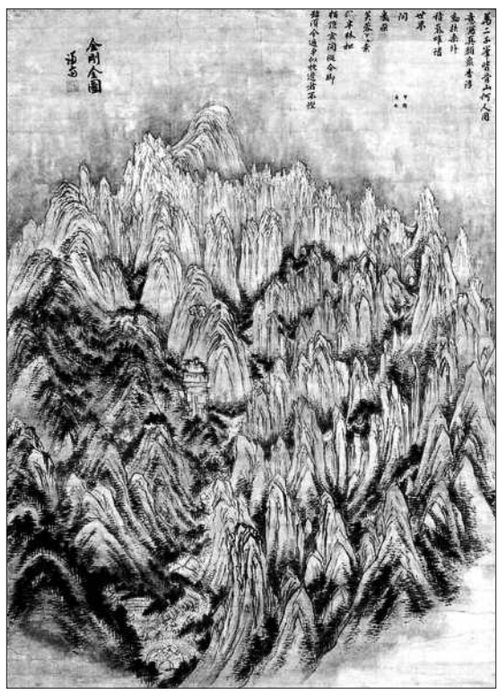


황준량의 문집 〈금계집〉. 사진=한국학중앙연구원

특히 언 강물 위에서 썰매를 타며 겨울을 만끽했던 그의 기질은 〈국조인물고〉에 “겨울철에 강물이 꽁꽁 얼자 중원(中原)으로부터 강을 따라 썰매를 타고 갔는데 앞에서 사람이 새끼줄로 당기게 하여 미끄러지며 올라갔다”고 하였다. 이는 호방하고 활달한 그의 기질의 일면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한편 그는 차를 즐겼던 선비로 그와 교유했던 승려들의 시축에 제발을 써 주었다. 그러나 한 때 불교를 배척하는 〈청혁양종소(請革兩宗疏)〉를 올린 적이 있었으니 이는 그가 병조좌랑(兵曹佐郞)에 전임된 1550년 겨울의 일이다. 그가 올린 소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근래에 승려들은 서로 축하하며 선종과 교종은 절대로 혁파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개월 동안 지지부진한 어려움에 처하여 저들의 말처럼 되자 저들은 서로 함께 불경을 공부하고 범패를 낭송하며 더욱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팔을 불며 망아지를 탄 채 백주에도 몰려다니고 있으니, 이 어찌 된 것이 전하의 금승령(禁僧令)이 도리어 저들의 기를 살려주는 데 알맞은 것이 되고 있단 말입니까. 천민으로서 노역을 싫어하는 무리나 사대부 자손으로서 무식한 자들이 다투어 영예롭게 여기고 부러워하고, 점차 그 흐름을 좇아 마침내 안락만 추구하고 고된 일은 회피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어른이나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유행을 따라 숲으로 숨어들고 산으로 들어가고 있으니, 물고기처럼 모였다가 새처럼 흩어지는 무리들을 붙잡아 올 방법이 없어서 전하의 나라는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比者 緇流相慶 必謂兩宗之不革 及至留難數月 一如其言則相與治經誦唄 益張聲勢 甚至鳴螺擁騶 白日馳騁 是何殿下禁僧之令 適足以 ㅈ其氣耶 ㄸ ㅂ厭役之徒 衣冠無識之裔 爭榮慕之 漸已奔波 終至於趨樂避苦 大小從靡則潛林入山 魚聚鳥散之徒 無計禁刷 而殿下之國空矣)


국보 제217호 정선의 〈금강전도〉(삼성 리움미술관 소장). 황준량은 법행 스님과 금강산에 다시 오르겠다는 약속을 담은 시를 썼다.

문학적 천재성 일찍 드러나
병조좌랑 등 여러 관직 거쳐
고승과의 담소·차 즐기고
승려와 창수한 시만 수만 편

그가 불교 혁파를 주장하는 소를 올린 연유는 분명했다. 바로 문정왕후의 비호아래 불교의 재건을 도모했던 불교계의 움직임을 비난했던 것이다. 이러한 현실 상황에 정치 관료의 입장에서 불교를 바라보는 그의 시각은 이처럼 분명했다. 하지만 그와 교유했던 승려들에게 보인 그의 태도는 유연했으니 이는 〈차증산인(次贈山人)〉에서 속내를 이렇게 읊었다.

내 생계 꾸림이 비둘기만도 못하여
(治生我亦拙於鳩)
평생 한 구역의 꾀함도 이루지 못했네
(未遂平生一壑謀)
도산에서 일 마치고 남은 힘이 있거든
(辦了陶山餘刃在)
날 위해 가을에는 금계를 단장해주오
(爲吾粧點錦溪秋)

산인(山人)이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퇴계선생의 서당을 지을 때 참여했던 승려로 추정되는데 승려들이 퇴계선생의 서당을 짓는 데 참여한 내력은 이렇다. 바로 1557년 퇴계선생은 공조참판에서 물러나 후학을 양성할 서당 터를 마련한 후 1558년 친히 옥사도자(屋舍圖子)를 그렸다고 한다. 지금으로 말하면 일종의 건축설계도인 셈이다. 당시 용수사(龍壽寺) 승려 법련(法蓮)이 공사를 시작했지만 완성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자 그 뒤를 이어 서당을 완공(1561년 가을)한 승려는 정일(靜一) 스님이었다. 이러한 전말은 〈도산잡영(陶山雜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국 황준량이 도산의 서당을 지은 승려들과 교유했던 것은 그가 퇴계의 제자였기 때문이다. 훗날 그도 자신의 고향 풍기에 집을 짓고 정양(靜養)하려는 뜻을 세웠기에 “날 위해 가을에는 금계를 단장해주오”라고 청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의 아름다운 뜻은 병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으니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다.

이밖에도 그를 위해 천왕봉(天王峯)까지 안내해 주었던 법행 스님에게 준 〈증법행상인(贈法行上人)〉은 이들의 깊은 교유의 정을 짐작게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밤중 절에서 종소리 들을 때
(共聽金臺半夜鍾)
성긴 솔숲에선 청학이 자주 울었지
(數聲靑鶴叫疏松)
삼천계의 풍월을 모두 읊었고
(吟窮風月三千界)
일만 겁의 연하를 다 밟았네(踏盡煙霞一萬重)
물외의 인연 있어 함께 노니니(物外有緣聯杖屨)
인간 세상의 궁통 따지지 않누나
(人間無意較窮通)
늦가을 풍악산이 비단처럼 붉어지면
(秋深楓岳紅如錦)
다시 봉래산 최고봉을 밟으리라
(更 蓬萊最上峯)

가을이 오면 “비단처럼 붉어지는” 금강산을 탐방하기로 약속했던 그들이다. 그러므로 “다시 봉래산 최고봉을 밟으리라”고 한 것이다. 풍악은 금강산의 이명(異名)이다. 이들의 물외의 교유는 이처럼 흔쾌하여 “인간 세상의 궁통 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구절에서도 황준량의 장부다움이 드러난다. 특히 그가 옥준 상인의 시권에 차운해 쓴 〈차옥준상인시권(次玉峻上人詩卷)〉에는 병중에 만났던 옥준 승려와의 화통한 교유의 일면을 나타냈는데 그 시는 이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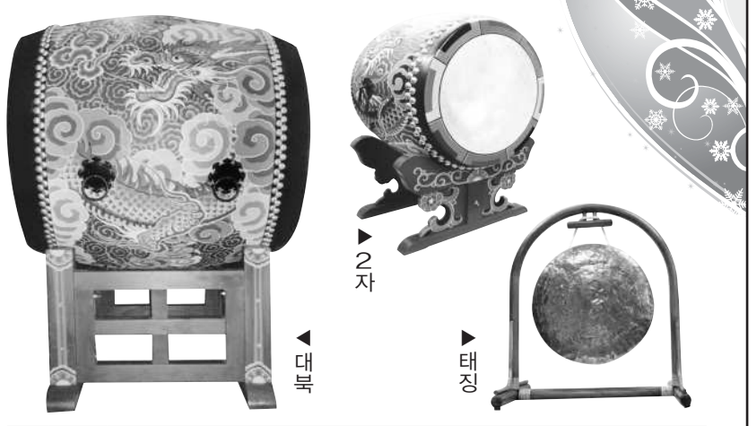
병중에 선사 만나 파안대소하였는데
(病裏逢師已破顔)
향 재료로 또 다시 자고반을 주네
(香材又贈ㅂ 斑)
선사를 다시 만날 날이 어느 때인지를 알겠거니
(重回碧眼知何日)
벼슬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때라
(已決焚魚返故山)

옥준 승려는 동화사의 승려로, 농암 이현보(聾巖 李賢輔, 1467~1555)의 영정을 그린 화승(ø№僧)이라 전해진다. 시에도 능했던 그였기에 병중의 황준량이 파안대소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에게 있어 옥준 스님은 물외(物外)의 지음(知音)이었던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가 번잡한 벼슬살이를 그만두고 소요와 정양(靜養)을 위해서라면 고향으로 돌아 가야한다는 의지를 밝힌 일이다. 속세란 고요함을 기르기에는 턱없이 소란한 곳, 은일과 소요를 위해 산림을 찾았던 선인들의 결단은 명백하고도 긴요한 의미를 지녔던 것이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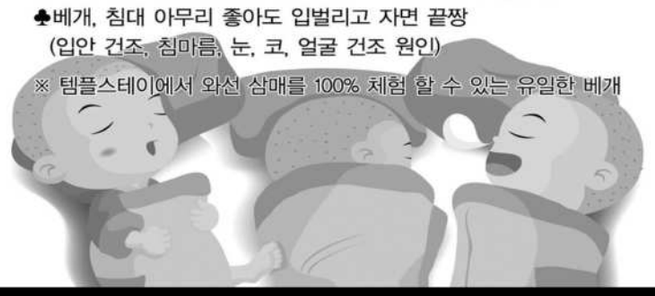
또 다른 그의 시에서는 암자를 찾아 차를 즐긴 정황이 드러난다. 바로 〈우증우사(又贈牛師)〉에서 “삼청계로 승경이 열려서(闢勝三淸界)/ 깊이 들자 오솔길이 그윽하네(尋幽一逕深)/ 구름 속 암자는 북두성에 닿았고(雲菴摩北斗)/ 빨리 흐르는 시냇물은 동쪽 숲을 씻어주네(飛澗漱東林)/ 학이 우는 큰 솔엔 이슬이 내렸고(鶴 ㅓ孤松露)/ 산중턱은 차 연기로 자욱하네(茶煙半嶺陰)/ 고승은 속세의 근심이 끊어져(高僧灰世念)/ 장삼 하나로 추위를 견디네(一衲擁寒吟)”라고 노래했다. 실로 소나무의 맑은 기상 성성한 암자, 학이 우는 곳, 눈 푸른 납자가 머무는 곳이야말로 다삼매(茶三昧)를 현현할 수 있는 시공간일 것이다. 더구나 속기(俗氣)가 끊어진 고승과의 담소와 청량한 한 잔의 차는 청빈했던 그에게 편안한 즐거움을 주었을 터이다. 한때 그는 교종과 선종을 혁파하라는 상소를 올렸지만 인연 있는 승려들과 창수한 시만도 수편에 이른다. 실로 그는 유불교유를 실천했던 인물이었던 것이다. 그의 저서로는 〈금계집〉이 있다.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 대북
▶ 2자
▶ 태징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도무지 잠이 안와! 자다깨다 좀더 자고 싶은데
잠이 안와! 뭇자지 못해! 쉽게 잠들지 못해!
휴≈힐링베개
미국 FDA 3009241067 승인
~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
♣반듯이 누워도 옆으로 누워도 딱 맞는 IQ 가장 높은 천재 베개
♣베개를 베지 않은 것 같은 완벽한 높이라야 쾌면, 숙면, 꿀잠
♣베개 높이가 딱 맞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언제나 그자리!
♣뒤척임 잘되어야 냉병 이기는 진짜 베개
♣푹신, 물렁, 꼬불 너무 높은, 낮은 베개는 버려라
나쁜 베개는 오래 자면 더 피곤, 건강 NO
♣1000명이 3년간 사용한 결론, 여행갈 때 100% 가지고 다니는 베개
♣스트레스 겹겹이 쌓여 못자고, 못쉬고, 못풀고
침대에 쓰러지면 뭐해 밤새 불면증과 전쟁 고생 뿐!
베개 높이 안맞아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바른 빠른 치유
♣어린이는 조금만 자라도 베개 높이 조절해야 한다(중요)
♣베개, 침대 아무리 좋아도 입벌리고 자면 끝짱
(입안 건조, 침마름, 눈, 코, 얼굴 건조 원인!)
※ 템플스테이에서 와선 삼매를 100% 체험 할 수 있는 유일한 베개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개혁회의
입종 및 사암등록 모집안내
법인등록번호 : 205421-0000520
대한민국의 승려라면 누구나 부처님의 일불제자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다하고 자리이타(自利利他) 정신으로 병들어 가는 한국 불교를 바로 잡아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책무를 펼쳐 나갈 사찰 및 각 지역 교구장, 종도님을 널리 모십니다.
사찰등록신청 제출서류
■ 사찰등록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1통
■ 법당사진(내, 외) 각 1매 ■ 인감증명서 2통
■ 임대일 경우(임대차 계약서 사본 1통)
주지 임명 관련서류
■ 서약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사진 3매 (여권사진 규격)
대한불교조계종개혁회의 개인사찰 보호법 중에서 개인사암은 개인 자산으로 인정하고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개혁회의 총무원
전라남도 영암군 산호리 614번지 ☎ 062)222-6366
대구시 동구 파계로 120길 91-1 자인사 종무실
010-6399-0020 / 팩스 053)984-1129

리더에게 聽하다 20년 염불행자 안동일 동산반야회 명예이사장

“‘승속이 함께하는 수행’ … 신행 문화 발전 지름길”



불교는 사부대중 공동체다. 그렇기에 항상 불교가 시대적 사명을 개척하고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는 대안이 불교 내부보다 출가와 재가의 연합에서 나오곤 했다. 안동일 동산반야회 명예이사장(77 · 법명 관해)은 20년 넘게 한국신행문화와 교육을 이끌고 있는 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법조인으로서의 삶과 함께 불자로서 활발한 신행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안동일 명예이사장에게 한국 신행문화와 불교 발전 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인터뷰=김주일 취재부장 / 사진 및 정리=노덕현 · 이승희 기자

Q: 최근 지구촌 곳곳에서는 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테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행문화 정착과 그로 인한 맹신으로 종교갈등과 비극이 양산되는 상황입니다. 바람직한 신행생활은 무엇인지 안 이사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A: 맹신은 갈등의 씨앗이다. 모든 종교의 목표는 행복 추구이며, 우리들은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종교를 믿는다. 종교의 근본은 바로 평화다.

불교로 인한 전쟁을 들어보았나? 다름을 인정하는 게 불교다. 유신론의 이분법적 사고와 달리 불교에서는 단지 ‘다르다’고 생각한다. 의견이 다르면 나쁜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를 뿐이라고 한다. 이런 사고에서는 다툼, 전쟁이 생길 수 없다. 바로 ‘화쟁’이다.

하지만 불교의 장점을 정작 불자들이 모른다. 최근 불교계 내 사태를 보면 불자들조차 이런 다름을 인정하는 것을 잊은 듯하다.

Q: ‘다름을 인정한다’라. 좋은 말입니다. 다름을 인정함으로써 일상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습니까.

A: 다름을 인정하면 일상생활에서도 상대방과 다투려 하지 않게 된다. 나도 다른 사람과 늘 다툰다. 성질을 낼 때도 있지만 요즘은 상대방을 나에게 맞추지 않고, 내가 바뀌면 된다는 생각을 한다. 타인과 나의 다름을 인정하고, 내가 바뀌려고 노력하니 참 좋다. 현상이나 대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면 된다. 이렇게 바꿈을 수행하는 게 불교다. 다름을 인정하면 화쟁이 바로 이루어진다. 다름을 인정하다보면 공통분모도 발견 할 수 있다.

Q: 법조인 특성 상 다양한 의뢰인과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데 안 이사장님은 수행이 직장생활에도 영향을 준 부분이 많겠습니다.

A: 물론이다. 내 성격은 매우 급하고 화를 많이 낸다. 그래서 의뢰인이나 판사에게 영향을 많이 끼쳤다. 심지어 어떤 판사는 법정에 선 내게 살기를 느꼈다고도 했다. 1978년 변호사 개업을 하며 급한 성질에 스트레스를 축적하다보니 10년 만에 심장병이 발병했다. 혈관확장술만 6번을 받고 중환자실에 한 달 동안 입원해 있었다. 지금도 매일 아침 약을 먹고 운동으로 극복하고 있다.

당시에 퇴원 하자 어머니께서 단주를 주셨다. 화가 불쑥 날 때 단주를 만져서 화를 다스리라는 뜻에서다. 처음엔 잘 되지 않아도 꾸준히 연습하니 달라졌다. 나중엔 아예 손목에 차고 다녔다.

과거엔 단기수행 위주로 새벽 예불에 참가했지만 지금은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을 실천하고 있다. 일종의 습관화다. 걸으면서도 염불을 한다. 걸음을 걸으며 4박자로 나눠 염불을 하면 그 순간만은 번뇌가 사라진다. 번뇌가 끼어들 틈이 없다. 앉아서도 마찬가지로 염불 수행을 한다. 지하철에 있으면 염불수행과 더불어 호흡수행도 한다.

달라이라마로부터 수행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의 책을 20권정도 읽었는데 특히 〈The Art of Happiness〉란 책이 인상에 남는다. 우리나라엔 〈달라이라마의 행복론〉이란 제목으로 번역됐다. 원서로 읽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이 책에 나온 게송을 딱 듣자마자 이 말이 원래 부처님 게송 자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처님은 신 중심 브라만교를 향해 인간 중심의 종교를 천명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부처님 탄생게는 불교가 인간 중심임을 알게 한다. 인간을 둘러싼 천지가 괴로움이기에 해탈을 해야 한다는 게 불법의 근본인데 사람들은 자꾸 이 사실을 잊는 것 같다.

Q: 고희를 넘긴 세월동안 오래 수행했기 때문에 얻어진 깨달음 같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그게 잘 안됩니다.

A: 그러니 더욱 수행을 해야 한다. 불교는 지혜와 자비의 종교다. 그런데 지혜가 헛되면 교만해진다고 누군가가 말했다.

불교는 수행의 종교다. 수행 방법이 매우 다양하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수행은 습(習)이다. 사람들은 ‘상습’이란 말을 안 좋은 경우에 사용하지만 수행은 ‘상습’이 돼야 한다.

> 다름을 인정하는 게 불교만의 특징, 정작 불자들부터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



달라이라마는 이에 대해 많은 법문을 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갓데 갓데 파라갓데)’로 시작하는 익숙한 법문이다. ‘조금씩 나아가자. 수행으로 하루 이틀, 몇 년 안에 깨달음을 얻을 거라 생각하지 말자. 이번 생에 못 깨치면 다음 생에, 또 다음 생에 깨친다는 생각으로 수행하자’는 의미다. 달라이라마 본인도 매일 새벽에 오체투지를 하고 명상수행을 한다. 젊으나 나이가 들어서나 수행은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새벽마다 ‘As long as space endures, as long as sentient beings remain, until then, may I too remain, and dispel the miseries of the world(우주가 존재하는 한, 중생계가 존재하는 한, 나도 같이 존재하며 세상 속 불행을 떨쳐내리라)’란 게송을 암송한다고 한다. 이는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단 다짐으로 〈금강경〉에 나오는 말이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신앙을 가진 이, 특히 불교인의 자세다.

달라이라마의 말처럼 습이 안 되면 수행이 안 된다. ‘자리이타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말하지만 조계종의 목표는 상구보리 쪽에 치중돼 보인다. 어떻게든 빨리 깨우치려고 한다. ‘어떻게, 뭐로 깨우치냐’고 묻는 것이 불교를 망친다.

기복불교가 나쁜 건 아니다. 행복 추구가 종교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다만 중생을 위해 회향해야 한다는 생각,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자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항상 이타심 · 보리심 · 자비심에 기반해 행동해야 한다. 자신의 의무는 행하지 않고 기복만 하니 문제다.

이는 우리가 함께 모여 수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스님들도, 재가자도 모두 함께 모여 수행하지 않는다. 각자 자기들의 법문만 들여다보고 있다. ‘함께하는 수행(Practice Together)’이 다시금 필요한 때다.

Q: 불교 현실을 보면 이런 수행풍토는 약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가자들이 소외되고 사부대중이 아닌 비구 중심의 일부중 체제가 공고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교계 현실을 어떻게 보십니까.

A: 불교계 곳곳을 보면 숨어있는 능력자, 특히 재가자들이 많다. 왜 재가불자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일까.

최근 현각 스님의 비판을 보면 그 이유가 잘 드러난다. 상명하복식 문화, 남녀차별, 신도무시 및 기복신앙을 이용한 물질추구가 문제다.

여기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상명하복식 관습이다. 현각 스님의 경우 ‘과잉 순종(hyper-conformity)’이라고 표현했다. 한국불교 세계화에 앞장 선 숭산 스님은 열린 불교를 지향해 외국인 제자 스님들에게 한국말을 배우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현재 교단에선 외국인 스님들에게 불교 교리보다는 한국어 공부에 더 치중하라고 떠민다. 언젠가 점심 공양을 받는데 푸른 눈의 외국인 승려가 밥그릇 시중을 하더라. 불교전통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획일화이고 이들의 특성을 죽이는 일이다. 이런 문화 속에서 발전적 시도가 있기 어렵다.

문제는 또 있다. 사부대중이란 말을 쓰면서도 여전히 모든 것들이 비구 스님들 중심으로 돌아간다. 난 1994년 월주 스님이 총무원장으로 있을 때부터 현재까지 22년 간 조계종 법률자문을 맡고 있다.

어느 날 법장 스님이 총무원장 일때 건의사항이 없냐고 물었다. 나는 딱 한가지를 말했다. 비구니와 재가자를 총무원 부 · 실장급 인사에 넣어달라고 말이다. 말로만 사부대중 공동체라고 하지 말고, 인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는 주문이었다. 당시에 이 의견이 종무회의에 올라오고 난리가 났다. 특히 재무부장직을 재가자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에 난리가 났다. 그 이후 비구니 스님이 문화부장을 맡게 됐고, 현재는 재무부장직을 맡지만 재가자의 참여는 요원하다. 재가전문가들이 종단 실무를 맡고, 스님들이 문화 · 복지 · 수행에 전념한다면 불교발전이 보다 빨라지

대원 문재현 선사님 76번째의 서적 출간!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 · 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화엄경1권
화엄경 전자책 1권부터 5권까지 무료 공개!!
신간!
www.zenparadise.com 에 다운로드 방법 공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은 선문염송 30권, 전등록 30권을 모두 역해하여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하였다. 이러한 안목으로 대천세계를 손바닥의 겨자씨들여다보듯 하신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신통으로 누리는 불가사의한 화엄세계를 열어 보였다.



바로보인 유마경
유마경은 가히 불법의 최정점을 찍는 경전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 대원선사 토끼뿔 〉로 유마경에 걸맞는 최상승법을 이 시대에 다시금 드날렸다.

도서출판 문젠 (구,바로보인) ☎ 031-534-3373

천지운명
건강 120세
여러분들의 건강이 수록 되어 있는 책!
“병들고 답답하면 찾아오세요” 상담 환영



무령 엮음 | 신국대판 | 730 페이지
정가 150,000원
※ 스님 특별우대

이 책에는 수백년부터 선조님들로부터 내려온 민간요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중국을 오가며 수집한 중국 민간 요법을 번역하여 수록했으며, 각종 약제 사용하는 방법 및 민간요법뿐만 아니라 효소(발효)담그는 방법 약 3,000여가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아파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면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합니다. 또한 누구나 다 원하는 바 일 것입니다. 그래서 소승은 온 국민이 건강을 지키시라는 큰 발심을 하여, 오래전부터 중국을 오가며 한방이라던지 민간 요법 효소담그는 법을 연구해 온 것을 이 책 속에 수록한 것입니다. 부디 ‘천지운명건강 120세’책이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가보로 자리매김 하기를 발원하며, 불자 온 국민 여러분들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길 기원합니다.

1 어떠한 병이라도 민간요법으로 치유할수 있음을 사실 그대로 이 책자에 수록 되어 있습니다.
2 특히 기관지 천식, 심장병, 피부병에 관한 민간요법이 탁월합니다.
3 명절 선물용으로 최고로 실속있는 책자이며, 어느 집이고 꼭 필요한 민간요법서 입니다.

H·P 010-4496-6060 / 팩스 043)881-1359
입금계좌 : 농협 351-0862-7188-33 (예금주 : 천운사)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놀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기복불교 벗어난 신행·교육·포교 한국불교 비전위한 3박자



안동일 명예이사장은… 1940년 태어난 안동일 이사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거쳐 서울대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했다. 붓다클럽(현 동산로터스) 총재,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홍익법무법인대표 변호사, 조계종 법률고문 및 중앙신도회를 맡고 있다. KBS, MBC 라디오칼럼을 진행하기도 했으며 동산반야회 명예이사장이자, 전국염불만일회 회장으로 있다.

지 않을까.

마지막 문제는 조계종이 너무 간화선 중심으로 치우쳐있다는 점이다. 한방향에 몰두하다보니 모든 것들이 고답적이고 어렵다. 현대적이고도 진취적인 포교 · 교육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여기에는 재가자의 책임도 있다. 스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니 기복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재가자들도 깨어나야 한다. 신도활동을 제대로 해야 한다. '삼개개고 아당안지'의 수행은 부처님 만의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하는 수행이 되어야 한다.

법인 스님과 조성택 교수 등이 주축이 되어 매달 개최하는 향상포럼은 재가자 활동의 모범적 예라고 생각한다.

Q: 이사장님은 故김재일 법사가 창립한 동산반야회, 동산불교대학을 맡아 30년 넘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동산반야회의 경우 故김재일 법사가 설립한 이래 교육과 신행의 병행, 그리고 불법의 실천이라는 운영방침을 확고히 지켜오고 있습니다. 1992년에는 한국불교 최초 2년 교육과정 불교교양대학을 개설하기도 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재가 교육기관의 명예이사장으로서 재가불자 교육의 중요성도 크게 체감하고 계실 듯합니다.

A: 1980년 10 · 27법난 이후 언론이 불교계를 폄하했을 때 재가자들이 맞서 나섰다. 당시 재가불자 모임들이 우후죽순 결성됐다. 그 때 동산반야회도 결성됐다. 현재 당시의 재가불자모임은 거의 다 사라졌는데, 동산반야회만 건재한 것은 법주이셨던 무진장 스님과 故김재일 법사의 원력 덕분이다.

동산반야회가 오래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무진장 스님이 행정과 교육을 철저히 분리했기 때문이다. 82년부터 92년까지 10년 동안 일반교리 강좌를 하는 등 무진장 스님은 교육에만 전념했다. 행정은 김재일 법사에게 다 맡겼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관계는 이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정의 대부분을 전문재가자들이 맡는다면 승단의 남는 역량은 오롯이 교육과 신행에 투입할 수 있다.

Q: 안 이사장님이 동산반야회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A: 1990년대 아버지가 갑작스레 돌아가시고 마음을 다잡으려고 본격적인 불교 공부에 빠져들었다. 그러던 어느날 우연히 동산반야회를 알게 됐다. 2년 과정에 18개 과목을 가르치는데 교수진이 대단했다. 지금도 교수진이 좋으니 사람들이 몰린다. 불교학과 이외에도 명상, 불교 미술, 다도학과 불교의식반, 범패반 등 다양한 학과들이 신행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교육생들이 줄지 않고 꾸준히 온다.

특히 '나이들어 하는 공부는 불교 밖에 없다'는 슬로건을 걸고 난 후론 더 많이 찾아온다. 요새는 정년이 낮아져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Q: 동산반야회는 매년 염불결사를 하는 등 대중 신행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염불에 주목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염불은 정견에 이르게 하는 가장 쉬운 길이다. 동산불교대학서부터 아미타불 염불을 했고 108배와 함께 쭉 해오고 있다. 대중적 수행방법 중에 염불만한 것이 없다. 용수 보살이 이행도(易行道)라고 했을 만큼 〈아미타경〉은 무문자설경이다. 원효대사도 마지막엔 염불을 강조했다. 옛날엔 사찰마다 염불당이 있었는데 요새는 없어진 것 같아 아쉽다.

동산반야회가 주축을 이루는 전국염불만일회는 이런 염불 원력을 모은다는 의미가 있다. 만일염불의 역사는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국 통일 이후 혼란한 민중의 정신적 귀의처가 되자는 목적으로 열린 것이 염불결사다. 제5차 결사는 1908년 한일강제합방직전 우리민족이 암울했던 시기에 개최됐다. 1998년 IMF 직후에는 제6차 결사가 이뤄졌다. 이렇듯 민족이 힘들 때 염불수행의 힘으로 이겨내고자한 결사다. 올해는 통도사서 8월 19일부터 염불을 한다.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불보사찰에서 2~300명이 한자리에 모여 장엄염불을 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염불만일회는 1년에 한 번씩만 모이므로 지속적 수행을 위해 매일 스스로 1000번 이상 염불하기, 108배 하기, 매월 보시하기 등을 세워 실천하고 있다. 염불은 하루에 만 번 이상 하는 것 같다. 걸으면서 호흡마다 염불을 외우기 때문이다.

최근 염불수행과 함께 그림그리기에도 푹 빠져 있다는 안동일 이사장. 안 이사장은 그림을 그리는 순간 완전 집중하게 되고 이게 바로 염불삼매와도 같다고 했다. 그래서 그럴까 그의 그림 속에는 수행과 회향으로 화합하는 우리들의 삶이 만다라로 펼쳐져 있었다.

출 · 재가 역할분담 강조

출가, 문화 복지분야 활동
재가, 종단실무 및 운영
수행과 실천은 '모두 함께'

재가자 수행은 염불 추천

염불, 가장 쉬운 수행법 중 하나
매일 1000번 염불, 108배 등 서원
민중 귀의처로 불교수행법 제시

전법일기

병원법당을 수행처로 삼으며

병원포교 원력을 세우고 병원을 법당삼아 수행한지 올해로 30년이 됐다. 감회가 새롭지만 그 과정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기도 하다. 첫 시작은 작은 사명감 하나였다.

"스님, 죄송합니다. 저는 더 이상 불자가 아닙니다."

평생을 불자로 정진하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병상에서 개종하는 모습을 목도했다. 자세한 이유는 묻지 않았다. 그 분도 얼마큼 고심했겠는가. 아마도 불교가 싫어서는 아니었을 것이다. 다만 내가 아플 때 그토록 믿어왔던 종교가 주변에 없다는 게 안타까워서가 아닐까 싶다. 이때 병상에 있는 불자들에게 하루바삐 부처님의 자비를 전해야겠다는 원력을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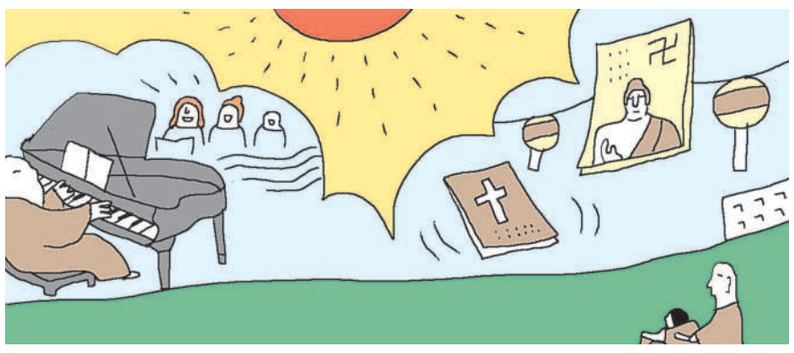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수많은 우여곡절의 한가운데서 예상할 수도, 종잡을 수도 없는 일이 있었지만 난감하면서도 감사한 기억은 첫 봉축법회 피아노 사건이다. 당시 병원에는 멋진 피아노가 있었는데 교회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봉축법회에 사용할 수 없었다. 결국 합창단은 피아노 반주 없이 눈물로 봉축법회서 음성공양을 올렸다. 하지만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처럼 어느 불자님이 피아노를 기증해주셨고, 종교를 초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셨다. 그 피아노는 현재 병원 로비 한쪽에 자리 잡고 있다. 환우들을 위한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에서 그 위용을 뽐내며 사람들에게 감미로운 선율을 전해주고 있다.

달력 사건도 잊을 수 없는 기억 중 하나다. 법당에서 병실에 신년달력을 걸어놓으면 다음날 이웃종교 달력으로 바뀌는 등 종교간 갈등의 골이 깊었다. 특히 초파일을 맞아 문마다 연꽃을 만들어 붙였는데 누군가 찢어버리는 사건도 비일비재했다. 결국 병원장에게 각 종교가 모이는 자리를 부탁했고, 이를 바탕으로 달력에 대한 서로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한 달력에 각 종교실 안내를 하고, 비용과 설치를 매년 돌아가며 책임제로 하자는 합의는 1999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돌이켜보면 가슴 설레고 소중한 기억들이 늘 나의 수행에너지가 됐다. 어느 날은 불서와 일반도서, 동화책, 시집 등 많은 책을 분류하고 대출카드를 만드는 작업을 했다. 그날은 작업이 늦어져 상좌 무관과 함께 병원법당에서 잠을 잤다. 방석을 깔고 이불도 없이 잠을 청했는데 다음날 일어나보니 얼굴이 퉁퉁 부었다. 웃지 못할 이 일화는 지금도 병원법당 후배스님들에게 가끔씩 들려주곤 한다. 그 시절 이런 열정이 이어져 지금까지 병원법당을 수행처로 삼아 포교할 수 있도록 이끌었기 때문이다.

병원법당을 지키며 만난 인연 중에는 가족 간 신행활동 방법을 두고 갈등을 빚는 일이 꽤 많았다. 그럴 때마다 환자 본인은 주변인들의 서로 다른 주장에 더 혼란스럽다는 탄식을 내뱉곤 했다.

이럴 때는 환자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얘기했다. 환자 스스로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따르면 본인의 신행활동을 결정하는 데 혼란을 느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불자들이 심신의 안정을 찾고, 무종교인이 불교에 관심을 갖게 하는 데 병원지도법사의 역할은 작지 않다.

그동안 불교계는 포교방법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왔지만 정작 병원포교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병원법당을 수행처로 삼았던 내가 책임감을 느끼는 부분이기도 하다. 현재 전국에는 40개가 넘는 병원법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 그분들을 중심으로 병원포교에 적용 가능한 포교방법론과 서비스 프로그램 연구가 시작되길 발원해본다. 〈끝〉



성범 스님(서울 경찰병원 경승실장)

자성을 찾아가는 근본불교

제 1 기생 길 따라 절로 가는 설봉포교원
6개월 과정 신입생 모집

화엄경(華嚴經)반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반 ~ 9시까지

반야심경(般若心經)반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반 ~ 9시까지

• 입학식 : 9월 18일 일요일 오후 2시

공부하는 날
• 화 엄 경 반 : 9월 20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 반야심경 반 : 9월 21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근본불교(根本佛敎)의 기본사상(基本思想)과 진여실상(眞如實相)을 화엄만다라(華嚴曼荼羅)와 반야(般若)의 지혜바라밀(智慧婆羅蜜)을 실천수행 하므로 즉신성불(卽身成佛)하는 참 불자(佛子), 법우(法友)의 법연(法緣)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 준비물 : 간편한 복장, 필기도구, 신청서

대한불교 조계종 관음사 설봉포교원
ㅁ주소 :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131-5번지
010-5660-3653 주지스님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세상은 모두 眞如 하나의 모습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지관문(止觀門)의 수행은 결국 진여(眞如)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다. 지관(止觀)을 성취하면 진여삼매(眞如三昧)를 얻는다.

본문에서는 이 진여삼매에 의해 법계가 하나의 모습임을 알게 된다고 하였다. 이 말은 모든 존재의 세계가 그 근본이 하나라는 사실을 삼매에 의해서 비로소 안다는 말이다. 이른바 부처님들의 법신이 중생들의 몸과 평등하여 둘이 아니므로 이를 일행삼매(一行三昧)라 한다 하였다. 일행삼매란 진여법계의 평등한 모습을 진실 그대로 하나로 관상하는 삼매이다. 이 삼매의 근본이 바로 진여이다.

만약 누구라도 이 진여를 닦으면 차츰 차츰 한량없는 삼매가 생기게 된다. 모든 중생들이 누구나 그냥 그대로 깨달은 자의 진리의 몸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있다.

그런데 본론에서는 이 삼매의 경지를 얻을 때의 주의할 점을 설명하고 있다. 마(魔)의 경계가 나타나 장애를 받는 경우다.

"혹 어떤 중생이 선근(善根)의 힘이 없으면 온갖 마군과 외도, 귀신들로부터 어지럽힘을 당하게 된다. 앉아 있는 가운데 모습을 나타내어 공포를 느끼게 하거나 단정한 남녀 등의 모습을 나타내는 수가 있는데 이때 오직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라 생각하면 경계가 곧 사라져, 마침내 괴롭히지 못하게 된다. 혹은 천인의 모습이나 보살의 모습을 나타내며 혹은 여래의 모습으로 상호가 갖춰진 채 나타나 다라니를 설하며, 혹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설하며 혹은 평등, 공(空), 무상(無相), 무원(無願), 무원(無怨), 무친(無親), 무인(無因), 무과(無果) 이어 필경에 공적(空寂)한 것이 진실한 열반이라 설하며, 혹은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 숙명을 알게 하며, 또한 미래의 일도 알게 하며, 남의 마음을 아는 지혜를 얻게 하며, 말하는 솜씨가 걸림이 없게 하며, 중생들로 하여금 세간의 명예나 이익이 되는 일에 욕심을 부리게 하며, 또 사람들로 하여금 자주 화를 내다가 자주 기뻐하게 하는 등 성격이 항상 안정됨이 없게 하며, 혹은 자애로운 마음이 많게 하며, 잠과 병이 많아서 그 마음이 게을러지게 하며, 혹은 갑자기 정진심을 일으켰다가 문득 그만 두게 하며, 불신의 마음을 내어 의심과 걱정이 많게 하며, 혹은 본래의 수승한 행을 버리고 잡된 일을 닦게 하며, 혹은 세상사에 집착하여 갖가지로 끌려 얽매이게 하며, 또 사람들로 하여금 삼매를 얻어 그럴듯하게 하게도 하나니 모두가 외도들이 얻은 바라 참된 삼매는 아니니라."

진여 닦으면 한량없는 삼매가
魔의 경계 나타남은 주의해야

선정을 닦는 중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마경(魔境)을 설해 놓은 대목이다. 〈능엄경〉 10권 가운데 9~10권이 전부 변마장(辨魔章)이듯 〈기신론〉에서도 마경을 매우 구체적으로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마(魔)는 원래 마라(魔羅, Mara)를 줄인 말로 살자(殺者), 탈명(奪命), 장애(障碍) 등으로 한역했는데 악마라는 뜻이다. 부처님이 보드가야의 보리수 아래서 정각을 이룰 때에도 마가 방해를 했다고 한다. 팔상도(八相圖)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정각을 이룬 것을 수하항마상(樹下降魔相)이라 말했다.

마(魔)가 나타나 천신의 모습이나 보살의 모습, 심지어는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도 나타나는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들로 나타나 그럴듯한 법을 설한다. 육바라밀을 설하고 혹은 평등하고 텅 비고,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도 없으며, 원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으며, 인과의 이치마저 벗어나 절대적으로 비워 고요하기만 한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열반이라 설하는 진짜 같은 그럴 듯한 사이비성 장면이 나타나는 수가 있다고 한다.

또 지나간 옛일이나 미래의 일을 알며, 남의 마음을 알기도 하며, 변재가 자유자재하고 그러한 것으로 세상의 명예나 이익을 얻으려 하며, 성격이 괴팍스러우며, 무절제한 생활을 마구잡이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가 하면 인정이 너무 많거나 잠이 많으며, 병이 자주 나며 그 마음이 게으르고, 혹은 갑자기 정진을 시작하다가 이내 그만 두고 신심을 잃어버려 의심과 걱정에 빠지는 수가 있다. 또 수행을 잘 해 오다가 그것을 버리고 잡된 일을 시작하여 세속적인 일에 집착하게 되어 여러 가지 일에 얽매여 삼매를 잃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모두 참된 삼매가 아니라는 것이다.

자비심 있는 보시만이 '涅槃樂'을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㉜보시에 필요한 것은

菩薩思念。我於往昔三界尊前聞解脫極樂。我今已證。何以故。稱意而施æ 是解脫。若阿羅漢解脫樂與悲心所起施樂相似者。我則愛之。若不相似我則不愛。唯愛施樂以為解脫。悲心起施所得快樂無有比類˚無悲心施解脫之樂百千萬分不得為喩。悲心起施所得喜樂。若當可以喩為喩。最為極大。是故不可為喩。(보살사념。아어왕석삼계존전문해탈극락。아금이증。하이고。칭의이시즉시해탈。약아라한해탈악여비심소기시락상사자。아즉애지。약불상사아즉불애。유애시락이위해탈。비심기시소득쾌락무유비류。무비심시해탈지락백천만분부득위유。비심기시소득희락。약당가이유위유。최위극대。시고불가위유。)

번역

보살은 생각하기를. "내가 지난 날 삼계에 존귀하신 분께 앞서 해탈의 극락에 대해 들었나니, 내가 지금 이미 증득하였노라. 어째서 그런가 하면, 의미인 즉은 보시가 곧 해탈을 칭하기 때문이라. 만약 아라한이 해탈로 즐겁다면, 더불어 자비심을 일으켜 보시하는 즐거움이 같은 현상이기 때문이라. 내가 곧 사랑하노니, 만약 같은 현상이 아니라면 내가 사랑하지 못하였으리라. 오로지 사랑과 보시의 즐거움으로써 해탈을 삼으리라."합니다. 자비심으로 일으키는 보시라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나니, 비유할 종류가 없습니다. 자비심의 보시 없이도 해탈의 즐거움을 얻는다는 것은 백천만 분의 비유도 되지 못합니다. 자비심을 일으킨 보시라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나니, 만약 마땅한 비유로써 비유를 삼을라치면 최상이어서 지극히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비유를 삼기에 불가능합니다.

해설

수행자는 깨달음을 추구한다. 깨달아 아라한이 되고자 한다. 깨달은 이에게는 번뇌를 벗어난 해탈의 즐거움이 있다. 이것을 극락(極樂)이라고 부른다. 극락은 하늘에 있는 이상향이 아니라 깨달은 이가 얻게 되는 즐거움이다. 보통 깨달은 이가 얻게 되는 즐거움을 상락아정(常樂我淨)이라 한다.

열반의 네 가지 덕을 사전적으로 말하면 첫째, 상(常)은 열반의 경지는 생멸 변천함이 없는 덕(德)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락(樂)은 생사의 고통을 여의어서 무위안락(無爲安樂)한 상태의 덕을 의미한다. 셋째, 아(我)는 망령된 집착심인 아(我)를 여의고 여덟 가지로 자유자재함이 있는 덕을 의미하며, 넷째, 정(淨)은 번뇌의 더러움을 여의고 평안한 청정의 덕을 의미한다.

그런데, 제바라보살은 보시의 즐거움이 바로 해탈의 즐거움과 같다고 본문을 통해 일관되게 말한다. 깨달은 아라한이 얻는 해탈의 즐거움은 자비의 마음으로 하는 보시의 즐거움과 같은 경지라고 말한다. 그래서 보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하며, 중생을 사랑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고백한다.

자비의 보시가 곧 해탈로 가는 수행이며, 자비의 보시를 통해 얻게 되는 즐거움이 바로 해탈의 즐거움이며, 해탈의 맛이라는 것이다.

자비심의 보시는 비유하려고 해도 지극히 광대해서 비유할 것이 없어 넋을 놓아야 하는 경지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날마다 좋은날

날마다 좋은 날, 누구나 즐겨 쓰는 말이다. 그 어원을 살펴보면 〈벽암록〉6칙에 운문선사의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하루는 운문 스님이 대중을 향해 법어(法語)를 하면서 대중에게 묻는다. "보름 이전은 묻지 않겠지만 (十五日 以前不問汝) 보름이후를 한마디로 요약해 일러보라.(十五日 以後 道將 一句來)"

대중이 답이 없자 운문 스님이 스스로 답하길(自代云) "날마다 좋은날(日日是好日)이지."

이쯤해서 사족(蛇足)같겠지만 가볍게 언급할게 있다. 어떤 스님은 그의 저서에서 '지나간 허송세월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으나 앞으로의 마음 각오에 대해 한마디 일러 보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또 어떤 스님은 '일일시호일 (日日是好日)을 날마다 생일날'로 좁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하고 명쾌한 것은 깨닫기 이전과 깨달은 이후를 물은 것이고 운문 스님의 자답(自答)은 생일날이 아닌 '날마다 좋은 날'이 옳은 해석인 것이다. 중국에서 생일은 그대로 생일(生日)로, 좋은날은 호일(好日)로 사용하고 있음을 참고로 밝혀둔다.

인생엔 영원한 행복도 불행도 없다
'日日是好日'은 '텅 빈 충만'서 비롯

깨닫기 이전과 이후를 한번 살펴보자. 깨닫기 이전엔 일체 모든 것이 변화하여 제행무상 (諸行無常)을 느끼지만, 깨닫고 보면 움직이고 변화 하는 것이 그대로가 아름다워 제행유상(諸行有常)이 되는 것이다.

일체 모든 것이 괴로움 덩어리로 다가오지만 (一切皆苦) 깨닫고 보면 어느 것 하나 즐겁고 아름다우며 소중해지는 일체계락(一切皆樂)이 되는 것이다.

하여, 모든 현상계와 실상의 존재자체에 나(我)라고 내세울 영원한 내가 없어 제법무아(諸法無我)라 믿고 있었지만 깨닫고 보니 두두물물 (頭頭物物)이 나의 분신(分身)이요 산하대지 그대로가 나(我) 아님이 없는 제법유아(諸法有我)가 되는 것이다.

끝으로 수행의 완성인 열반적정(涅槃寂靜)의 세계는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발길 닿는 곳이 정토(淨土)요 이르는 곳이 세상의 중심으로써 자유와 행복을 오늘의 현장에서 누리는, 당생극락(當生極樂)이 열리는 청정정토(淸淨淨土)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는 어제에 미련을 두거나 내일에 기대를 걸지 않는 오늘의 종교다. 지나간 것은 모두 전생(前生)의 일이요 영원한 오늘만이 열려 있어 오늘의 주인공에 이르는 길을 불교의 경전은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다.

다시 날마다 좋은 날로 옮겨가보자. 날마다 좋은 날은 누구에게나 희망의 바램일 것이다.

그러나 세상이 빛과 어둠으로 반반 나뉘어 있듯 영원한 행복도, 영원한 불행도 본시부터 없는 것이다. 사바세계라는 말이 의미하듯 절반은 즐겁고 절반은 괴로운 게 우리네 인생의 바른 대답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배(船)나 버스를 타지 않고도 방안에 앉아서도 심한 멀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남편과 아내, 자식들이 있어도 때로는 뼈끝까지 아려오는, 타는 목마름의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돈과 명예로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을 수 있고 윤리와 도덕을 다아 벗어버린 벌거숭이의 상상이 더러는 위로가 될 수도 있을 터이다.

사람은 누구나 보다 나은 행복을 위해 살아간다. 탁 트인 자유를 갈망하며 평화로움의 일상을 꿈꾼다. 종교와 신앙 쪽으로 기우는 것도 나의 행복, 나의 자유를 위해서다. 눈, 귀, 코, 입이 작동하고 있어 끊임없는 욕구가 불길처럼 타오르고 몸과 의식의 분별작용이 소유욕으로 병이 든다.

사람이 앓는 모든 병의 원인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버리고 비워야 편안하다. 꾸밈과 조작이 없어야 평화롭다. 집착과 소유욕은 모든 병을 키우는 원인이 된다. 날마다 좋은날이 텅 빈 충만에서 비롯됨을 잊지 말 일이다.

쉽지는 않겠지만 할 일도 없는 사람보다는 할 일 없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할 일도 없는 사람은 목마른 사람이지만 할 일 없는 사람은 평화로운 사람이기 때문이다. 일을 만들고 일을 꾸미는 작업은 반드시 그림자를 남긴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빛은 빛인 대로 어둠은 어둠인 대로 자연인의 삶이 아름답다. 행복과 자유는 머묾 없는 머묾이 이뤄져야 날마다 좋은 날이 될 터이다.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지킴이 염주 세트
직경 8㎜
· 구 성 : 108염주 + 희담석지킴이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2㎜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0㎜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www.hyunbulshop.co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 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승려 분한신고 및 사찰재등록 신청 공고

귀의삼보하옵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종단 종도 여러분의 사암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총무원은 종단 행정의 재정비와 본 종단의 종도로서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코자 하오니 종도 여러분은 기한 내 재등록을 하시여 사암의 주지로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에 관심과 동참을 원하시는 스님들께서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더불어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소속으로 있다가 제적, 탈종된 승려도 분한신고를 하면 구제 하고자 합니다.

아 래

① 실시기간 : **2016년 7월 28일 부터**
② 접수마감 : **2016년 9월 29일 까지**
③ 구비서류 : · 본 종단 승려분한 신고 및 사찰재등록 신청서 ····· 각 1부
· 주민등록증 사본, 등본 (3개월 이내) ····· 각 1부
· 사찰등록증, 주지임명장, 이력서 각 1부 · 승려증 · 증명사진 3매
④ 접수장소 :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총무원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 1095번지)
⑤ 전화번호 : 054-974-2605 / 팩스 : 054-974-2705

※ 위 기간에 분한신고 및 사찰 재등록을 필하지 않을 경우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의 종도로서 지위를 인정치 않으며 세무서에 통보함과 아울러 사찰등록증 취소 및 말소 처리 하오니 이점 유의 하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분담금이 1년 이상 미납된 사찰과 종단에 비협조적인 종도와 사찰은 정리되며 신문에 공지 합니다.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총무원

우연히 긋는 선에서 禪을 마주하다

禪과 현대미술
⑮ 사이 톰블리(Cy Twombly)



톰블리의 작품 〈Ohne titel, Wandfarbe und Bleistift auf Leinwand, 1968〉는 그의 자유로운 정신 세계를 확인할 수 있다.



작품 〈Ohne titel, Oel Bunstift und Bleistift auf Leinwand, 1962〉는 계산되지 않은 행위를 통하여 나타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보여준다.

일상의 삶에서 누군가를 새롭게 만난다는 것은 커다란 변화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 특히 예술가들에게 당대의 좋은 예술가를 만나 교류한다는 것은 자신의 예술을 정립하는데 많은 도움과 가르침이 되기도 한다.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좋은 예술가들이 나오는 시대와 장소에 공통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특성과 더불어 시대의 정신성이 공유되며 서로에게 좋은 자극이 되는 경우이다.

사이 톰블리(Cy Twombly, 1928~2011, 미국)는 젊은 시절 로버트 라우센버그(Robert Rauschenberg)와 친하게 지내며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다. 또한 당대의 실험예술로 찬사를 받던 존 케이지(John Cage)와의 만남은 그의 예술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케이지의 실험음악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만의 회화작품을 만들어 가게 된다.

예술의 영역에 우연성, 즉흥성, 직관성, 반복성 등을 도입한 케이지의 실험은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는데 회화에서 톰블리의 우연성과 즉흥성, 반복성은 새로운 조형적, 미학적 개념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예술가의 예술행위는 어떠한 목적성을 내포하고 있다. 표현의 방법에 차이는 있지만 작가는 자신이 생각하는 인식의 관점을 창의적인 방식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때문에 우연성에 예술성이 있는가하는 논쟁은 계속되었다.

요즈음 인공지능의 발달로 많은 영역에서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 예술도 예외는 아닌 것처럼 보인다. 예술가의 정신이 들어 있지 않은 로봇의 표현에서 예술성을 찾을 수 있을까? 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필자의 견해로는 예술성의 가치를 찾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예술이 예술이기 위한 조건에서 시대정신, 창의성, 예술성 등을 중심으로 작품을 판단하는데 로봇이 하는 표현행위는 입력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 작품에서 위에서 거론한 세 가지의 가치를 발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현대미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작가의 정신성이다.

정신성은 개인적 특수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시대정신을 또한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시대정신이 포함되지 않은 작가의 작품들은 표현성만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표현기법과 비교가 가능할 수도 있다. 아마도 표현성만으로 보면 작가의 표현보다 로봇의 표현이 더욱 뛰어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연성에서 작가의 정신성의 발현이 내포될 때 예술성이 인정이 되며 나아가서 창의적인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무심히 하는 행위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고도의 정신성이 내포되며 독창적인 표현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마치 선사께서 깨달음을 묻는 사람에게 손가락을 들어 보이자 인사를 하고 가는 행동을 보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와서 깨달음을 묻자 똑같이 손가락을 들어 보이는 행위와 같다. 여기에서 손가락을 들어 보이는 행위는 동일하나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뜻은 전혀 다른 것처럼 우연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행위도 전혀 다른 의미를 내포하게 되는 것이다.

톰블리의 작품 〈Ohne Titel, Oel Buntstift und Bleistft auf Leinwand, 1962〉는 그의 정신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작품 중의 하나이다. 케이지의 영향으로 선에 많은 관심을 가진 톰블리는 선의 정신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가 이해한 선의 세계는 가장 원초적일 때 가장 정신적이라는 것이었다.

라우센버그·케이지와 교류하며
그들의 실험 예술작품에 영향

놀이하듯 무수하게 그은 선들
선 긋기로 작가와 선은 하나돼
톰블리, 禪통해 작품세계 확장
"禪, 작품 표현의 안내자" 찬탄

작가가 화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행위는 선긋기, 흘러내리기, 다시 지우기, 공간을 남겨두기 등으로 계산되지 않은 행위를 통하여 나타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잘 표현하기 위하여 여러 번 수정을 하는 것 같은 행위를 하지 않고 마치 놀이를 하듯이 무심히 하는 행위들이 하나의 흔적을 남기며 조화를 이루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작가는 의도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선을 긋는 순간 작가는 선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타나는 선은 자유롭다. 즉, 작가가 자유로워야 표현된 선도 자유롭고 관객도 관념으로 보지 않아야 그 자유로움을 느끼게 된다.

인간은 누구나 내면에 원초적 자유로움이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유로움이 스스로를 구속하는 현상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학습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자유로움은 점점 사라지고 자신의 굴레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수행자 적이라는 것은 이러한 스스로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생각한다. 누구도 자신을 구속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관념으로 굴레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자유를 갈망한다.

작품 〈Ohne Titel, Wandfarbe und Bleistift auf Leinwand, 1968〉는 톰블리의 원초적 자유로움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예이다. 반복되는 듯 하지만 끊임없이 변화한다. 즉 자신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으로 볼 수 있다. 하나의 선을 긋기 위하여 그는 많은 시간 명상을 하며 자신과 선이 하나가 되기를 염원한다. 이렇게 시작된 선긋기는 시간이 흐르면서 둘이 아닌 하나가 된다. 때문에 표현되는 선은 결코 어떠한 형상이나 의미로 자신을 구속하지 않는다. 내면에 존재하는 원초적인 감각들이 나타나며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것이다.

그에게 선은 수행이며 깨달음이다. 자신이 선을 긋는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행위는 스스로의 정신성을 발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선은 어느 정도의 흐름을 유지하며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우연히 드러나는 선의 모습에서 작가의 정신성을 인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톰블리가 이러한 작품을 하던 시대적 상황을 보면 마치 우연성을 가장한 장난처럼 보이기도 한다. 어린아이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데 아이는 무엇을 그릴지 몰라 그저 선을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와 유사해 보인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그린 선과 톰블리가 그린 선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어린아이들에게 이 작품을 보여주고 그려보라고 하면 어린아이가 더욱 잘 그릴 수 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아무런 관념적 사고가 없기 때문이다. 원초적 자유로움이 남아있는 아이들은 쉽게 이러한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표현된 형식의 특성을 통하여 작가의 정신성을 알 수 있는데 그 깊이를 가늠하는 것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어린이와 작가의 표현적 유사성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곧 정신성의 유사성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선의 종지 중에서 '불립문자(不立文字)'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동일한 문자를 사용하여도 사용하는 사람의 정신성의 깊이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마음을 전하던 선사들처럼 예술가 표현도 결국은 마음의 표현인 것이다.

선사들의 깨달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문자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 깊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깊이를 알아볼 수 있는 인식의 깊이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예술작품을 이해하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톰블리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불립문자, 이심전심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작가는 자신의 정신성을 예술성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명상을 하며, 관객은 작가의 예술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명상을 해야 하는 것이다.

톰블리의 이러한 자유로운 선에 대한 해석은 일부이기는 하지만 히피문화를 만드는데 일조한 부분이 있다. 히피문화는 전쟁에 반대하는 관점에서 시작이 되었으며 나아가서 삶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그들은 자유로움의 유혹을 마치 무질서로 혼동한 측면이 있으며 나아가서 허무주의를 표방하여 순간의 즐거움,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이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화현상이 일어나는데 예술가들 역시 기존의 표현방식에서 벗어나서 부드럽고, 자유로운 표현방식을 추구하였다.

새로운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은 모험이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처럼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길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과정에서의 힘든 역경은 극복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톰블리 역시 새로운 길을 가고자한 예술가 중의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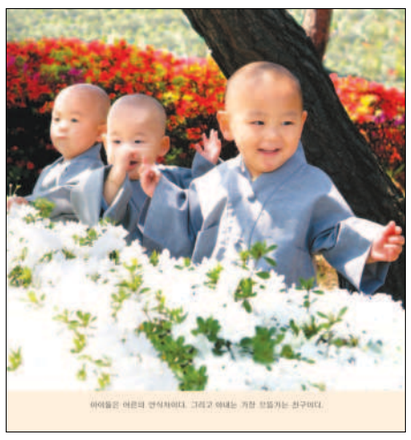
자신의 예술성을 인정받기까지 그는 많은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자신의 정신성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적인 평가를 받으며 그는 결코 현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기 시작하며 정신적 깊이를 추구하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점차 인정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시대의 흐름을 변화시키는데 커다란 일조를 하였다.

미국의 현대미술에서 커다란 역할을 한 그는 특히 추상미술의 정신적 가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가 중의 하나이다. 톰블리가 시대성, 정신성, 예술성을 정립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받은 것이 바로 선(禪)이었다. 그에게 선은 자신의 예술을 드러내는데 가장 중요한 안내자였으며 삶의 과정에서 존재가치를 찾아가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예술은 더 이상 표현적 기법이나 재료의 특성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며 정신적 가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톰블리는 보여주고 있다. 최근 한국의 단색화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도 이러한 작가들의 노력에 의하여 관객의 수준을 향상시켜놓은 결과물이라 볼 수 있다. 즉 훌륭한 작품도 이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면 사라지는 것처럼.



윤양호(원광대 선조형예술학과 교수)





12절(벽걸이형)달력
100부 이상 @ 1000 원
• 삼천부이상 @800원
• 규격 : 25.8cm × 26.5cm

한지달력 200부 이상 @ 1,800 원
• 정가 2,000원
• 규격 : 30cm × 63cm

수첩달력 200부 이상 @ 600 원
• 100부 @700원
• 규격 : 9.5cm × 13.4cm
• 매수:18장

탁상달력200부 이상 @ 1,800 원
• 정가 2,000원
• 규격 : 26cm × 19cm

미니달력 200부 이상 @ 450 원
• 100부 @500원
• 규격 : 8.9cm × 9.5cm
• 매수:16장



영가옷B형-남 정가 1,200원 영가옷B형-여



영가옷C형-남 정가 1,000원 영가옷C형-여



수자영가옷 정가 800원



동남영가옷 정가 900원 동녀영가옷



금강경탑다라니 정가 200원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동진기획·붓다쇼핑 ☎(051)515-8888
www.buddhashopping.com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올여름, 시원한 '불교 미술 투어' 어때요?

우리네 미술관 · 박물관 속에는 불교가 숨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관심을 갖고 보지 않았을 불자들이 대다수지만, 미술관은 볼거리가 가득한 곳이다. 더운 여름 휴가를 고민한다면 가까운 미술관을 찾아가보는 것이 어떨까. 이번 호에는 불교색채가 강하게 느껴지는 색다른 전시전을 소개한다. 노덕현 기자

제주에서 맛보는 고승의 향취

사회복지법인 춘강장애인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원장 조인석)에서 8월 24일까지 개최하는 고승 · 명인선서화전은 한국 불교사에 족적을 남긴 고승들과 현재 활동하는 스님들의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다.

이번 전시회는 조인석 원장이 오랜 불연으로 소장하게 된 70여점의 작품이 선보인다. 서옹, 월하, 일붕, 중광 스님 등의 선필과 지선, 범진 스님 등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창봉 박동규, 라석 현민식 등 현재 서단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서예가들의 작품도 함께 전시된다.

조인석 원장은 "오랫동안 소장해온 선필작품을 통해 부처님의 지혜와 가르침을 공유하기 위해 전시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문화예술원을 설립 불교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시전과 함께 야생초 · 꽃차 시음회도 함께 열린다. (064)732-0295





디지털 기술로 돌아온 수월관음

약탈 및 도굴에 의해 해외 반출된 우리 문화재 16만 점 중 국보급 회화 작품 7점을 디지털로 복원한 전시 '디지털 귀향' 전도 눈길을 끈다. 서울디자인재단, 디지털 귀향 추진 시민모임, 사랑의 종신기부 운동본부는 8월 31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로비 특별 전시장에서 '디지털 귀향' 전을 개최한다.

여기서 가장 인기가 높은 것은 디지털 고려 수월관음도. 전시장 한편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는 고려 수월관음도가 선명한 색상과 생생한 필치로 되살아났다. 스크린에 등장한 관세음보살의 옷자락이 살랑살랑 흔들리고 눈꺼풀이 슬쩍 움직인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디지털 귀향 추진 시민모임'과 '사랑의 종신기부 운동본부'는 "향후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를 디지털로 복원한 작품을 상설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국내에 만들어 국내에서도 언제든지 우리 문화재를 감상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2)2153-0000

현대 개념미술의 거장 김수자 展

불자 미술거장의 국내 전시전도 열린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내년 2월 5일까지 서울관에서 김수자 작가의 '마음의 기하학' 전을 개최한다. 김수자 작가는 백남준을 잇는 설치미술가로 이번 국내전시전은 4년 만이다. '마음의 기하학'은 관람객이 직접 참여해 작품을 완성시키는 퍼포먼스 설치미술로 어두컴컴하고 서늘한 전시장에서 관객은 찰흙으로 덩어리를 만든다.

어두운 곳의 시각, 찰흙을 주무르는 촉감 등 관객들은 안이비설신의 작용을 고찰하게 된다.

개념미술로도 불리는 이 분야에 대해 김수자 작가는 불교의 '선'에 가깝다고 스스로 표현한다. 2009년 런던 국제불교영화제에서 김수자 작가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무상에 관한 명상은 1980년대 초부터 늘 나와 함께했다. 특히 선불교는 내가 살면서 생각하고 기능하는 방식과 너무도 유사하다." (02)2188-6000





윤장섭의 마지막 성보를 보다

불교문화재 보존을 지원하고 이를 대중들에게 소개하는 일에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故 호림 윤장섭. 이번 전시는 그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다. 호림박물관의 서울 신사동 분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 '근대회화의 거장들-서화(書畵)에서 그림으로'에서는 20세기 초 · 중반 한국 근대미술사 중 불교계 거장의 작품들을 볼 수 있다. 호림박물관은 그동안 도자기와 고문서 명품들을 주로 전시해왔다. 이번 전시는 근대회화를 소재로 열리는 첫 기획전이다.

전시는 '산수' '사군자' '인물' '화훼' 등 총 4개의 전시실로 이뤄졌다. 제1전시실 '산수-와유에서 풍경으로'는 지역별로 구획된 게 특징이다. '예술의 고향'이라 불리는 호남지역의 소치 허련의 그림과, 쉽게 볼 수 없었던 개성 및 평양 출신 화단의 작품들을 볼 수 있다. 전시는 10월 29일까지. (02)541-3523

三寶사찰 통도사 국제불교박람회 참여

한국을 대표하는 삼보사찰 중 한 곳인 양산 통도사가 한국 사찰 중 처음으로 해외 박람회에 참여한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사무국은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불교박람회인 샤먼국제불사용품전람회에 참가할 14개 업체들이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 참여를 결정지은 업체는 14곳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올해 주목되는 점은 삼보사찰 중 하나인 통도사의 참여다. 사찰이 해외 불교 관련 박람회에 참여하는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통도사가 이번 샤먼국제불사용품전람회에 참여를 결정한 것은 한국불교와 한국사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함이다.

현재 중국인 불자들은 한국불교에 대한 관심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전통사찰의 겉만 살피는 형태의 관광이 주류를 이뤘다. 이에 최근 불자 유커(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불교의 진가를 체험할 수 있도록 관광의 형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사무국 측은 "통도사의 샤먼국제불사용품전람회 참여는 이런 기존의 관행을 바꾸고자 하는 첫 발"이라고 평가하며 "통도사는 이번 박람회에서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알리고 통도사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의 의미를 전할 수 있는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10월 20~24일 中 샤먼서 개최
총 14개 업체 및 작가 참여키로
한국불교 홍보 · 中 불자 관심 기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역시 이번 박람회에 참여해 통도사와 함께 한국불교만의 색깔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이번 박람회에서 3부스 규모로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을 비롯해 한국불교의 문화콘텐츠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한국불교뿐 아니라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도 함께 알리게 된다.

한편, 샤먼국제불사용품전람회는 약 11만 5천㎡ 규모의 전시장에 6,300여 개의 부스가 설치되며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호주 등 20개 국가에서 1,000여 업체가 참가한다. 매년 20~3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하루 평균 관람객 수 5만 명, 박람회 기간 전체 관람객 수 25만 명에 달한다. 올해는 10월 20~24일 샤먼 국제전람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2016년 샤먼국제불사용품전람회에 참가하는 한국관 부스 디자인 전경. 올해에는 사찰로서는 처음으로 통도사가 참여한다.

소아암 환우들 VR로 '문화재 탐험'을

國博 · 구글, 8월동안 서울대병원 대상 특별 수업

소아암 환우들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과 구글이 가상현실(VR)을 이용한 문화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구글과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의 주요 소장품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학교 어린이 환자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고 8월 1일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구글은 지난 2013년부터 세계 문화유산 온라인 전시 사이트 '구글 컬처럴 인스티튜트'(Google Cultural Institute)에서 주요 소장품을 온라인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협력해왔다. 최근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외관을 비롯해 불교조각실, 금속공예실, 청자실, 신라 시대의 황남대총 북부 금관과 허리띠 등 주요 전시실과 소장품을 스트리트뷰로 촬영해서 360도 파노라마 이미지로 구현하기도 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를 활용해 '신나는 문화재 탐험'이라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지난 5월 11일 신안선 보물선 탐험 프로그램으로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학교 어린이들에게 시범수업을 진행했다.

8월 여름방학 특별활동 수업으로는 총 4회(3 · 10 · 17 · 24일) 진행할 예정이다. 수업은 구글 익스피디션(Google Expeditions)의 가상현실(VR) 기술과 국립중앙박물관의 어린이 체험활동이 조화를 이루도록 구성됐다.

국립중앙박물관 측은 "앞으로도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학교의 소아암 · 백혈병 환아와 장기입원 어린이들에게 구글이 가진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박물관의 다채로운 콘텐츠를 즐겁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6.7.28~2016.8.2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교입문-도표로읽는	이자랑	민족사
2	알기쉬운 쏙쏙 능엄경	현담스님	도서출판선
3	어떻게 살 것인가(설정스님의인생법문)	설정,박원자	나무를심는사람들
4	틱낫한기도의힘	틱낫한	불광출판사
5	완벽하지않은것들에대한사랑	혜민	수오서재
6	지장기도(손으로쓰고마음으로그리는)	지원스님	민족사
7	스님의 비밀	자현/석공	(주)조계종출판사
8	최초의 불교는 어떠했을까-원시불교	나카무라하지메/일영	문예출판사
9	어라 그런대로 안녕하네	지찬스님	들녘
10	미산스님초기경전강의(개정판_양장본)	미	불광출판사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행복은 미래에 있지 않고 지금 발견하고 누리는 것"

용타 스님의 행복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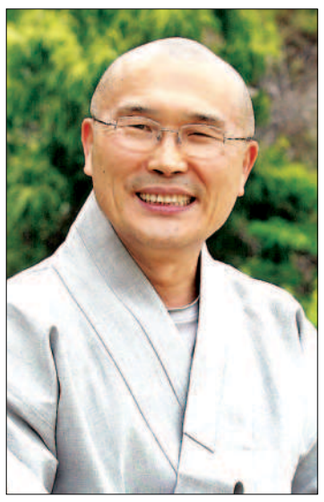
용타 스님 지음 | 행복마을 펴냄 | 1만 5천원



이 책은 동사섭 프로그램을 60강으로 나누어 소개한다.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며 하는 일을 간단하게 둘로 나누면 마음속의 일과 마음 밖의 일이 있다. 그 둘 중 동사섭은 마음속의 것을 다룬다. 저자가 지도하고 있는 동사섭은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속살이를 다각도로 조명하고 치밀하게 다뤘다. 이 책은 동사섭 프로그램을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소개해 동사섭 수련의 교과서나 복습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저자인 용타 스님〈사진〉은 책 속에서 "올해로 37년 된 동사섭 프로그램은 줄곧 업그레이드되었다. 하지만 그 지향점은 초지일관 우리 모두의 행복, 그것 하나였다. 행복은 동사섭의 목적이기 전에 인류의 목적이다. 지구의 70억 사람들은 오늘도 행복해지기 위해 아침부터 바쁘게 지낸다. 행복해지려고 마음속으론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마음 바깥에서는 생각한 그것을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하는 일을 간단히 둘로 나누면 마음속의 일과 마음 밖의 일이다. 이 두 가지 중에서 동사섭은 마음속의 것을 다룬다. 눈에 드러나기로는 마음 밖의 일이 월등하다. 그리고 우리들 대부분은 마음 밖의 일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 그러나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모두 마음의 투영이다. 영화 필름이 먼저 제작되고 나서 영화가 스크린 위에서 펼쳐지듯이 우리의 인생도 밖으로 드러나기 전에 마음속 작업이 선행된다. 즉 선행되는 속살이가 부실하다면 밖살이가 충실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동사섭은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속살이를 다각도로 조명하고 치밀하게 다루어 왔다. 이 책은 동사섭의 속살림법을 세분화시켜 안내하고 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수행의 길을 걸어오면서 거듭 확인한 것은 혼과 몸으로 경험해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야말로 예술을 뛰어넘는 예술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들은 섬세한 붓질로 탄생되는 그림 한 장, 수많은 악기가 어우러지는 음악 한 소절에 감동하지만, 그 어떤 색채보다도, 그 어떤 화음보다도 미묘하고 섬세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동사섭 프로그램 60강으로 세분화
논리적 순서에 따라 동사섭 소개
수련이나 복습 도구로 사용 가능
동사섭, 마음속 행복 추구 다뤄

우리 마음은 입술 위에 슬며시 번지는 미소 하나로, 혀끝에 스치는 단어 하나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다. 끝없이 추락하기도 하고 끝없이 고양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 마음이다. 천진무구한 갓난이의 마음이 극악무도한 흉악범의 마음으로 추락한다. 그런가 하면 동서남북도 모르던 갓난이의 마음이 궁극의 지혜와 지고한 사랑을 지닌 부처님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열려가기도 한다. 그렇게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것이 우리의 의식이며 우리의 마음이다.

무궁무진한 변화를 겪는 우리들 마음을 궁극의 경지로 성숙시키는 요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바른 가치관에 대한 이해와 그 이해의 반복적 학습이다. 바른 가치관에 대한 이해를 깨달음(先悟)이라고 한다면, 그 이해의 반복적 학습을 닦음(後修)라고 하겠다. 바른 가치관에 대한 이해는 한 순간에 일어나지만, 그것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닦음이 필요하다. 우리들은 김연아 선수의 기막힌 스케이팅에 뜨거운 갈채를 보낸다. 빙판 위의 그 모습이 되기 위해 김연아 선수는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을까? 스포츠서 하나의 기예를 익히는 데에도 그러한데, 우리의 인생을 완성해 가는 데는 얼만큼의 정성이 필요할까? 우리들은 지금껏 엄청 애쓰며 살아왔다. 다만, 성장하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추락하려고 애써왔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눈만 뜨면 그 즉시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렸어 하면서 분별하고 차별했으며, 자질구레한 이익을 두고 이기심을 갈고 닦는 기회로 삼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미 이루고, 이미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갈구하면서 쉴 새 없이 불만 수업을 쌓아 왔다. 말하자면 행복을 학습하면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줄기차게 불행을 학습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불행에 익숙해져서 불행이 쉬워지고 불행한 것이 인생이려니 여기면서 행복학습을 성가시거나 별스런 것으로 여기게 된 것이다. 입으로는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외치면서 실제로는 행복의 인(因)을 심은 것이 아니라 불행의 인을 심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행복학습을 시작하고 행복의 인(因)을 심어야 하지 않을까?

저자는 "세상에도 완고한 것이 사람의 마음 같지만 우리의 마음처럼 소프트한 것도 없다. 짐승들은 타락하거나 성장하거나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은 얼마든지 변화하고 성숙한다. 인생길서 만난 한 마디의 가르침이나 한 줄의 글, 한 번의 경험 또는 한 사람과의 만남으로도 우리들의 인생은 섬세하고 획기적으로 변화된다. 참으로 신비하고 신비한 것이 우리들 마음이다. 이 책이 행복을 찾아가는 이들에게 다정하고 친근한 친구가 될 수 있다면 저자로서는 더 바랄 것 없이 기쁠 것"이라고 출간 소회를 밝혔다. 이 책은 동사섭 프로그램을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소개했다. 그러나 60개 강의가 각기 완결적인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읽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염불 수행자들의 필독서

무량수경 심요

정공법사 강해 · 허만항 편역
비움과 소통 펴냄 | 3만 3천원



이 책 〈무량수경 심요〉는 하련거 대사께서 무량수경 5종 역본을 회집한 〈불설대승무량수장엄청정평등각경〉(무량수경 회집본, 또는 선본)을 경문으로 삼아, 그 요점을 풀이(요해)하고 강의록(강해)을 첨부한 국내서 번역된 가장 상세한 무량수경 해설서이다. 정토3부경 가운데 하나인 무량수경은 중국에 전래된 이래로 잇따라 12차례 번역됐는데, 7종의 번역본은 실전되었고, 현재 대장경 중에는 5종의 역본이 존재한다. 송대의 왕룡서 거사와 청대의 위원 거사 모두 회집본을 지었으나, 그들의 회집이 미진해 비로소 하련거거사의 회집본이 있게 됐다. 이 책은 1932년에서 1935년까지 보살계를 받은 불제자인 산동성 운성현의 하련거 거사(법명 자제)께서 대장경에 수록된 5종의 원역본을 회집해 이룬 것으로 전체 경전을 총괄하여 48품으로 나누었다. 무량수경 회집본 요해는 〈불설대승무량수장엄청정평등각경해(대경해)〉 저자인 황념조 거사의 어록집 〈심성록〉에 실린 〈무량수경 선본의 대사인연〉을 번역해 게재했다. 이것은 무량수경 회집본 전체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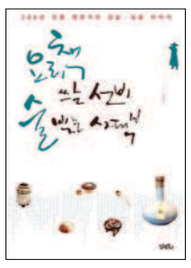
무량수경 회집본 강해는 정공 법사께서 1998년에 저술한 〈대승무량수경간주이해〉를 기본 텍스트로 삼고, 1991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서 강연하고, 1994년 징메이 화장도서관 싱가포르 거사림서 펴낸 〈불설대승무량수장엄청정평등각경강기〉를 보조 텍스트로 삼아 편역했다. 부록에는 무량수경 회집본을 증명해준 해현 노화상의 일대기와 가르침을 담았다.

115세로 왕생한 해현 화상께서는 무량수경 회집본이 말법시대 수행의 소의경전임을 일생 전체를 통해 증명해준 정종의 대덕으로, 삼불사서 2014년 간행된 〈내불영사집〉 서문을 번역해 실었다.〈무량수경 심요〉는 이생에 윤회를 벗어난 깨달음의 세계인 극락정토에 화생해 무생법인을 증득한 후 마침내 성불하려는 염불 수행자들의 필독서이다. **김주일 기자**

전통 이상을 만드는 종가의 미래

요리책 쓰는 선비, 술 빚는 사대부

김봉규 지음 | 담앤북스 펴냄 | 1만 7천원



〈요리책 쓰는 선비, 술 빚는 사대부〉는 미식가와 애주가를 사로잡는 종가 음식 43가지를 소개하는 음식 책이기도 하다. 종가의 고장 안동부터 의정부와 모악산 사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다과상, 제사상, 손님상 차림은 물론 반주 상차림까지, 좋은 재료만 쓰고 아낌없이 베푸는 종가 음식 기행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옛 지혜가 살아 숨 쉬는 술상과 밥상 차림에서 食도락, 酒도락을 느껴 보자. 읽다 보면 혀끝에 와 닿는 조상들의 정신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집 간장은 이 지구상에서 최고 맛일 거야. 금방 지은 고슬고슬한 쌀밥에 우리 집 전독간장을 넣고 비벼 먹으면 다른 반찬이 없어도 맛나게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거든."

미식가 사로잡는 종가음식 43가지
종가문화, 과거와 현재가 만난 지점

명인 안동소주는 세계적 위스키 생산을 목표로 2015년 오크통 20리터짜리 80통을 수입해 안동소주 숙성을 시작했다. 박 명인은 안동소주가 어떤 위스키보다도 좋은 술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으리라고 확신한다. 종가 문화를 지키는 건 종손뿐만이 아니다. 종손, 종부, 남녀와 관계없이 지금도 내림음식과 내림술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다. 딸에서 아들에게, 아들에서 딸에게로, 딸에서 딸에게로 등등, 전통은 다양한 갈래로 전해진다.

대중에게 내림음식과 내림술을 소개하려는 후손들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전통 부각'을 판매하는 거창 사증종가와 '죽염장'으로 유명한 담양 양진제 종가처럼, 기업이 된 종가 이야기도 살펴볼 수 있다. 이제 종가의 문화는 사라져 가는 소중한 것들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지점이다. 그동안 종가의 이미지가 전통, 고급 음식에 국한돼 있었다면 이 책에서는 현대적인 종가, 대중 지향적인 종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김주일 기자**

이것이 수행의 길이다
중국 동화선사 만행스님 수행서

6조 혜능, 람몽대사와의 기연!!
이론은 실천을 대신할 수 없으며, 단지 돌아갈 길을 단축시켜 걷게 할 뿐이다.
속세의 일에 성심성의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무문관 안에서도 성심성의로 임할 수 있다.
22살에 시작한 7년간의 무문관 장좌불와!! 생과 사를 넘나든 혹독한 수행.



7년을 동굴 속에서 장좌불와한 경험을 기록한 것이 마음의 달이고 출관한 뒤에 동화사를 복원 중창하면서, 주간에는 신도들과 함께 동화사의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야간에는 신도들에게 설법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항복기심, 선용기심, 기심무주 세권의 책으로 출간.



마음의 달 Ⅰ·Ⅱ ▶ 가격 : 각권 1만원
7년간의 무문관 수행끝에 성품을 본 만행스님의 수련과 깨침의 과정
그리고 1천명이 항시 수도할 수 있는 수행도량 동화선사를 창건하게 된 보살행 이야기.

항복기심 ▶ 가격 : 18,000원
자기의 마음을 항복받는 것이다. 탐·진·치·만·의에 물들기 쉬운 마음을 잘 다스리면, 마음은 금방 광명해지고 환희로 가득 찰 것이다.

선용기심 ▶ 가격 : 30,000원
자신의 마음을 착하고 좋게 쓰는 것이다. 마음을 선용하게 되면, 어려움과 고통과 액운을 이겨나가고 슬퍼서 마음 상하고 병드는 일이 없어진다.

옴 그림천수경



42개 명호를 가진 관세음보살님의
42개의 손모양과 진언!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과 역할이 녹아있는 천수경!
그림을 통해 마치 불보살님을 친견하듯
그 진실어의 위신력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대유학당 | 대명스님 엮음 | 349 쪽 | 신국판 | 값 15,000원

뭇 생명의 어머니이신
관세음보살



손에 잡히는 경전시리즈 12

천수경, 42수진언, 반야심경은
관세음보살 가르침의 정수이다.
주머니 속에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움을 느끼고 또 느껴보자!

대유학당 | 설정스님 | 192 쪽 | 가로 9.5㎝ × 세로 15.5㎝ | 값 10,000원

하락리수(河洛理數) 프로그램 CD



하락리수는 사주를 주역의 괘효로 환산하여, 주역으로 풀이한 평생운입니다.
이번에 출시한 하락리수 CD는 실제 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일일운세와 궁합을 일까지 확대하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미리 유추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대유학당 | USB락, 프로그램메뉴얼 | 가격 550,000원

대유학당 ☎ 02)2249-5630
전국 유명서점에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날란다 대학, 보존 과제 남아

인도 정부, 유네스코 등재 후 관리 문제 '골머리'

세계 최초 종합대학이자 불교대학으로 알려진 인도 날란다(Nalanda) 대학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가운데, 인도 정부가 날란다 대학 보존과 발굴이란 과제에 직면했다.

날란다 대학은 현재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발굴 작업 중이다. 현재까지 발굴된 10%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일반인들 거주밀집지역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작업이 순탄치 않다. 이에 인도 정부는 지역민들과 협의, 제반시설 부족 등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도 언론 'The Times Of India (TOI)'는 7월 24일 "인도 정부가 유네스코 등재 후 협약기준 충족을 위해 보존 및 발굴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며 "하지만 날란다 전 구역은 기본 제반시설의 부족, 거주밀집, 비위생적 환경 등으로 인해 홍역을 치르고 있다. 특히 지역민들에게 마을이 날란다 대학 부지 위에 위치한단 사실을 알리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전했다.

이팍 아난드 발굴 관계자는 "지역민들에게 발굴이 필요한 세계문화유적 위에 살고 있단 문제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지만 그들의 생계를 위협하지 않도록 충분히 소통 및 협의할 것"이라 말했다.

날란다 대학의 총 부지는 약 120만㎡으로, 발굴 작업을 맡은 인도고고학조사단(Archaeological Survey of India, ASI)은 마을 곳곳에 흩어진 방대한 양의 유물 보존에 애를 먹고 있다. 발굴 관계자는 "유물 수가 워낙 많아 진품을 일일이 구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유물도록도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며 고충을 털어놨다.

전체 중 현재 10%만 발굴돼
나머지 지역 마을 위치해 '난항'
"지역민과 소통 · 협의 중요"
방대한 유물 보존도 어려워

인도 정부는 날란다 대학을 추후 세계적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다. 'TOI'는 현장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날란다 대학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후 인도 정부는 이 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인도 내 다른 문화유산과 함께 연계해 관광벨트를 조성할 것"이라 언급했다.


세계 최초 불교대학 날란다(Nalanda • 사진) 대학이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 보존 • 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출처=indiansnews

한편 날란다 대학은 인도 비하르 주(州) 파트나 남서쪽, 옛 마가다왕국 수도 왕사성 북쪽에 위치하며, 기원후 400년경 쿠마라굽타 1세(415~454) 때 건축됐다. 현장 스님은 7세기 경 저술한 여행기서 날란다 대학 유적에 관해 언급했으며, 고고학단은 1862년 이 여행기를 발견한 후 150년이 지나 날란다 대학 발굴에 착수했다.

아팍 아난드는 "前 발굴 책임자 라빈드라 팬스 학장의 노력으로 유적터가 온전히 보전될 수 있었다"며 "특히 현장 스님 여행기서 '타라(Tara) 사원 유적'으로 일컬어진 '데비 마 까 틸라 묘지'도 온전히 보존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날란다 대학 부지 남쪽에 위치한 부처님 머리카락과 손톱을 모신 사리탑 등이 현장 스님 여행기에 언급된 곳과 일치 한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마음챙김, 불안장애 청소년 치료효과 '탁월'

신시내티 대학 연구진, 12주 간 연구결과 발표

마음챙김명상의 심리치유 효과는 어디까지 일까? 마음챙김명상이 성장기 청소년들의 불안장애 치료에도 탁월하단 연구결과가 발표돼 다시 한 번 주목을 끌고 있다.

건강라이프 사이트 'collective-evolution(CE)'는 8월 2일 "서양 의학계는 정신건강 치료를 위해 보통 항우울제 등 약물사용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비교적 건강한 치유법이 개발된다면 사람들이 약물에 의존할까"라며 미국 신시내티 대학(University of Cincinnati) 연구진들의 연구결과를 보도했다.

연구팀은 9~16세 불안장애 청소년을 조사집단으로 구성, 12주 동안 자기공명영상법(MRI) 등을 활용해 마음챙김명상을 연습하는 과정을 연구했다.


마음챙김명상이 불안장애를 진단받은 청소년들 치료에 효과적이란 연구결과가 발표돼 화제다. 사진출처=collective-evolution

공동 연구팀장을 맡은 시안 코튼(Sian Cotton) 신시내티 대학 통합건강센터 이사는 "마음챙김명상을 하는 동안 환자들의 불안은 크게 감소했다. 명상에 집중한 환자들은 외부적인 것들에 대한 걱정을 떨쳐버렸다"며 "이러한 통합적인 연구결과가 전통적인 치료법을 확산시키고, 심리적 고통에 대처할 수 있는 새 전략을 제공할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튼 이사는 "마음챙김명상에 기반을 둔 치료법은 부정적인 감정과 사상에 사로잡힌 환자들로 하여금 의식적으로 생각과 감정, 신체 감각을 현재에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튼 이사는 이러한 방법이 통원 및 약물 치료를 기피했던 우울증 환자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대체 치료법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코튼 이사는 "불안장애 진단을 받은 많은 아이들이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 병원가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라며 "마음챙김명상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할 뿐 아니라 약물치료의 부작용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12주 간 연구는 마음챙김명상이 인지 및 감정처리를 담당하는 뇌신경 활동을 활발히 작용시키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며, 혈액 속 포도당 양을 일정히 유지시키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데 효과가 있단 결과를 드러냈다.

연구부팀장 제프리 스트론 박사는 "뇌기능 활동 촉진으로 인해 불안장애 청소년들의 감정절제능력이 향상될 것"이라며 "뇌 활동에 관련한 부수적 효과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아름 기자

세계 최대 불교학원 주거지 철거 '시작'

중국 정부, 라룽가르 승려 정원 5천명으로 제한 압박

7월 말, 철거 작업 들어가
'반중심리 조장'이 원인
티베트인들, "탄압행위" 반발
1만 비구 · 비구니 거주 추정
10월까지 절반으로 축소 계획

중국 정부가 티베트 최대 불교학원인 '라룽가르 불교아카데미' 주변 주거 시설의 철거를 시작해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태국언론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7월 26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티베트 최대 불교 강원 주변 시설을 철거하고 나서자, 티베트인들은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10월 30일 전까지 라룽가르 사원 수행 승려를 5000명 까지 감축한단 계획 아래 승려들의 주거지인 쪽방들에 대한 부분 철거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6월 중국 당국은 티베트 불교 최대 강원 '라룽가르 불교아카데미'가 반중(反中) 심리를 조장한단 의심을 제기, 이에 대한 탄압으로 학승 2,200명 감축을 명령했다. 또한 중국 지방 정부는 라룽가르 주변에 비구 · 비구니 스님 1만 여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2017년까지 거주인구를 5000명으로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인도 반중(反中)사이트 '티베트의 소리(西藏之聲)'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제6차 티베트 공작 좌담회와 제2차 전국 종교공작회의에서 내려진 결정을 근거로 비구 · 비구니 정원을 5000명 이내로 제한했다.

한 티베트인은 개인 SNS 계정에 "중국 당국의 명령으로 라룽가르 학승 63%가 떠나게 됐다"며 "지난해에도 이미 약 1000명 승려와 비구니가 내쫓겼다"고 주장했다.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티베트독립운동(International Campaign for Tibet) 마테오 마테치 회장은 "중국 정부의 제한 정책은 티베트 불교도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중국의 위협적인 통제 방식은 티베트인들로 하여금 전 세계인들에게 그들이 처한 상황을 알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 당국의 라룽가르 불교아카데미에 대한 탄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999년 6월 중국공산당은 24호 문건을 통해 라룽가르의 정비를 시작했다. 또한 2001년 8월 기숙사를 헐고 아카데미 입구에 경찰을 상주시켜 출입자의 신분증을 조사했다.

중국은 라룽가르 학승들이 2013년 5월 티베트 자치구 나취(那曲)지구 비루(比如)현에서 발생한 광산 개발에 항의한 대규모 시위에 개입하는 등 전국 티베트족 집단 거주지에서 반중 시위와 활동을 배후 조종한다고 믿고 있다.

라룽가르 아카데미는 티베트 자치구 설타르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불교연구소로 1만 명 이상 승려 및 불자가 공부하고 있으며, 연구소를 중심으로 스님들이 거주하는 9,000여 채의 쪽방촌이 조성돼 있다.

티베트에서 가장 오랜 불교종파인 닝마(Nyingma)파의 불교학교이기도 한 이곳은 최초로 여성들의 입학을 허가한 바 있다. 이에 100여 명 비구니 스님들은 이곳에서 페미니즘 연구와 더불어 불교여성인권 관련 책 · 잡지를 출간하며 불교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보형 객원기자

베트남 스님, 시줏돈 26만 불 도박 탕진

美 당국, 징역 30개월 선고 및 추방 명령

미국의 한 스님이 카지노로 시줏돈 26만여 달러를 탕진해 징역 30개월을 선고받았다.

뉴올리언즈 언론 '놀라닷컴'은 "미국 지방 법원 판사 도널드 웰터는 카지노를 위해 송금 사기의 무죄를 주장한 베트남계 미국인 강응우옌르 스님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웰터 판사는 강응우옌르 스님에게 횡령한 시줏돈을 전액 지불할 것을 주문했으며, 감옥에서 석방 후 베트남으로 추방될 수 있다고 당국은 전했다.

강응우옌르 스님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사우스웨스트 루이지애나 지역의 베트남 불교사찰의 주지를 맡았다. 그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레이크 찰스 카지노서 도박을 하며 미화 26만3000여 달러를 사찰 계좌서 빼돌려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금자동지급기와 카지노 은행 직원들을 통해 돈을 인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료 스님들로부터 그의 범죄행각을 감추기 위해 강응우옌르 스님은 사찰 재산신고를 허위로 신고하기도 했으며,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한 것으로 경찰 당국은 밝혔다.

이보형 객원기자

호연스님의
다라니기도독송 CD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천상의 소리
호연 스님의 다라니 기도독송 CD
다라니는 미묘한 힘과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속 독송하면 최고의 지혜를 얻으며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차량용,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구입 문의 02)971-4461 010-9885-6328

기도치료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문기도치료법 1:1 또는 5인이하 실전교육을 상시합니다.
※ 기도 치료는 유사 사이비 의술이 아닌 부처님의 정법 의학입니다.


기도치료법 230P 값 19,300원
기도치료학 550P 값 24,300원
두권 구입 값 43,600원
• 부처님은 약 3천년 전부터 기도치료를 가르쳐주신 大醫王이십니다.
• 기도치료는 유사 사이비 대체 의술이 아닌 부처님의 정법에 의한 인류사에서 가장 오래된 질병치료법입니다.
• 캐나다에서 한의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석영창님은 그의 저서에서 "불교도들이 질병치료를 못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 위 2권의 책은 기도치료의 이론과 실제 사례를 현대적으로 풀이하여 누구든지 기도치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의도한 서적입니다.
• 많은 불자님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자신의 건강증진은 물론 포교와 사찰운영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전문기도치료사만 된다면 노후 걱정은 덜게 될 것입니다. 본인은 70대 중반입니다만 가끔 한달에 천만원이상의 수입을 볼때도 있습니다.
상담 및 책구입 : 010-2093-3385, 011-557-2773
주 소 : 경남 하동군 금남면 경충로 243-115
입금 온라인 : 611038-02-030104 우체국(정보석)
352-0943-7979-03 농 협(정보석)
(책은 입금 확인후 택배비 저자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불자와 사찰간의
다양한 소식, 뉴스, 혜택 등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사찰의 다양한 소식을
절로에서 받아보세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다운로드
Google Play (안드로이드용)
App Store (아이폰용)
"절로" 검색 후 다운로드
절로 문의전화
불자/신도 무료이용
사찰/단체 이용문의
1644 - 9108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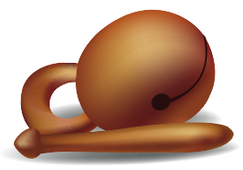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악을 두 번 다시 범하지 말아라. 악 속에 즐거움을 누리지 말아라. 악의 축적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되느니. 작은 악이라도 경시하지 말거라. 물방울이 비록 작지만 마침내는 큰 물병을 채우느니.

– 법구경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수강후 법사증, 승려증 발급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천도재,사십구재
(호적,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구병시식
010-5905-1249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 · 구병시식
이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구성학 강의
신비의 점성술
매주 : 화,목 강의 / 2시~4시
(교재무료)
수강료 월 20만
구성역리학회
010-4876-5353
051-245-5353

정암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1577-9657
031-529-1076
010-9944-1075

관상 손금
스님특별 책임 개인지도
– 배우자 관상을 보면 몇 살 때 어디 질병이 있는지, 죽음까지 알 수 있다
– 암, 질병, 묘터, 교통사고, 이혼을 얼굴만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다
– 무속인, 점학인, 일반인 (천기누설)
– 관상과 손금, 임상비법, 관상과손금 비밀이야기(판매중)
010-4014-8822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상담안내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시원히 해결해
드립니다
(천도재,구병시식,49재)
010-2125-4684
대구은행 087-13-035968

파동명상요법
병원에서 병명이 안 나오는 분. 빙의, 영가장애로 고통받는 분, 우울증 등 심인성 질환자
041-555-0374
주지스님 찾으세요

초능력 기공
수련생 모집
3개월이면 나도 초능력 기공사가 된다.
단기 수련생 10강 / 특수수련 20회
에너지힐링
(뭐든지 다 치유)
약손 빛힐링.초염력.주열요법
(네이버 카페 묘심기공 참조)
자연전인치유 건강관리연구소
010-4611-1296

범패작법 전문교육 수강생모집
(6개월과정 / 수시접수)
교육내용 : 조석예불,새벽종송,사시불공,천도재, 사십구재,점안의식,구병시식,각종불공
바라무 : 천수바라,사다라니바라, 관욕바라,화의재바라,명바라
나비무 : 도량게,다게,운심게,오공양, 삼귀의,육법공양,향화게,법고무
* 범패작법 전문스님들이 사찰 각종행사 대행하여 드립니다 *
* 전생체험 및 빙의환자 퇴마치유 전문*
010-5269-4168
(연화사 범패작법교육원)

법당 철거전문 (재활용 센터)
퇴불,철거,견적,불교용품, 매입,판매 정성을 다해 퇴불,철거 깨끗하게 해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는 기업
(주) 다사팜
010-2395-3333

황제내경 의술전수
침법,단전호흡,음식으로 만병을 고치는 의술
수강생모집, 수강료 20만
옥천 010-2274-4267
블러그 : 네이버 phw4267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대구시내 사찰)
053-654-0408
010-3422-3232

불심깊고 독신자 60대이상 보살님 찾습니다
(경북 울진)
010-8571-6559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사찰 운영하실 분
(경남 거제)
010-7169-9878

사찰내외 유무선 마이크를 가장 저렴하게 설치하는 방법
- 사람은 태어나자 마자 소리를 내며 평생 말을 하니 쉬울 거라 생각하고 단순하고 저렴한 물품을 사기도 합니다
- 강당이나 교회등 다른 곳에 가보고 이게 아닌데 싶기도 합니다
- 탁 심봉사가 눈을뜨는 듯한 한번에 좋은 소리가 저렴하고 싼 소리입니다
- 의문 나면 문의 하세요
- 카드 할부 가능 합니다. 저렴한 중고 공사도 있습니다

특허등록업소 한성음향(대전,전국 출장가능) 010-4440-8687

문두루 기도법?
원하는 것을 이루는 기도며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북부역 소명사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총무원장 및 각원 원장 모집공고
본 종단은 문공부 등록 및 등기필한 종단입니다. 유능한 인재 확보와 종세를 넓히기 위해 각원 원장 및 부원장님을 모십니다. 총무원장, 교육원장, 호법원장, 문화원장, 포교원장, 고시원장, 비구니원장, 전법사대전교
(사)대한불교대승조계종 010-8729-8494

漢文 한글 (겸용) 불교상용의식집
"漢文 / 한글(겸용) 불교상용의식집"은
漢文念佛 한글염불 경전공부까지 스님들과 불자님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불교 상용의식집입니다!



- 제1권 (예경/각청)
- 제2권 (천도/시식)
- 제3권 (수계/방생)
- 제4권 (장의)
- 제5권 (점안)
- 제6권 (독송집)
- 제7권 (토속의식 모음집)

각권 20,000원
(스님과 신도가 함께하는 법당용 책 사찰에 맞게 만들어 드립니다)

발행인 : 금불 장엄사 주지 성묵 스님
(경북 칠곡군 기산면 봉산4길-54)
주문처 : 054)974-1345 (장엄사)
010-7144-7339 (총 무)
010-5277-8024 (스 님)
계좌번호 : 농협 735091-52-058288 박명덕
(전국 불교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큰스님 상좌(행자) 및 출가학교 모집
1. 프로그램 : 무문관체험, 불교교리, 사경, 염불습의, 걷기명상 (지도 : 법사스님), 참선(지도 : 無一우학스님)
2. 교육기간 : 100일 / 3. 참가비 : 무료
4. 대 상 : 50세 미만의 남자 독신 / 5. 문 의 : 010-9562-8228
※ 미혼 청년회도 모집중입니다.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강원,기본선원) 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해외도량,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근절,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신비의 령산 마이산 탑사 행자모집
▶ 나이 : 만 40세이하
▶ 학력 : 고졸 이상
최고 수준의 승가 교육보장
문의 : 063)433-0012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불교종단 사암 및 전통문화예술단체 사단법인 등록 | 가입 안내

민법 제32조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4조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 받았음.



※본회에 불교종단 및 문화예술단체 200여 종단과 단체 가입되어 종무 행정을 지원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세계평화상 제정 상 · 훈장 시상
※세계불교승왕청 임원 추대 선임
※연 4회이상 연합법회를 통하여 시상 수여와 메시지,결의문 등 발표 기회를 드림
※연합불교방송과 신문으로 동영상과 신문으로 기사 홍보

사단법인세계평화연합법인회 · 사단법인세계평화불교종단연합회
이사장 법왕자 김소부
☎ 011-356-3427 (직접 방문 상담)

종단 · 사암 · 개인 홍보 동영상 제작
연합불교방송 편성국장 김병기
☎ 010-5334-9008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만약 어리석은 사람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는다면 그가 곧 슬기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이 스스로를 슬기롭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어리석은 것이다.

- 법구경 -



사찰전문 30년 전통 (전국 2,000여 사찰보유)

▶ 도심 속의 땅넓은 사찰◀
- 위치 : 부산시 신평동
- 총부지 : 4,000여평 ※일부 주거지
- 건물 : 법당 및 산신각, 요사채
- 조망권 : 먼바다와 노송이 우거진 멋진전망
- 가액 : 6억 8천만원

▶ 탁트인바다전망과전통목조사찰◀
- 위치 : 부산 신항만 부근, 거가대교 입구
- 총부지: 240여평, 1만여세대 대단지아파트
- 건물 : 목조법당(25여평), 요사채, 목조산신각(7여평)
- 가액 : 6억 5천만원(전, 월세 가능)

연산공인중개사
제 26320-2015-00027호
051-863-6622
010-3560-8522
주소: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1, 504호(만덕동 302 다산타워)

정선 카지노 부근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한옥법당 70㎡, 한옥황토요사채 110㎡, 토지 500㎡
- 교통편리하고 주차장 있음
- 방편 잘하시는 분 추천함
- 가액 : 3억 조정불가 (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 부지 : 2000평
◎ 인법당 : 30평
◎ 차량진입,산세수려
◎ 양도 : 5억8천
◎ 위치 : 서울대형포교원
◎ 대지 : 70평
◎ 전체건물 : 200평
◎ 전철역앞, 주차가
◎ 양도 : 25억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공원 사찰 안내

- 위치: 부산 온천동 금강공원 입구
- 총부지 : 203여평(주차장 완비)
- 건물1:법당 30여평, 요사채2동 건물2:원룸 12개, 점포2개
- 전 월세 : 전세 2억에 월 400만원
- 인수가 : 6억 5천만원(은행 5억)

직통 010-2595-7752 전무
※사찰전문 만덕 부동산중개사
제 26320-2015-00027호

면목동(급)포교원

- 3천만원에 월 170만원 시설비 방문 상담 요함
- 5층 법당 약 200㎡ 역세권, 대로변 건물
- 완벽한 시설완비, 즉시법회 가능함 전철역에서 5분이내

(원주이박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규철)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 치악산 자락 아늑한 사찰
- 법당 30평, 산신각 6평, 노천불
- 목조건물, 전통법당
- 요사채 40평, 식당 40평, 창고 60평
- 대지 1,250평(종교부지)
- 즉시법회가능
- 가액 : 6억 5천만원

010-4028-889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200평,건평1층,요사채35평
- 2층 법당 30평, 산신각 6평
- 아래채황토방2개,화장실,주방,욕실
- 삼존불, 탱화, 인등, 영가단, 법륜대, 집기 일절
- 조경 주차장 시설 완비
- 가액 : 3억8천(융자1억3천만원)
- 급 양도, 방문요, 즉시법회 가능

010-3186-0361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삼 보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대지 : 12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양도액 : 12억
- 위치 : 경기
- 대지 : 4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25평
- 가액 : 6억5천

[포교원]
- 위치 : 안양
- 총평 : 65평
- 법당 : 25평
- 요사 : 40,방3개
- 시설비 약간,시설굿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경매상담, 부동산법률 상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량물건 보유 언제든 전화주시면 성실 안내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무료 부동산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천안시 목천읍
- 대지 173평
- 법당 25평
- 요사채 28평
- 가액 : 2억 2천만원

010-2376-5411
041-557-778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자산남 10길 40-8
- 대지 54평
- 건물 50평
- 대웅전, 삼존불, 석탑2
- 가액 : 2억 7천

010-9563-6787

사찰(급)안내

- 위치 :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총 1,420평, 목조법당,관음전,종각
- 요사채,공양간 외 건물 차고, 창고, 대형주차장 등등
- 가액 : 3억 4천(절충) (스님건강문제로)

010-4628-5699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북 일월산
- 자락이 아담한 곳, 1급수 청정지역 앞마당 계곡물 흐르고 산기운이 솟는자리
- 땅 500평 법당자리 토목공사 완료, 20평 허가
- 요사채30평, 현대식 목조건물 완공 2년반
- 밭 2필 500평, 개인사정 급
- 가액 : 2억 4천만원

010-5424-4969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마산리 563번지,553번지는 대지, 산은110-6번지
- 하우스법당과 하우스산신각, 요사채1, 처사방1, 황토방1, 하우스 창고1, 자재창고 4개
- 563번지 대지 147평, 553번지 대지 230평
- 임야 산 2,007평 110-6번지
- 전기 개인전기 정화조 산에 내려온 식수
- 모든 집기 일체포함
- 가액 : 2억 (절충가능)

010-5348-200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무학로 10번길 35(광안동) 광안리 최고요지
- 3층 건물 2층 50평, 법당 5존불 외
- 한자불 50불 30cm, 후불탱화
- 방3개,주방1개,식당,화장실2개
- 가액 : 1,500만원, 월세 70만원 시설비 3,500만원

010-3884-0122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시장입구
- 시내버스 승강장, 장소최적, 3층건물중 2층
- 삼존불, 소불 108, 주방, 욕실, 방1, 창고
- 에어컨1, 냉장고1, 즉시법회 가능, 주차1
- 가액: 1,0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0-7583-1235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부산 산사 새벽시장 뒤 (서감초등 부근)
- 4층 건물에 2층
- 건 60평 포교원
- 법당 완전 구비, 즉시 입주
- 가액 : 1,8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800만원

010-7570-2051

도심속의아담한암자

- 위치 :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 건물 : 단독 주택
- 가액 : 대출 ~7500만원~ + ~1억 3천5백만원 합 가액 : 2억 1천만원 (절충가능함)
- 꼭 하실분만 연락 주세요

010-7188-7723

사 찰 안 내

- 위치: 밀양IC 얼음골 바향 15분 거리
- 잣나무 숲과 계곡의 완벽한 환경
- 총면적 1,678평중, 대지 328평
- 2층 건물 1층 명상홀 및 요사 59평 2층 대웅전 24평
- 대나무숲속 삼성각 4.5평 별도 요사채 28평과 창고 20평
- 원통문 수월관음,연화탑,포대화상등 석물 농지에 사과나무 220주 호두나무 40주
- 가액 : 7억

010-4895-205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봉곡동 (서부시장 옆)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 삼존불 모셔있고 방2개, 주방 남녀화장실 별도
- 가액 :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답사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천호동 8호선 암사역 5분거리 대로변
- 시설 : 삼존불, 약사여래, 신중, 후불, 탱화 등
- 2층 전체 48평,법당,방2칸, 주방, 화장실, 욕실, 베란다 (몸만 와도 언제든 법회가능)
- 가액 : 1,000만원, 월80만원
- 꼭 하실분 시설비 1000만원

010-2282-888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뒤편 산이감싸고 있는곳)
- 대지 140평, 건평150평, 3층건물, 법당30평, 삼존불, 신중, 지장단, 영단, 법단, 단청 방6개
- 공양간, 창고, 차고, 다용도실, 화장실 3개
- 시설완벽 몸만오시면 됨 8m 도로접
- 초등학교 100m전철, 버스 300m
- 가액 : 15억(절충가능) 소임관계로 급 양도

051)754-337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반송로 273번길2
- 법당, 방1, 창고방1, 샤워실, 공양간 큼
- 40평 3층(시설완벽함)
- 가액 : 2,0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0-3389-8133

사 찰 안 내

- 영월 근교 영월에서 25분거리
- 산좋고 물좋고 경치 좋은 동강 앞
- 대지 270평, 법당 17평(목족신축) 요사채 약 40평, 군부지 약 400평 사용함
- 가액 : 2억 5천만원

주인직접 011-792-896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 평수: 2층. 45평
- 법당 3존불조성, 완벽하게 갖추어진 포교당으로서 몸만 오시면 법회 즉시 가능
- 전세: 1,000만원 월세 50만원 시설비 : 상담후 결정

010-2575-9876

다용도 주택 안내

- 위치 : 경기 양평 신복리 뒤는 산, 앞은 옥천시내 아신역에서 차로 5분거리
- 정남향(대지 257평 건물 40평) 지하암반수 마당 넓음.터와 주위에 약초 많음 (용도 : 암자 포교원 사주카페 등)
- 암환자 치유도량으로 최고
- 투자하고 같이 할 분도 환영
- 가액 : 4억 8천(실입주금 3억)

010-4234-2536

포 교 원 안 내

- 위치:울산 동구 대로변 사거리
- 평수:50평, 3층 엘리베이터 유
- 은행,마트,병원등 인구밀집지역
- 오존불(각3자,2자반),신중,영가단 냉난방완비,시설완벽
- 가액 : 보 500, 월65만원 시설비품 1700만
- 즉시 법회 가능, 몸만 오시면 됨

010-2896-6689

사 찰 안 내

- 위치: 전북 익산시 석기길
- 대지 536㎡, 텃밭 661㎡(별도)
- 인법당, 주방 및 종무소1, 요사2동
- 삼존불(동불), 인등 300등
- 현 법회중(걸망만 메고 오세요) 해우소 4, 원거리 소임관계
- 가액 : 9천 8백만, 전세 7천 가능

1899-1042
010-3679-1080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강원도 동해시 지리 1길 31의 3호
- 조용하고 아담한 별장같은 단독
- 화단에 과일나무 정원같은 도량
- 특수목 울타리 보안도 화분대도
- 스님들 노후 포교처로 안성맞춤
- 다시없는 좋은가격 8천 3백만원

010-5458-2955

토 굴 안 내

- 위치 : 충북 괴산에 위치한 명당터에 자리한 아담한 인법당
- 평수 : 대지 300평, 전 207평 합 507평, 건평은 60평
- 창고2동이 붙어있고 대형무쇠 가마솥2개가 설치되어 큰 법회 가능
- 철근 콘크리트 및 특수 벽돌로 단열이 잘된 집이며 절전형 전기보일러 설치되어 냉 난방비 저렴하며 6년정도 되었음
- 마당에 연못이 있으며 5층탑과 포대화상, 산신이 석조물로 조성되어 경관이 잘 어우러져 있음
- 전원주택 요양원이나 유치원 등 활용도가 상당히 좋은 곳이며 대형버스가 들어올 수 있으며 미래가 좋은 곳. 손수 설계하여 지은 건물이며 절 터이기에 아까운 곳.
- 부득이 양도 하고자 하니 꼭 사실분만 전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액: 2억 8천(융자 5천포함)

043-833-2259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대지 104평, 법당 24평, 요사채1동
- 스님 친견실1동, 산신각
- 사용가능 평수 약 200평
- 주차장 20-30대, 주차가능
- 가액 : 2억 8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서구 남부민동
- 대지 : 123평
- 건물 : 한옥 단독주택
- 기왓집 2동 산신각 등
- 가액 : 1,500만원 월 50만원

010-3262-1005

사찰 전(월세) 안내

- 위치 : 경남
- 대지 252평, 법당 25평
- 2층 건물, 삼존불, 지장단, 신중단
- 요사채, 방 2, 공양간, 화장실2, 1층 방 2(상담실 1)
- 가액 : 보8천만원, 월 50만원

010-7169-987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 957-0824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동구 중대동 754번지
- 대지 250평, 건평 180평
- 심야 전기, 주차 10대 가능
- 팔공산 중심자락에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좋고 또한 도로교통이 편리한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법당은 닷집과 구룡반자 수미단 등으로 조성 되어 있으며 부처님의 모습을 더욱더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 가액 : 18억

010-3502-2618

사 찰(급)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
- 평수 : 248평
- 법당 23평. 요사채. 방가루
- 마당 잔디. 조경전망 좋음
- 시청,은행 관공소 도보10분거리
- 가액 : 5억7천5백만원 대출 2억7천안고 양도 3억5백만원 (현시세땅값만 6억7천만원)
- 불사관계로 급 양도

010-5019-5385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신정1동 신정시장 부근
- 평수 30평, 2층독채, 큰방3개, 거실, 욕실 주방, 시설비 금액은 1,600만원
- 편백나무 리모델링, 급한사정
- 위치 좋음, 교통도 좋음
- 삼존불, 석가모니, 약사여래, 관세음보살
- 후불탱화, 용왕, 산신, 신중
- 가액 : 전세 1,000만원에 월 50만원

010-9902-3969

사찰, 포교원 정보를 내 스마트폰에서...

Temple Kok



템플콕

출시기념! 무료이용 이벤트 ~ 9월 30일 까지

전국의 사찰, 포교원, 암자, 기도터를 한 번에 확인하고 내 매물도 올리고..
(매물의 상태를 직접 사진으로 확인하고 지도검색을 통해 정확한 위치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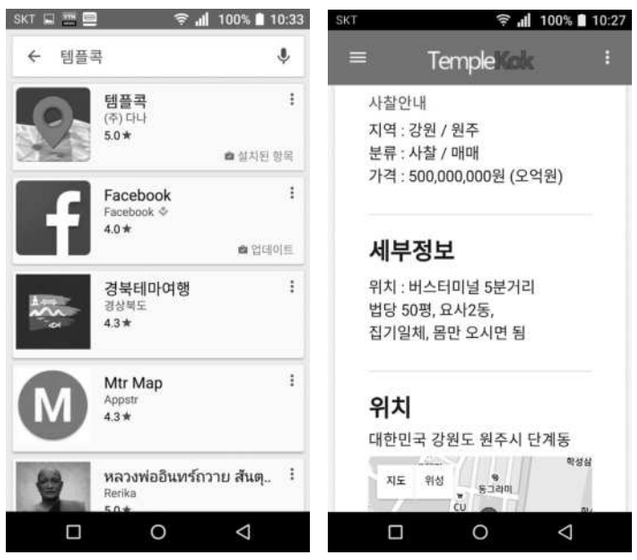
필요한 매물을 스마트폰에서 한 눈에 검색하고 바로 확인하고,
내 매물을 스마트폰으로 한 번에 올려서 직거래 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항목별(사찰, 포교원, 암자, 토지임야, 납골당 등), 가격별로 검색 가능 합니다.
▶ 매물 담당자와 직접 연락 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

이용안내

1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템플콕'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2 간단한 회원가입 후 본인의 매물 등록
3 게시 기간에 맞는 요금 결제
4 입력한 매물 게시(시작)일 - 오후 7시 등록(관리자)

※매물등록은 매물보기에서 다른 매물 입력내용 확인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문의 02)2004-8214

주의 : 템플콕은 사찰 및 포교원 등 수행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상호 직거래하는 방식이므로 거래관계에 있어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감정 정리의 힘

구제고지 ('긍정심리학스쿨' 대표)

〈2〉 비우는 습관 (上)

기분전환, 머리 아닌 '몸' 움직여라



감정 파악부터 시작해야

유명 광고대행사에서 치열하게 일하는 A씨는 긴 근무 시간과 고된 업무, 대인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해 고민이었습니다. 한 달에 100시간 이상 야근이 이어지고 고객에게 받는 압박감도 상당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매우 심했다고 합니다.

A씨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다름 아닌 '술'이었습니다. 술 이외에 다른 효과적인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A씨는 결국 과음과 과로로 건강이 악화됐고 마지막 보루였던 직장마저 잃는 쓰라린 경험을 맛봤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술에 의존하는 사례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술의 힘을 빌리면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지요.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기분을 전환하거나 동료와 친목을 다지기 위해 술을 마시는 일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치열하게 일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 채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감정회복습관 트레이닝 초기 훈련에는 '감정에 이름 붙이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스트레스 경험으로부터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제대로 알아보자는 뜻이지요. 교육생 중에는 자신의 감정 패턴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외국에서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사회정서학습(SEI.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자신의 정서와 장단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만한 대인 관계를 형성하고 책임 있는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과정)'을 학교에서 교육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감정을 제대로 이해할 기회조차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쓸데없는 감정을 버리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애초에 인지조차 못한 감정을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피로감'이 있습니다. 이는 육체적인 피로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도한 업무량, 지나친 욕구, 끊임없이 이어지는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생기는 심리적, 감정적 소모를 의미합니다. 몸은 피곤하지 않더라도 마음이 지치기 때문입니다.

A씨는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하는 직업 특성상 업무 내용이나 근무 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하기 힘들었습니다. 타인에 의해 일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면 '자기 결정감'이 하락해 동기 부여가 약해지고 만족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무력감마저 느끼게 됩니다.

긍정을 부르는 '운동'

보니웰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들이 자주 경험하는 피로감이나 초조함, 앞일에 대한 불안감과 걱정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분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분 전환이란 감정의 종류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부정적인 사고나 감정에는 끈끈한 '점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처럼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못하고 부정적인 사고와 감정에 휩쓸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철역에서 판매하는 주간지의 기사 제목을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유명인에 대한 비방, 주변국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참혹한 사건 사고 등 더는 수위를 높일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수준의 부정적 단어가 나열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부정적인 어휘를 제목으로 삼을수록 시청률이나 인터넷 기사 클릭 횟수가 높아지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증명된 '부정적 편향(Negativity Bias)'이라는 정신 작용입니다. 우리의 뇌에는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제가 있어서 부정적인 정보를 접하게 되면 저절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 결과 부정적인 정보와 체험이 더 강한 인상으로 뇌에 기억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방어 기제가 너무 강하게 작동하면 부정적인 정보에 지나치게 민감해져버립니다. 이는 외부 정보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경험을 통해 내부에 쌓인 부정적인 체험도 반복적으로 떠오르며 우리를 괴롭힙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오래가지 않도록 하는 습관은 직장과 가정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분 전환은 '부정적인 일이 생각나기 시작했다면 이번에는 긍정적인 일을 생각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각을 전환시키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부정적 편향에 대항할 수 있을 정도로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부정적 사고에 더 쉽게 노출
감정에 이름 붙여 인지해야
쓸데없는 감정 버릴 수 있어
운동, 기분전환 효과 '탁월'

머리가 아닌 몸을 써서 기분을 전환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생각이나 기분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가능하면 자신이 열중할 수 있는 일,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지속할 수 있는 일이 가장 좋습니다.

야근이 많은 직종에 근무하던 A씨와 같은 분께 권하고 싶은 방법 역시 운동입니다. 그중에서도 조깅이나 워킹, 수영이나 헬스 등이 좋습니다. 모두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이라 바쁜 생활 속에서도 비교적 실천하기가 수월한 편입니다.

여러 가지 분노 해결법

저와 잘 알고 지내는 B사장의 고민은 '분노를 조절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B사장은 과거에 심각한 적자 상태에 빠진 기업을 살려냈을 정도로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탁월한 경영자이기도 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회사 직원들의 단점이 너무 크게 보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분노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중에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A 타입'의 사람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A 타입'은 경쟁의식이 강하고 효율성에 집착하며 낭비를 무엇보다 싫어하는 경향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들은 금방 화가 치밀어 올라서 분노가 폭발하는 이른바 '다혈질형 인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심장 질환에 걸리거나 돌연사할 위험도 큽니다.

B사장에게 주어진 과제는 일 때문에 생기는 부정적인 연쇄 반응의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 분노라는 감정에 맞서는 '분노 관리'였습니다. 분노 문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므로 그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해 감정회복습관을 강화하는 두 번째 테크닉인 '고정 관념'을 분석했습니다.

감정회복습관 트레이닝에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에 몇 가지 유형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 대표적인 사고방식 유형을 일곱 가지의 '고정 관념 강아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B사장의 내면에 살고 있는 고정 관념 강아지 '비판견'은 타인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고정 관념 강아지입니다. '시간과 노력의 낭비야!', '더 요령 있게 진행할 수는 없어?'라며 마음속의 비판견이 짖어대는 탓에 비효율적이고 애매한 상황을 매우 싫어하는 B사장은 뭐든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흑백 논리'에 갇혀 분노한 것입니다.

B 사장의 마음속에 왜, 그리고 언제부터 비판견이 살기 시작했는지 심층적인 심리 분석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판견이라는 고정 관념을 처리하는 것이 우선 과제입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먼저, 고정 관념이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며 잘못된 내용이라고 느껴진다면 의식적으로 이를 추방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의 연쇄 반응 고리를 끊어버려서 그 고정 관념 강아지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겁니다. 한 번 풀어주면 더 이상 그것은 자신이 키우는 고정 관념 강아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뭐라고 짖든 무시해버려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고정 관념 강아지가 짖어대는 내용이 옳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를 수용하고 열린 마음으로 고정 관념 강아지가 보내는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고정 관념 강아지가 짖어대는 내용에 전면적으로는 찬성할 수 없지만 어쩌다 한 번씩은 일리 있는 내용인 경우도 있으므로, 그 고정 관념 강아지를 길들이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비판견이 정도를 넘어설 때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단계입니다. 비판견을 진정시킬 수 있는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일이지요.

분노라는 감정은 마치 전염병과도 같아서 화를 내는 사람으로부터 전방위로 발산되어 주변 사람들까지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B사장에게 일단 그 자리를 벗어나서 산책할 것을 권했습니다. 회의 중이었다면 잠깐 쉬자고 제안한 후 회의실을 나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담배를 피우러 가는 것은 안 됩니다. 몸을 움직여서 분노라는 감정으로부터 탈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담배보다 산책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빠른 속도로 걷기'는 임상 심리 전문가들도 권장하는 기분 전환 방법입니다. 불균형한 호흡을 고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끊어내고 기분 전환을 하는 데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친구 혹은 가족과 입씨름이 벌어졌을 때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걷고 있는 동안에는 상대방이 나에게 한 말을 곱씹지 말고, 걷는 행위 자체와 호흡의 흐름에 의식을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집으로 돌아올 무렵에는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되돌아와 있을 겁니다.

이 글은 〈감정 정리의 힘〉 (다산 3.0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영산재 50호
경기범패 학인모집
▶기초반 : 염불송, 예절법, 사물 (목탁, 요령, 태징, 북) 불교의 유래, 기도의 참법, 간단한 액막이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4시
▶승려반 : 도량석, 조석예불, 종송, 사시예불, 사물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4시
▶기능반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요잡, 화의재바라 나비침, 도량게, 타게, 법고무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4시
▶법주반 : 49재의식, 천도재의식, 시다림, 파묘의식, 산소이장법, 바라타징법, 새벽종송, 각종 점안의식, 각종 점안의식, 각종 이운법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4시
●강 주 : 민지효 스님
●개강일시 : 2016년 9월 5일
●장 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24 광법사
(구주소) 부산시 북구 만덕2동 303-8번지 광법사
문의전화 010-4466-3575

민간자격 국가정보 5765 등록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평가◀
수정기공재활사 과정
호흡, 자기수련, 명상의 이론과 실제를 숙지하고 이를 다양한 참가자들에게 보급하여 교육, 상담, 연구, 봉사활동을 하며 학교, 기업, 지역사회 공공기관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급 전문가수준의 재활 활용능력을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심신이 복잡한 현대사회에 유망한 자격증이다.
http://soojung99.pe.kr/index.htmlPNO=138623274964492600
■강의내용 : 4~5차원 수정기공
선착순 15명 접수 (매월 시작)
4주 속성 완성
■일 정 : 매월 첫주 토, 일요일 1시 시작
4주 완성
■강 사 : 뇌교육 박사. 중의사.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장 소 :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288-20
(성대역 부근)
■홈페이지 : http://soojung99.pe.kr/
■예 약 : 010-3463-7806

易理作名法
(당신도 作名大家가 될 수 있다)

이름을 한번 잘못 지으면 평생 후회하게 되고, 다시 개명(改名)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시중(市中)에 나와 있는 대개의 작명서(作名書)들이 한결같이 수리(數理)와 오행(五行)에만 맞추어 이름을 짓고 있다. 좋은 이름은 수리(數理)와 오행(五行)은 물론이고, 주역팔괘(周易八卦)에 맞추어 지어야 비로소 좋은 이름을 얻을 수 있다.
주역(周易)을 전혀 모르는 일반 독자들도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하였기 때문에 이 책을 만나는 순간 눈이 활짝 열릴 것이다. 또한 측자, 파자의 법칙상 이름에 쓰면 절대로 안되는 불용한자(不用漢字)를 모두 수록하였기 때문에 작명(作名)과 개명(改名)하는데 좋은 참고가 되리라 확신한다.
특히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법원 선정 인명용한자(人名用漢字) 8,142자 전부를 수록하였다.
易理作名法 (503쪽) 판매특가 : 30,000원
아래 계좌로 입금하시면 즉시 발송해 드립니다.
■기업은행 530-002326-01-014 (예금주 : 손상용)
韓國陰陽學會中央會
053)324-2468 / 010-9391-5699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천운사
● 주 지 : 무 령
● 주 소 : 충북 음성군 영산로 103-35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0일
대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박재완의 포토 색즉시공

감은사지

절은 사라져 팔만 글자가 되었고, 석탑은 남아서 업이 되었다. 사라진 것이나 남은 것이나 그 까닭은 한 가지인 것을. 누구는 남은 것을 보다 가고, 누구는 사라진 것을 보고 간다. 풀밭의 풀들이 팔만 글자를 기억하고, 석탑 곁에는 격외를 거닐던 발자국들이 보인다. 절은 사라져 하늘이 되었고, 석탑은 남아서 밤하늘을 본다.

글 · 사진=박재완 사진작가



승한 스님의 좋아좋아 행복코칭

인도코끼리와 말뚝 이야기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해 봐야 알지!"

더위가 맹렬하다. 우리 낙산 금산사가 있는 서울 종로구 창신5길 저잣거리는 이런 더위도 오히려 사치다. 몇 천 명에 달하는 봉제노동자들은 납품기일에 맞추느라 새벽 3~4까지 미싱바늘에 손톱이 안 찔리도록 신나는 노래를 틀어놓고 재봉틀을 돌리기 일쑤고, 그 물건을 평화시장으로 싣고 오고 가느라 새벽 4~5시까지 오토바이는 붕붕 소리를 내며 골목을 휘젓고 다닌다.

그 소리들 땜에 약간 불면증이 있는 나는 잠들 때까지 고생 좀 한다. 그런데도 나는 그 모습 그 소리들이 퍽 존경스럽다.

재봉질에 열중하고 오토바이 타는데 열중하는 그분들 삶과 모습에서 나의 이 시대의 희망과 꿈을 발견하다.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주셨던 삶과 꿈을 발견한다. 새벽까지도 지치지 않는 저 몰입이 오늘밤도 나의 방일과 나태를 꾸짖는 건 아닌지, 그런 뜻에서 오늘은 '인도코끼리와 말뚝 이야기' 하나 하고 싶다.

어느 날, 탐험가가 정글을 탐사하다가 덩치 큰 인도코끼리 몇 마리가 아주 작은 말뚝에 메여있는 것을 보았다. 호기심엔 찬 탐험가는 코끼리를 보살피고 있는 조련사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물었다.

"저렇게 작은 말뚝에 저렇게 덩치 큰 코끼리들을 묶어놓으면 위험하지 않소."

조련사는 대답했다.

"물론 위험하지요. 하지만 이 코끼리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말뚝에 묶여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이 말뚝을 뽑아낼 수 없답니다."

그러면서 조련사는 탐험가에게 인도코끼리 길들이는 법을 일러주었다. 덩치 큰 인도코끼리를 길들이기 위해 조련사들은 인도코끼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작은 말뚝에 메어놓는다고 한다.

아기코끼리들은 처음엔 말뚝을 뽑아내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싶어 애를 쓰지만 아직 너무 어려 힘이 달린 탓에 말뚝을 뽑아낼 수 없다고 한다.

그렇게 몇 번 시도하다가 아기코끼리들은 자신들의 힘으론 도저히 말뚝을 뽑아낼 수 없음을 알고는 자유롭게 돌아다니기를 포기한다고 한다. 한번 그렇게 길들여진 인도코끼리들은 덩치 큰 어른코끼리가 되어서도 말뚝을 뽑아낼 수 없는 것으로 알로 아주 작은 말뚝에 고분고분하게 메여있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자신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혹시 지금 내 마음이, 내 삶이 이처럼 아주 작은 말뚝에 메여있는 인도코끼리와 같지는 않는가?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꿈이 없는 사람도 하나도 없다. 자신이 자신의 쓸모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꿈을 찾아내지 못할 뿐이다.

그래서 도를 깨친 높은 스님들은 "달을 보려면 달을 직접 봐야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봐서는 안 된다"고 했다.

말뚝에 묶인 코끼리 아닌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서
원대한 꿈 품에 앉은
삶의 주체 '나' 찾을 것

> **누구도 내게 달을 줄 수 없다**
> **내 자신의 '달'을 찾으라**

내 삶의 주체는 나 자신이다. 누구도 나에게 달을 가져다 줄 수 없다. 내가 아니면 내 자신의 달을 찾을 수 없다.

'참된 나'를 찾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다. 잠시잠깐의 안락과 나태함은 독약일 뿐이다. 현실 도피일 뿐이다. 풀숲에 머리만 처박은 채 꼭꼭 숨었다고 생각하는 꿩과 같다.

말뚝에 묶인 인도코끼리, 혹은 꿩이 되어선 안 된다. 내 삶을 스스로 찾아나가야 한다. 관성에 젖어버리는 순간 내 삶의 주체가 되어야 할 '나'는 없다.

'나'는 무엇인가?

나에 대한 사고 체계를 바로 정립하며 살아갈 때 나의 꿈과, 나의 이상, 나의 목표를 찾아갈 수 있다.

나를 바로 알기 위해선 바람직한 정체성과 자아관을 가져야 한다.

평소 '나는 그저 그런 사람이야'란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은 항상 그저 그런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는 아주 착한 사람이야', '나는 매사에 훌륭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야'라는 믿음과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착하고 훌륭하게 긍정적으로 잘 살아간다.

또한 커다란 소원 즉, 원대한 바람을 갖고 살아야 한다.

삶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다. 그러나 나 혼자만의 행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 더 나아가 우리 국민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 쩨쩨하게 나 혼자만의 행복, 내 가족만의 행복, 내 이웃만의 행복을 위해 살지 말고, 마음 만으로라도 우리 사회, 우리 국가, 우리 민족, 세계 인류, 파리 모기 아메바 잡초 등 전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유정 무정물들의 행복까지 위해 산다는 커다란 바람을 갖고 살 때, 우리 행복 수준은 그 어떤 자로도 잴 수 없고, 그 어떤 저울로도 달 수 없을 만큼 넓고 깊고 숭고해진다.

만약 인도코끼리에게 '저 건너편 초원에 있는 풀을 뜯고 싶다'는 아주 작은 꿈이 있었다면, 그 코끼리는 한발자국 앞으로 움직이지 않았을까? '꿈'이라 부르기에도 너무 사소한 일일지라도 그것을 위해 한 걸음만 나아갔다면 자신이 말뚝을 뽑아버릴 만큼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단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재봉질을 하고, 쓰레기차를 몰고, 폐지를 줍는 일이더라도 모두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이다. 꼭 돈과 명예가 따라오는 일만 '꿈'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 잠재력이 얼마만큼 되는지 알기 위해선 내 목표와 꿈에 도전해야하고, 작은 일이라도 우선 시작해야 한다. 손가락 끝이 아닌, 그것이 가리키는 원대한 달을 꿈꾸는 마음가짐과 포부를 갖길 바란다.

우리 삶을 바꾸는 기적, 절 수행!

청견 스님의 천만배 완결 깨달은 절수행이란?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알아차리고 다스려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

고통과 절망에서 희망과 행복의 길로
이끌어줄 '절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생생한 경험담!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의 저자
청견 스님의 신작!

전국에 108배 열풍을 일으킨 청견 스님이 그동안 천만 배의 절을 하며 체험한 이야기들과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뜨거운 울림들을 담았다.

현대인이 겪는 몸과 마음의 질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입증한 절 수행의 기본 동작부터 마음가짐, 그 속에 담긴 의미까지, 첫 책보다 더욱 깊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간중간 그려 넣은 다양한 일러스트는 책을 보다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다르마킹 칼리지
매주 화~토 오후 2시
절 교육 및 수행 점검



청견 스님 지음 / 신국판 / 328쪽 / 값 15,000원

깨달은 공동체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선바위길 6 ● 전화 010-3487-0035 ● www.법왕정사.net ● 판매총판 : 운주사 02-3672-7181 ● 인터넷서점: 붓다북



대행 스님

마음공부를 열심히 해서 독 안에서 벗어나라!

마음을 밝히는 칠석, 은혜를 갚는 백중

질문 저는 지금까지 불법에 인연이 없어서인지는 몰라도 절에 다닐 생각을 못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출근 할 때 선원 앞을 지나다가 선원 벽에 걸려 있는 현수막에 "마음을 밝히는 칠석, 은혜를 갚는 백중"이라고 쓰인 문구를 보고 의문이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 그것을 보면서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었던 전통 풍습인 칠석이나 백중이 그토록 큰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석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하는지요.

답변 칠성이라는 거는 내 몸과 더불어 같이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칠성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 사람들을 위한 거죠. 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동시에 미래로 자꾸자꾸 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둘로 보지 않는다면 칠석과 백중은 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백중은…, 우리가 죽으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거니와 바뀌어서 짐승이 사람도 되고 사람이 짐승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생시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칼산지옥, 화탕지옥, 또 오무간지옥, 독사지옥 등 이러한 이름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독사로 태어났다면 그게 독사지옥입니다. 허물을 입었으면 다시는 벗기가 힘들다 이겁니다. 그 독사의 모습을 벗기가 힘들어서 사람 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화탕지옥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또 얼마 안 있어서 끓는 물로 들어가고, 불 속으로 들어가고, 수십 번 그냥 돌아가면서 들어가는데 그것이 어찌 화탕지옥이 아니겠습니까? 또 때로는 칼로 그냥 산 놈을 탁탁탁 쳐서 모두 먹죠? 그런 거를 볼 때 그게 어찌 칼산지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칼산지옥이나 화탕지옥이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냉정하게 현실의 삶 그대로입니다. 현실 그대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옥도 하나하나, 화탕지옥이니 독사지옥이니 모두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하고 있고 그럽니다.

나는 지금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옛날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미래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현실 얘기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렇게 이렇게 되고, 또 사는 동안에도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하고, 이렇게 이렇게 산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렇게 살면 다음 세상에 나올 때도 또 이렇게 살게 되니까 그거는 뭐, 독 안에 들어도 면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공부를 열심히 해서 독 안에서 벗어나라 이 소립니다. 내 몸 통이 독이니까요. 내 몸 통이 독 안과 같아요. 통과 같아요. 이 몸 통 안에서 벗어나야 지구에서도 벗어나고, 지구에서 벗어나야 우주 세상에서도 벗어나고, 우주 세상에서 벗어나야 자유인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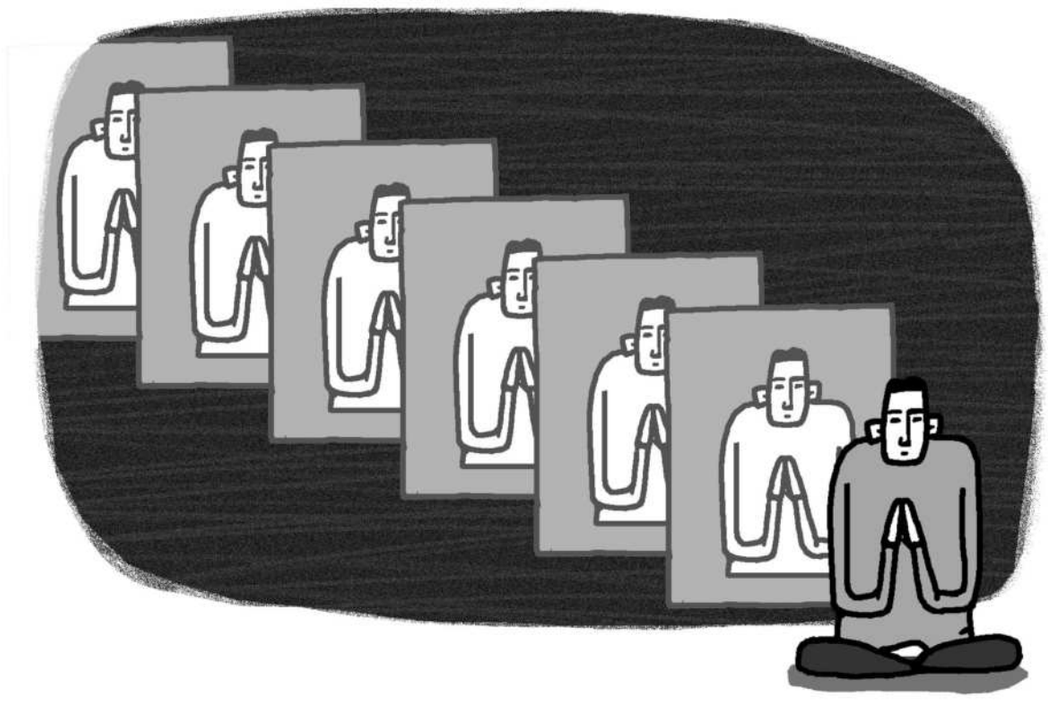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러니 왜 백중을 지내는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부모가 닭으로 화해서 이 세상 지옥고에 떨어졌다, 물고기로 태어나고 또 소로 태어나고 뭐, 독사로 태어나고 가지각색으로 태어나는 그런 틈에 끼었다 이런다면, 여러분이 천도재를 지극히 해서 그 몸을 벗게 해 주는 것이 바로 백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 때 더러더러 나오죠. 그런 경우와 같이 백중 때는 남한테 모함받아서 들어왔던 사람, 지극하게 다시 마음을 다잡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백중 날 다 내보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천도재를 세 번, 네 번 지내도 그거를 감당할 수 없으리만큼 된 집도 있습니다. 그런 집들은 자꾸자꾸, 그저 되는 대로 해야죠.

그렇다고 빚지고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저 내가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좀 나아지게 됩니다. 나아지면서 마음먹은 대로 다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 나가신다면 조상님들이 다시 모습이 변화돼서 인간으로 될 때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변화가 돼도 또다시 그러한 문제를 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요다음에 또 그와 같은 문제들을 끌고 가야 하니까요.

하여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살아가는 게 말입니다. 그냥 죽으면 고만이지 그러지만 그게 아니죠. 내가 콩씨 얘기도 가끔 하고 무씨 얘기도 가끔 합니다. 무 싹이 말입니다, 싹이 없어지면 그만이지 이러지마는 그 종자가 있어서 심으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 '그만'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토록 돌아가야죠. 그러나 마음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콩씨가 팥씨가 될 수도 있고, 팥씨가 콩씨가 될 수도 있고, 또 아주 상승의 사람 종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냥 하(下)의 종자가 될 수도 있죠. 이런 자유자재권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먹기에 달린 거죠.

그러니까 칠석이든 백중이든 그 의미를 가벼이 생각하지 마시고 정성을 기울이면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성취하십시오. 또 백중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는 그대로가 백중입니다. 우리 자체가 그대로 무심(無心)세계, 유심(有心)세계 둘이 아니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심세계 유심세계가 둘 아니게, 정신과 물질인 몸이 둘이 아니게 돌아가고 있으니 항상 하얀 백중이죠. 여러분이 다 그렇게만 하실 수 있다면 현실, 과거, 미래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 항상 영원하게 자유자재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도록 노력하십시오.

사람의 육신이 떨어지면

질문 사람은 육신이 떨어지면 더 이상 공부할 수 없고, 그냥 몸 떨어질 때의 업식에 따라 윤회의 길에서 헤어나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천도란 무엇인가요? 육신이 떨어진 중생을 어떻게 제도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마음이 보이지 않듯이 육신이 떨어진다고 해서 마음 자체의 그 근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원의 근본은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는 데에 자동적으로 입력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내세에 다시금 그 입력된 게 나오는 것이고 과거에 입력된 것이 현실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공(空)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그 길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 여러분 몸속에 악업, 선업이 모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악업, 선업의 그 의식들은 잘되고 못되고를 모릅니다. 사람의 생각이, 거기까지 다스리는 생각이 미쳐야만 이 그게 따라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거에 입력된 것을 현실에 입력을 다시 한다면 과거의 업장이 다 무너져서 안팎을 잘 검토하고 파악할 수 있어서 실천을 해 나갈 수 있는 자유인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체가 없는 마음의 의식은 이 물질계의 관습에 의해서 죽어도 자기가 몸뚱이가 있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체가 없으면 공부를 못 하기 때문에 체가 없어진 뒤에는 차원에 따라서 윤회가 된다는 얘깁니다. 그것이 바로 비가 한데 모이면 개울물이 되듯이 그런 것이 윤회라고 합니다. 그럼 마음은 체가 없으니까 자기가 체가 없는 걸 알아야 할 텐데, 생시 때에 마음이 체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될 텐데 그걸 모르고 산 사람은 자기가 이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면 죽어서 영혼이 이 발자취를 옮기려면 악업, 선업의 그 애고에 의해서 전부, 크고 작은 것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기 때문에 한 발짝도 에누리 없이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또 자기가 체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강을 건너가려도 자기가 체가 있는 줄 알고 빠져 죽을까 봐 못 건너가고 불에 타 죽을까 봐 못 들어가고 이럭하니까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도라는 게 생긴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친구가 죽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 친구가 개구리 소굴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탁 막고서 "너,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고 악을 벽력같이 써도 그 영혼만이 듣는 말이죠. 그래도 이 생시의 사람들은 못 듣겠죠. 그래서 악을 쓰니까, 이 집이 참, 아주 2층, 3층으로 된 기와집이라서 좋기 때문에 들어간다고 하더랍니다. 그 모습을 타고 난다면 다시 모습을 바꾸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개구리 소굴로 들어가서 개구리

☞ 26면으로 계속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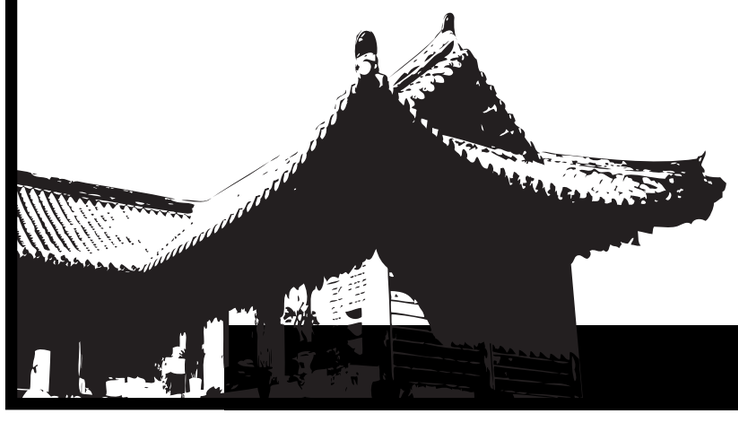
종도모집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온 것이 바로 고(苦)입니다

☞ 25면에서 계속

모습을 가지고 나온다면 그 모습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살면서 그냥 머리에 젖었기 때문에 다시 사람으로 환생하기는 극히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입력되어진 습을 지우기가 힘들어요

질문 불법과 큰스님의 가르침 속에서 도반들과 어우러져 생활하고 있는 지금을 너무나 감사히 여기면서 하루하루 정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스님께서는 수억겁 쌓인 죄업이라도 한생각에 다 녹일 수 있다고 하셨지만 저는 이 습을 다 지워 나가야 하는 이 공부의 길이 너무 힘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힘들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워서 없애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생활하고 나한테 닥치는 것을 그대로 그 공부의 재료라고 생각하세요. 그걸 끊어 버렸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꾸 나와야 내가 습득을 하고 내가 알게 되고 내가 경험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그게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목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습이 나온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습이라고 생각지도 마세요. 나오는 대로 그대로 거기 놓고 행하면 그대로 되는 거지 무슨 습이 이렇게 많아서 내가 이걸 없앤다, 이걸 끊어야 되겠다 합니까. 이런 생각조차도 하지 마세요. 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습인 것이지 습이라고 생각 안 하면 습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그 습이란 말을 아주 쉽게 자꾸 하는데요, 나는 그래요. 살아 있는 동물이라면 어떠한 거든지 보면은, 들으면은, 하면은 할 수 있는 그러한 재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쁘고 좋고 그런 것만 아니까 정히 나쁜 거는 하지 않고 좋은 것만 합니다. 나쁜 거를, 불의를 당했을 때 그거를 보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모두 그대로 '아, 이 주인공 놈이 다 그대로 하고 그대로 해결하고 그대로 넘어가는구나!' 하고 그냥 이렇게 편리하게 생각하세요. 그 이름에 그냥 막혀 가지고는 쩔쩔매지 말고요. 좋은 생각이 나와도 습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허허허. 아니, 좋은 생각을 해서 습이라고 안 그랬더라면 좋은 행이 그대로 나오고 좋은 경사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요건 또 습이구나! 요거,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습이 되는 거죠.

내가 항상 얘기하죠. 그 뭡니까? 저 무학 대사가 꿈 해몽한 이치요. 이성계의 꿈 얘기 한 거 있죠? 만약에 무학 대사가 그 꿈을 그대로 나쁘게 해석을 했다면 나쁘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좋게 해석을 하고 좋게 이끌어 주니까 그냥 지금 말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꽃이 활짝 피었다가 그냥 우수수 다 져 버리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면 '아이고, 이젠 죽었구나, 이젠 죽었어!' 하고 모두 탄식을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꿈도 생시고 생시도 꿈이니 절대로 꿈이 이렇다고 해서 언짢아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바꿔서 자꾸 써라. 구정물이 들어오면 바꿔서 새 물로 쓰고 이렇게 자꾸, 맛없는 걸로 들어오면 맛있는 걸로 바꿔 먹어라. 이게 자유자재입니다. 그런데 왜 자유자재하질 못합니까? 돈이 들어서 자유자재하지 못합니까, 누가 막아서 자유자재하지 못합니까? 그렇게 하라는데도 그냥 어떤 양반들은 꿈을 꾸고선 "아이고, 꿈을 이렇게 꿨으니 이거를 어떡하면 좋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그거 한생각이면 바꿔 쓸 거를, 글쎄! 하여튼 지금 말하고 지금 얘기하고 그러는 사람이 그 주인공 놈이니까, 하하, 그냥 주인공 놈이 과거도 살았고 현실도 살아나가니까 그저 과거 것이든 현실 것이든 닥치는 대로 그냥 '주인공, 네 놈이 해결해!' 하고 다 거기다 맡기세요.

> **과거에 입력된 것을 현실에 입력을 다시 한다면**
> **과거의 업장이 다 무너져서 안팎을 잘 검토하고 파악할 수 있기에**
> **실천을 해 나갈 수 있는 자유인이 된다.**

사성제에서의 고는 어디에서 생겨났는지

질문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사성제가 가장 근본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성제라고 하면 고집멸도를 말하는데 그 고(苦)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생겨났는지요. 그 고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요.

답변 고집멸도(苦集滅道) 사성제 중에 고 하나만 없앤다면 집도, 멸도, 도도 없습니다. 왜 『반야심경』에 "색(色)이 공(空)이요, 공이 색이니라." 이런 뜻을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렇다면 고는, 고덩어리는 어디에 있는가? 이고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길어요. 그런데 고 하나만 없앤다면, 그 도리를 안다면 집도 없고 멸도 없고 도도 없어요. 이 도리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온 것이 고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사생이 다 그렇죠. 사생이 다 하면 벌레까지도 들어가죠. 저 무정물도 다 들어가고요. 그러니 그것을 모두 따진다면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차원이 있다, 없다 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요것부터 얘기하고 그 고덩어리에 대해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수억겁을 거쳐서 인간까지 되어 온 과정을 보면, 지수화풍이 한데 합쳐서 돌아가니까 거기에서 생명이 생겼고, 그 생명이 생김으로써 수없이 거듭거듭 모습을 바꿔 가면서 진화된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살던 의식 자체에 습과 욕심이 인과로서 박혀 있는 거죠. 원수를 졌든 안 졌든, 선이든 악이든, 수없는 나날을 거듭거듭 살아오면서 인연 지은 게 바로 이 몸뚱이입니다.

그런데 말 못할 일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분한테 전해 드리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하고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알아야 자기가 마음으로 관할 때에 진실로 관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서 진정 뭐가 뭔지 모른다면 절실하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세포에, 오장 육부에 정맥 동맥을 통해서, 두뇌를 통해서 모든 게 돌아가는 이치가 하나의…. 이것을 이야기하려면 그 뒷받침으로 이 이야기를 해야겠군요.

임신을 하려면 엄마 아빠가 들어가야 되는데, 음과 양이 들어가는 데는 반드시 인연 따라서 혼백이 거기에 접근을 하게 되지요. 이 세상은 과일도 그렇고 상인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인연 따라 모두 모이죠? 그와 같이 인연 따라서 혼백도 거기에 접근을 하면 삼합이 한데 합쳐져서 삼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음과 양, 그리고 나의 근본에 부합된 마음의 영혼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본래 근본을 가지고 거기에 접근한 그 사람의 인과에 의해서 수십억 마리가 거기 모입니다. 그럼 수십억 마리가 인과에 의해서, 유전에 의해서, 업보에 의해서 수없이 거기 모이는데 그 하나하나가 자기 인연 따라서 만난 바로 자기 중생이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숫자가, 헤아릴 수 없는 숫자가 자기 인과로 온 겁니다. 업보로 온 거고 유전으로 온 거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몸뚱이 속의 그것들은 다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아서 이렇게 인간 한 덩어리를 이룬 겁니다. 이걸 가지고 왜 고덩어리라고 하는가. 일 초 일 초 바뀌지면서 병도 나게 하고 수없이 나오게 합니다. 악의 업보로 인연이 된 거는 거기에서 수없이 돌아가면서 '내가 원수 갚아야지.' 하고 때로는 아프게도 만들고 때로는 가난하게도 만들고, 때로는 우환이 오게도 만들고 때로는 웃게도 만들고, 어떤 때에는 싸움을 하게도 만들고 어떤 때에는 선의 인연이 거기에 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하게도 만듭니다. 이렇게도 돌아가고 저렇게도 돌아가고 그러는 원인이 여러분 몸뚱이 속에 수십억 마리가 지금 천차만별의 모습으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에서만 그러냐. 마음은 체가 없어서 바깥으로도 나오는 겁니다. 연방 털구멍을 통해서 나고 듭니다. 그런다면 바깥의 일이 될 것도 안 돼요, 또. 이게 인과고 업보예요. 그런데 그것이 딴 데서, 보이지 않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전부 나에게서 직접적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입을 통해서 말도 그놈들한테서 나오는 거, 생각하게 하는 것도 그놈들한테서, 전부 그놈들한테서 나오는 겁니다. 또 그놈들이 아니라면 이 육체를 쓰고 있을 수도 없고 그놈들이 아니라면 부처가 될 수도 없습니다. 참 묘한 거죠. 그래서 그 하나하나 나오는 것이, 거듭거듭 찰나찰나 돌아가면서 나오는 것이 고정됨이 없죠.

그래서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육조 스님께서는 또 "본래 자성이 움죽거리지 않으면서도 만법을 들이고 내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하셨습니다. 요걸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팔랑개비는 대를 쥐니까 팔랑개비가 돌아가고 대가 아니라면 팔랑개비가 있을 수가 없죠. 그와 같이 본래자성불의 그 중심은, 주장자는 바로 팔랑개비 대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주인공입니다. 주인을 막대기라고 한다면 팔랑개비는 육신입니다. 이 모두가 삼합이 한데 합쳐져서 돌아가는데, 바람과 팔랑개비와 대가 자꾸 돌아가는데, 이게 삼위일체로 공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는 하나로 돌아간다. 그 하나로 돌아가는 건 어디로 돌아가느냐? 그러니 그 하나마저도 이름 지어서 말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부처니라. 그리고 공했느니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살림살이를 하시면서 공해서 돌아가는 것을 그대로 아시죠?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남편 만나면 금방 마음, 행, 말이 동시에 자동적으로 "여보!" 이렇게 나오죠? 허허허…. 그리고 마음도 거기다 의지하는 마음이, 애정이 스스로 나오죠? 행동도 "여보 당신, 뭐 잡숴소?" 하고 나오죠? 그게 어떻게 그렇게 묘하게 나올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금방 일 초 전에 그랬는데 저기서 "엄마!" 그러고 아이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냥 금방 어머니가 돼요. 어머니가 돼서 "그래, 너 밥 먹었니?" 벌써 말과 행과 뜻이, 이렇게 삼합이 그냥 그냥 바뀌면서 넘어선 겁니다. 벌써 일 초를 넘어선 거예요. 찰나의 살림살이로 또 온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도 바뀌지고 행도 바뀌지고 생각도 모두 바뀌지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바뀌지고 먹는 것도 고정된 게 없고 모두가 바뀌지니까, 어떤 거 먹을 때 내가 먹었다고 할 수 없고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말했다고 할 수 없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만났다고 할 수 없거든요. 하도 찰나찰나 바뀌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無)"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뜻을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니라." 하는 뜻을 아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공해서 돌아가는 그 이치를 알아야 하고, 또 사생을 거치면서 모습을 바꿔 가면서 진화된 이 자체가 인과 업으로서, 유전으로서 그 업보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은 바로 욕심이 거기에 붙어 있고 내 생명을 아끼는 '나'라는 조건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라는 조건으로 인해서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물질세계에 끄달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의 몸뚱이 속에서 그렇게 독 안에 들어도 면할 수 없는 그러한 인과로서의 업이 자꾸 나오는데, 그거를 거기다가 되놔야 없어집니다. 거기서 나오는 건 어떤 거든지, 내게 원수 갚으려고 나오든 또 좋은 인연을 맺어서 갚으려고 나오든 악과 선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다 놓는다. 너희들이 한데 모여서 하나로 돌아가는 거니까 하나에 다 다 놓는다 이겁니다. 팔랑개비가 돌아가면서 색깔을 내는 그 자체는 그 대에 의존해서 나오는 거니까 대에다 놔라 이겁니다. 대! 막대기. 그것을 종합해서 주인공이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그러니 거기다 그냥 되놔라 이겁니다. 그것을 하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미 담겨 있는 카세트에다가 되넣으면 앞서 넣은 거는 없어진다고 그랬죠? 앞서 넣은 거는 없어지고 새로 넣는 것이 들어간다. 새로 또 넣는다면 앞서 넣은 거는 또 없어진다. 그러니 연방 그릇은 비면서 새 샘물이 나오는 거를 연방 떠먹어 가면서…, 그릇은 항상 비어 있으니 항상 새 물이 담기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한생각을 잘하면 오간지옥이 무너지고 독사지옥이 무너지고 전체가 무너진다 이겁니다. 그런데 또 묘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믿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거와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걸 잘 생각하셔서 믿는 거는 대 막대기를 믿고, 팔랑개비가 돌아가는 것에 속지 말고 거기에다 다 놔라 이겁니다.



불자 세상보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방지하려면



정천구
서울디지털대학교 석좌교수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다시 정치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위 공직자 일부가 뒷돈을 챙기며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일부 하위직 공무원은 퇴근시간을 조작하여 '시간외수당'을 챙기고 있는 사례들이 연이어 보도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공무원의 부정부패 정도는 2010년 기준으로 선진 21개국 중 그리스·이탈리아·포르투갈에 이어 제4위라고 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는 현재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려는 '공시' 열풍이 거세다.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지방공무원임용 평균 경쟁률은 87.6:1이라 한다. 현재 공무원은 선망의 직업이다. 정년이 보장되고 연봉과 연금도 기업체 못지않기 때문이다. 이 직업이 부정부패로 얼룩지다니 나라의 장래가 걱정된다. 역대 정부는 예외 없이 부정부패의 척결을 내걸었지만 부패는 점점 더 심해졌다. 결국 김영란 법이라 부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했다. 7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이 법안에 대한 위헌소송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9월 28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그러나 과연 이 법으로 부정부패가 줄어들까? 반짝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으나 긴 안목으로 보면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조장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가장 눈에 띄는 문제점은 법의 적용대상에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제외시켰다는 점이다. 법의 규칙은 보편적이어야 하며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어긴 것이다. 이는 또한 신상필법(信賞必罰), 즉 "공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죄가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준다"는 원칙에도 어긋난다. 이 말에는 상은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도 반드시 주어져야 하고 벌은 지위가 높은 자도 반드시 받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그런데 모든 부패의 근원인 정치부패를 제외시키고 어떻게 다른 부패를 척결할 수 있겠는가?

이 법은 또한 법의 규칙은 확실해야 한다는 확실성의 원칙도 지키지 않고 있다. 뇌물과 향응을 얼마까지는 되고 얼마부터는 안 된다는 규칙은 이상하다. 군율(軍律)에서 도망을 방지하려면 "도망치지 말라"는 금지와 벌칙만 확실하면 된다. 그런데 50보 도망치는 것은 괜찮고 100보 도망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우습지 않은가? 맹자 양

법보다 윤리 내규 우선돼야
법집행서도 원칙 확립 중요

혜왕(梁惠王)편에도 50보 100보라는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다. 공직부패 방지법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까지 적용대상에서 포함시킨 것은 더욱 법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공권력의 잠재적 감시대상에 둘 수 있어 국민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려면 공직자 스스로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자기 결심과 서약이 먼저 있고 거기에 확실한 금지행위를 명시한 법의 강제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불교에서 계(戒)는 스스로 지키겠다는 맹세이고 율(律)은 공동체가 부과한 규칙인 것과 같다. 각 분야의 공직자들이 자정노력으로 윤리강령이나 내규 등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실행하고 확실한 금지 규칙만을 법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공직부패 방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러한 자정노력이 결여된 법적 강제만으로는 부정부패의 근절이 어렵고 사회를 질식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 중국의 진시황은 법가(法家)를 중용하여 통일에는 성공했으나 법 만능주의로 독재체제가 되어 그가 죽은 후 15년을 못 넘기고 망했다. 그 외에도 법 만능주의가 실패한 역사적 사례는 넘쳐난다. "정령(政令)으로 이끌고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은 그걸 면하려 하겠으나 부끄러움을 모른다. 덕으로 이끌고 예(禮)로 다스리면 백성은 부끄러움도 알고 품격도 갖추게 된다"고 한 공자의 명언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특별 기고

국가 안보 위한 숭고한 헌신 이어져야



황경환
동국대 평생교육원 교수

6.25 휴전 협정일 7.27은 북한서는 전승 기념일이고, 대한민국에서는 6.25 휴전 협정일로 기억되며, 미국서의 7.27은 6.25 참전 전몰장병 추모를 위한 국가 기념일이다. 미국은 2009년 상, 하 양원이 만장일치 의결로 7.27 이날을 미국의 모든 관공서서 현충일과 함께 성조기를 조기로 게양하는 19번째 국가 기념일로 선포했다.

여기에는 당시 미국으로 이민 간 26세의 한인 1.5세대인 한나 김(초, 중, 고는 미국에서)이 그 중심에 있었다. 그녀는 서울대에 역 유학을 하면서 영어 영문학을 전공했고, 이후 미국의 국제 지원 평화 연구소에서 한국전 자료 정리 일을 하다가 6.25에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그래서 그녀가 조직한 민간단체가 '리멤버 727'이고, 이 민간단체 활동에 감동해 6.25 참전 용사인 찰스 랭겔(Charles Rangel) 하원의원이 한국전 휴전일 7.27을 미국의 19번째 국가 기념일 지정 법안을 발의했다. 6살 때 이민, 캘리포니아서 자란 한나 김은 2008년 워싱턴DC서 '리멤버 727'을 조직하여 2년 넘게 활동했는데, 미 상,하의원 435명의 사무실을 찾아다니면서 의회와 행정부를 설득한 끝에 6.25 전쟁 휴전일을 미국의 모든 관공서에 성조기를 조기로 게양하는 '한국전 참전용사 법안'이 통과됐다. 6.25 참전 용사 출신인 찰스 랭겔(Charles Rangel) 당시 미 연방 하원세입위원장은 "한나 김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큰 성과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극찬했다.

그녀는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1만여 명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리는 동안 끝없는 홀대와 외면에 지칠 때도 있지만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려 깊고 헌신적인 몇몇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라"는 미국의 여성 학자이자 인류학자인 마그렛 미드의 충고를 가슴에 새기며 포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6.25 전쟁에 희생한 국군 장병 전사자 14만9,005명, 실종 13만 2,256명, 부상 71만783명과 미군 전사자 4만3,000명, 실종 3,737명 부상 10만 8,000명, 포로 4,439명(미군의 집계는 국방부 집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비롯한 16개국의 유엔 참전국과 의료지원을 도와준 6개 나라의 숭고한 정의심과 희생정신의 아름다운 용기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했다.

7월27일 갈라진 휴전선 248㎞를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이 벌이는 63년간의 첨예한 대립 상태는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상태고, 북한은 그 동안 4차 핵 실험을 끝내고 더 개량된 핵무기와 미사일 그리고 생화학 무기로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공공연하게 엄포를 놓고 있다. 이에 한미동맹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대응 수단으로 2년에 걸친 고민과 검토 끝에 이뤄진 것이 고고도 공중방어 시스템 사드(THAAD)다. 이레이더 기지 선정을 두고 대통령은 해외순방 중이었고 총리와 국방 장관이 기지 선정지역인 성주를 지난달 7월15일 방문했다가 6시간 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큰 봉변을 당하는 사상 초유의 국가 위기 상황이 일어났다. 총리는 만에 하나 전자파로 인해 성주 군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사드기지 설치를 하지 않겠다고 해도 이 말이 먹혀들지 않는다. 66년 전 북한의 6.25 기습 남침 배후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있었다. 지금 한국에 사드(THAAD) 배치를 러시아도 반대하고 중국도 반대하고 북한은 신경질 적인 반응을 보이며 남한을 향한 공갈과 협박은 그 도를 넘고 있다. 여기에 우리 국민들도 하나같이 자기 지역에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면 5,000만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는 누가 무엇으로 지킬 것이며 어떻게 하겠단 말인가?

뿐만 아니라 정치권서는 뚜렷한 대안도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는 일부 야당은 또 그렇다 하더라도 집권 여당서 마저 의견 일치가 되지 못한데서 오히려 성주 군민들의 갈등을 더 부추기는 것 같다. 4세기 말 로마의 전략가 베게티우스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고 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안보에 몰아치는 무서운 먹구름을 우리 국민들은 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社說

현각 스님 발언, 환부 도려낼 메스 되길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푸른 눈의 수행자 현각 스님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계종을 비판하며 한국을 떠나겠다고 공표했다. 25년째 한국 불교와 인연을 맺고 있는 스님이 돌연 한국불교와 인연을 끊겠다고까지 한 이유는 실망감 때문이라고 한다. 그 실망감은 스님의 SNS 글에 분명히 드러난다. 상명하복식 유교적 관습, 남녀차별, 기복신앙, 물질주의 등이다.

스님의 비판 중 가장 많은 공감을 받는 부분이 물질주의다. 불교계는 그동안 절집을 짓고 불상을 조성하는 등 불사를 하지 않는 곳이 없었다. 그 재원 대부분이 신도들에게서 나오니 소임을 맡은 스님들은 전법·포교보다는 불사금 화주에 매달려 있는게 태반이었다. 사찰에 돈과 물자가 모이니 자연스럽게 권력이 생기고 파벌이 생겼다. 이런 권력을 지키고자 기득권이 생기고 권위주의가 생기며, 차별이 생기기 시작했다. 사찰에 돈이 없으면 되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좋은 예가 있다. 잠실에 있는 한 장애인 복지시설의 일화다. 역사가 20년된 이 복지시설은 재가불자의 건물에 세입자로 들어와 있었다. 이 곳 봉사자들의 목소리는 하나였다. 복지시설 스님이 어려운 이웃 돕느라 불사를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봉사자들이 더욱 뭉쳐서 스님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현각 스님의 비판은 그동안 물질주의에 물들어 온 불교계에 대한 경종이다. 불교계는 자신을 엄격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물질에 대해, 그리고 관습·차별에서 얼마만큼 자유로운지 말이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외면한 채 기복을 빙자한 돈벌이에만 매달리면, 현각 스님과 같은 수많은 이들은 한국불교를 등질 수 밖에 없다.

중승대 '4년 단기출가'에 거는 기대

조계종립 중앙승가대학교가 4년 단기출가 제도, 일명 'Uni-출가'를 시행한다고 한다. 중앙승가대에서 4년 간 정규대학과정을 이수하면서 출가생활을 경험하고, 졸업 후 구족계를 받거나 사회전문 직업인으로 진출하는 것이 골자다. 중앙승가대의 'Uni- 출가'는 출가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새로운 시도다.

'Uni-출가'의 가장 큰 특징은 졸업 후 반드시 구족계를 수지할 필요가 없단 것이다. 이는 기존 중앙승가대 학인들의 졸업 후 구족계 수지가 의무화였던 것과 차별적인 것으로, 출가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입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법이다.

또한 기존 단기출가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한 달·100일 등 실제 출가로 이어지기엔 비교적 짧은 기간이란 점을 보강, 출가자들이 예비승려 신분으로서 삶을 살며 보다 현실적으로 출가를 고민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출가 진흥'을 주제로 한 본지의 올해 부처님오신날 특별 대담에서도 전문가들은 전문인을 양성할 수 있는 단기 혹은 기간 출가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실제 대만의 불광산사의 경우 어학 실력 하나로 먹고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엘리트로 교육시킨다고 한다. 당시 패널들은 "한국불교도 기간출가를 정하고 엘리트교육 기회를 제공해서 출가자를 끌어들이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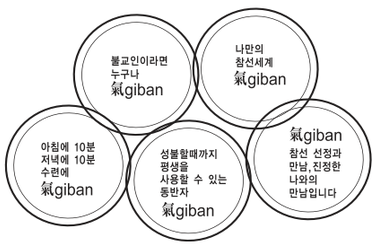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출가 수행자 감소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Uni-출가'는 출가 문화를 변화시키고, 불교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Uni-출가'의 성공과 활성화를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우)03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2층(수송동)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 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별서(앞,뒤)
◀보석감정서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비취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상(연옥) 가액 ₩80,000원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 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세로 32㎝×높이(뒷면) 8㎝]


기반방석 내부



www.hyunbulshop.com

제2차 공개강좌

고통 해탈문

- 일 시 : 2016년 8월 31일(수) 오후 3시 무료예약(33명 제한)
- 문 의 : 1899-9532
- 강 사 : 깨달음센터 - 방장 진귀



● 진귀(眞歸)는 어떤 수행자 인지 ?

1, 진귀는 불가사의한 수행자로서 대다수 범부들의 안목으로는 진귀수행자의 가치와 수행경계를 가늠하기가 불가능하며 더우기 이 세상의 분별잣대 로는 믿고 이해하기가 어렵고 어려운 수행자이다.

2, 겉모습이나 명색의 분별심으로는 측량하기가 어렵겠지만, 한국의 대다수 수행자들이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행자들조차 암, 중풍 등등 병통으로 고통에 시달리다 입적하고 있는 현실앞에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랫동안 은현자재한 진귀수행자는 세상사람들이 알아보지도 못하고 냉대함은 당연 하겠지만 혹, 눈 밝은 자의 선근으로 인연되어 어떠한 방편을 일체 쓰지않고 오로지 차 한 잔 같이 마시는 법력만으로도 이러한 고통들을 사라지게 하고 물러나게 함을 시현하고 입증시키는 수행자이다.

3, 붓다의 법음은 고통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자비스런 메시지가 한국에 전래된지 약 1700년이 흘렀음에도 2016년 UN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세계 행복순위가 57위에 머물러 있고,또한 삶의 질(웰빙지수)에서는 세계 100위권이고 또한 자살율이 OECD 국가중 최고라는 어두운 뉴스가 수행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이러한 불행속의 한국에서 〈자칭 깨친사람은 많으나 깨어있는 참된 사람은 없다〉라는 비난 섞인 소리가 저자거리에 난무하듯이, 상(相)을 여읜 자유스런 물결이 세상사람들의 안목과 의식을 깨어나게 함을 두려워하는 기득권 세력들과 외도들의 득세와 또한, 업에 구속되고 고정화된 식견(識見)과 지견(知見)을 바로잡는 나침반이 되는 희망과 원력으로,지금 보다 행복하고 평온한 한국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큰 서원을 담아서, 2017년 출판을 목표로 〈삼세를 통한 역경작업〉에 전념중이다.

4. 진귀 수행자는 〈석가를 품은 53見〉이라는 화두집의 저자로서 말법시대의 세상사람들이 자신들의 전도몽상적 안목을 돌이켜 보게하고 한 번쯤은 자신의 본래면목을 사유 하게하는 줄탁의 인연이 되고자 집필 21일만에 탈고하여 출판은 했지만 쉽게 인연지어 볼수 없는 불가사의 공덕장엄이 있는 화두집 이다.

5, 2016년 여름 현재, 진귀수행자는 법회, 기도, 신도단련, 천도재 및 각종수련 등등을 일체 하지 않는 수행자로서, 오직 화엄경 연구와 역경작업에만 전념하고 있으며, 특히, 공개강좌 외의 법문요청, 강의요청 및 친견요청 과 취재요청 등등을 일체 사절중에 있으며, 혹 간절하고 간절한 친견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소속 사찰에서 만배(10,000배)를 5일 이내에 마친후 확인증을 제출하신 분에 한하여 친견을 하고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 센터
(구. 화엄경 강원)
주지 원일 합장